조선근로자들은·단결하라!

1.13

근로자

1 호 1월 15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1호 (23)

1949년1월15일

내용

一九四九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인민에게 보내는 신년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 일 성

친애하는 동포들!

一九四九년새해를 맞이하며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명의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지난해에 빛나는 업적을 남겨놓은 공화국인민들에게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드립니다。

一九四八년은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사상에있어서 가장 빛나는 업적들을 남겨놓은 해였습니다 비록 지난해에 우리민족은 전국적통일과 완전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전국적통일과 완전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할수있는 기초와 조건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해방후 三년동안에 북조선에서 쟁취한 모든 민주개혁들과 민주건설들을 법적으로 일층 확고히하며 전조선인민들에게 우리조국이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조선사람은 통일될수없으며 자기손으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없다」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반동파들의 온갖 요언과 흉계를 물리치고 조선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통일할수있으며 자기손으로 자주독립국가를 능히 건설할수있다는것을 전세계에 증시하여주는 남북조선제정당 사회단체 四월 련석회의가 평양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정견이 상이한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우리조국에 조성된 민족적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조국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철거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조선인민은 외국의 간섭이없이 자기손으로 능히 통일정부를 수립할수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도구인 소위「유·엔조선위원단」을 반대배격하며 미정권당국의 조종하에서 강행하는 五월十일 단독「선거」는 망국멸족의 배족적「선거」로 구정하고 그를 매격뽀이코트하며 또 이러한 망국적「선거」로써 수립된 어떠한「정부」든지 조선인민은 인정하지않고 지지하지않을것이며 이러한「정부」와 체결한 어떠한「조약」이나「협정」이든지 조선인민은 다 승인하지않을것이며 그에대한 책임을 누구나 지지않으리라는것을 이구동성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총궐기하여 四월련석회의의 결정을 받들어 장엄한 구국투쟁으로써 五월十일 망국적단독「선거」를 배격뽀이코트하고 음흉한 제국주의자들이 위조한 당국격괴뢰「정부」를 전조선인민과 완전히 절연고립시키었습니다。

남조선총유권자의 七七·五二%와 북조선총유권자의 九九·九七%의 참가하에서 조선최고인민회의선거는 승리적으로 실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공화국중앙정부를 수립한 사실은 우리공화국을 전체조선인민이 어떻게 지지하는가 하는 가장 좋은 실례로 됩니다。

이와같이 一九四八년에 우리조국에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이 선포되고 공화국중앙정부가 수립되고 우리정부를 쏘련을 위시한 체코슬로바키아 파란 루마니아 항가리 유고슬라비아 몽고인민공화국들이 승인한 사실은 우리민족투쟁사에있어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었으며 조선인민이 쟁취한 찬란한 승리입니다。

공화국중앙정부는 조선인민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남북조선제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할수있는 진정한 중앙정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공화국중앙정부가 수립된이후에 남북조선의 방방곡곡에서는 공화국을 경축하며 공화국중앙정부를 지지하는 장엄한 거족적운동과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인민들은 해방후 三년동안에 자기들이 쟁취한 민주개혁의성과들을 일층 공고발전시키며

공화국의· 정치경제적토대를 구축하는 애국적전국운동을 전개하여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초과완수를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공화국수립을 경축하며 공화국중앙정부를 지지하는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공화국의 남반부인민들은 가혹한 탄압과 학살어 심한 조건하에서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들고 남조선단독괴뢰정부를 분쇄하는 장엄한 인민항쟁을 전개하고있습니다 특히 려수 순천 구례 대구 오대산 지리산 한라산일대를 위시하여 남조선전역에 절개된「국방군」폭동사건들은 공화국을 옹호하며 국토의 완정을 위하여 최후의 승리까지 투쟁할 남조선인민들의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같이 一九四八년에 우리들이 비록 국토의 완정과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장엄하고 위대한 투쟁으로써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통일을 완수하고 유구한 력사를 가진 이 강토위에 공화국의 가치를 빛나게할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이여!

우리조국이 공화국으로 선포되고 중앙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쏘련정부는 조선최고연민회의 제一차회의 요청에 의하여 一九四八년 十二월말일까지 우리조국강토에서 자기군대를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二十六일까지 그를 완전히 실천하였습니다。

공화국의 북반부의 인민들은 지난 二十六일에 우리지역으로부터 마지막렬차로 철거하는 우리의 해방군이며 원조자인 쏘련군을 전인민적감격의 분위기속에서 전송하였으며 九백九十三만여명의 남반부의 동포들과 六백八十三만여명의 북반부의 동포들의 잠재약 지성을 묶여서 서명날인한 전조선인민의 감사의 편지를 우리민족해방의 구성인 쓰딸린대원수에게 전하여달라고 해방군대표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벌써 북조선지역에는 쏘련군철거가 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반부는 아직도 미국군대가 점령하고였으며 우리의 오랜 민족적원수연 열본군대까지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미군철거에대한 조선인민의 강경한 요구와 투쟁을 완화시키며 조선인민을 기만할 목적으로 최근에는 남조선 미주둔군「일본이동」과「일부철퇴」설에대하여 떠들고있습니다。

이것은 미군철거를 강력히 요구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두려워서 조선인민을 기만하려는 일종 술책에서 지나지 못합니다。

조선인민은 미군이 우리강토에서 다 철퇴할때까지 일층 맹렬한 투쟁을 전개할것입니다。

왜 미국군대는 우리조국강토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며 조선인민이 갈망하는 남북통일을 방해하며 남조선에 장기주둔을 꾀하고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로 집결한 남조선망국적 반동괴뢰「정부」를 조종하여 우리조국의 남반부를 영원히 예속시키며 우리조선민족을 다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하는 까닭입니다。

위대한 쏘련군대가 북조선에서 철거하게되고 미군동시철거에대한 조선인민의 요구가 일층 강하여지는데 당황한 미정권당국과 남조선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미군장기주둔의 구실을 만들기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하였습니다。

오직 미군의 비호에서만이 자기의 잔명을 존속할수있는 남조선단독괴뢰정부의 매국노들은「남벌」이니「인민군남하」이니「내란」이니 등등의 요언을 전파하고 심지어 소위「미군철퇴연기 국민총궐기대회」까지 소집하고 미군의 장기주둔을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놈들은 이와같이 외국군대가 우리강토에 남아있어달라고 애걸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인민을 기편하기위하여「완전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고하며「외국의 간섭이 없는 독립국가를 건설하기위하여 투쟁한다」고합니다 미정권당국은 남조선장기주둔을 합법화시키기위하여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제三차총회에 제출하고 자기들의 거수기를 리용하여 또다시 조선문제에 대한 비법적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엔 제三차 총회에서도 미국대표단은 유•엔 제二차총회에서와같이 자기들의 조종하에있는 거수기를 리용하여 조선인민의 진정한 대표의 참가를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은 미국대표단이 조선인민의 진정한 대표들이 三년간 우리조국의 남반부에서 미제국주의자가 실행한 식민지 예속화정책의 정체를 전세계의 여론앞에 폭로할까 두려워한 까닭입니다。

그리하여 미국대표단은 우리조국강토에 외국군대가 남아있어달라고 애걸 복걸하며 전조선인민과 절연 고립되고 오직 미군의 총검하에서만 자기의 잔명을 존속할수있는 남조선 괴뢰「정부」의 대표를 소위 조선인민의 대표로 가장하고 남조선 장기주둔을 합법화시키려는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조선인민의 진정한 대표의 참가없이 채택된 제三차 유•엔총회의 비법적결정도 제二차 유•엔총회의 비법적결정과같이 전조선인민의 배격과 반항을 당하여 파탄될것이며 또 조선인민은 자기의 대표가 참가함이없이 비법적으로 채택된 어떠한 결정이든지 인정하지도 않을것이요 그에대한 책임도 지지않을것입니다。

남조선 친일과 민족반역자 망국도배들은 유•엔제三차총회의 비법적결정과 또 이 비법적결정에 의하여 소위「신조선위원단」이란 명칭으로써 "카나다" 대표를 제한 남은「조선위원단」이 남조선에 오게되는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친일파 민족반역자 반동도배들은 소위 유•엔제三차총회의 비법적결정을 허장성세하여 이로써 혼란된 민심을 수습하며 인민과 고립된 자기들의 가련한 잔명을 유지하려고 꾀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허장성세의 선전으로서는 조국의 완전자주독립과 국토의 완정을 보장하기위하여 인민공화국의 기치를 높이들고 구국투쟁에 총궐기한 영웅적남조선동포들을 기만하지못할것이며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는 망국괴뢰「정부」의 배족적죄악을 은폐하지 못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제一차「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조국에서 남조선을 분렬하여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도구로 되었다면 제二차「조선위원단」은 남조선망국괴뢰「정부」의 요청이라하여 미군의 남조선장기주둔의 구실을주며 그 망국괴뢰「정부」와의「조약체결」이라하여 소위「한미군사협정」「한미경제원조협정」등 매국적「협정」으로 우리조국을 영원히 식민지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로밖

에는 리우되지 못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一九四七년十一월 제二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이 소위 「조선위원단」을 파견할때에 「가급적 신속한 기간내에 외국군대철퇴」를 운운하면서 一년이상을 더 남조선에 주둔하고도 철거하지않고 소위 「신조선위원단」을 파견하는 오늘에있어서도 「가능한 첫기회에 외군철퇴」를 운운하며 장기주둔을 피하고 있는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조국과 우리민족과 아무런관련도 인연도없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인 "살바돌"이나 "비돌빈"이나 또는 풍전등화와같은 운명의 중국국민당정부가 우리조국의 남북통일을 시킨다는것은 가소로운 소리가 아닐수없습니다 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과 국토의 완정은 오직 조선인민만이 보장할것이며 또 반드시 쟁취하고야 말것입니다.

친애하는 동포여러분!

머지않은 장래에 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하며 국토의 완정을 보장하기위하여서는 무엇을 하여야하겠습니까?

전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정부주위에 일층 단결하여 국내의 전체민주력량과 애국적력량을 더욱 결집함으로써 국토의 완정을 보장하는 거족적구국투쟁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여야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공화국의 북반부의 인민들은 해방후三년동안에 이미 쟁취한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더욱 확고발전시키며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토대를 더욱 굳건히하고 공화국의 철옹성같은 확고부동할 강력한 기지를 축성함에 전체인력과 물력을 동원하여야하겠습니다.

一九四九년 새해 첫날인 오늘부터 시작하여 一九五〇년도말에 완수하게될 공화국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은 인민경제의 전분야를통하여 해방전 최고생산수준에 도달할뿐만아니라 그를 훨씬 초과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토대를 더욱 견고히하고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생활수준을 급진적으로 향상시키며 기계공업과 새 생산부문들을 시설함으로써 우리산업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며 특히 섬유공업과

같은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그 생산시설을 二배이상으로 확장발전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과업들을 실행하여야하겠습니다.

一九五〇년도에가서 국영산업총생산액은 一九四八년도 실적에비하여 二배이상으로 장성시키며 흑색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과같은 주요산업생산량은 대단히 증가될것입니다.

경공업에있어서 특히 섬유공업품생산은 신제품 인견직물을 一九四九년도에 一二〇만메터 一九五〇년도에는 六〇〇만메터를 새로 생산하게 될것이며 인견사는 一九五〇년도에 一九四八년도 실적에비하여 三배이상 면포는 근 二배이상으로 증가하게 될것입니다.

농업방면에 있어서도 一九五〇년도에는 파종면적에 많은 확장을 보게될것이며 그중에서도 도전면적은 五·五%로 확장될것입니다.

국고금 지출로서만 一九四九년도에 二十개소의 관개공사와 一九五〇년도에 十八개소의 관개공사를 완수함으로써 一九四九년도에 八천二백여정보와 一九五〇년도에는 七천二백여정보를 새로 관개하게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곡물과 두류작물의 총생산량은 一九四八년도수확고에비하여 대단히 증가되게될것입니다.

교통 운수 체신 건설 보건등 인민경제의 각분야를 통하여 우리는 광대한 장성과 발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부문에있어서도 一九五〇년도부터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할 제반 준비사업들을 완수하여야하며 인민학교와 중학교들을 많이 신축하며 사범대학 교원대학 사범전문 및 강습들을 통하여 각급학교의 교원들을 대대적으로 준비하여야하겠습니다.

로동기술향상과 숙련로동자양성을 위하여서도 직장기술교육망과 단기양성기관들을 더 많이 확장하여야하겠습니다.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이 전체력량을 집결하여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면 우리조국에는 완전자주독립국가의 더욱 튼튼한 경제적토대가 구축될것이며 우리조국은 문화적으로 융성될것이며 인민

대중의 물질적문화생활은 일층 제고될것입니다。

공화국의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토대를 튼튼히 구축함이 없이는 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이 불가능할것이며 장구한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인 우리조국의 경제적 문화적락후성을 퇴치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공화국 북반부에있는 로동자들은 공장에서 광산에서 철도에서 공화국의 확고부동할 경제적토대를 구축하는 二개년인민경제계획 초과완수를위한 건설과 증산으로써 공화국의 륭성을 보장하며 국토의 완정을 촉진시키는 장엄한 구국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의 농민들은 농업발전에대한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있게 완수하여 원료와 식량을 녀 많이 생산하며 공화국의 튼튼한 식량기지를 축성함으로써 국토의 완정을 촉진시키며 완전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하는 구국투쟁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의 과학 문화 예술 보건일군들은 자기들의 전체정력과 재능을 다하여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일제통치의 결과로생긴 우리조국의 문화적락후성을 급속히 퇴치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위한 보건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여 자주독립국가건설과 국토의 완정을 촉진시키는 공화국의 과학 문화 예술의 기자를 튼튼히 축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의 학생들과 청년들은 선진과학과 기술을 련마하며 조국과 인민을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애국적민주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우리조국의 준비된 민족간부로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민군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인민들이 이미 쟁취한 승리를 고수할것이며 우리조국을 다시 식민지화하려고 기도하는 침략세력을 격퇴하며 조국과 인민을 팔아먹으려는 반동세력을 분쇄하며 우리조국강토의 완정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항상 준비되어있도록 되어야하겠습니다。

전체군관 병사들은 선진적 군사기술을 습득하며 각종 병기들을 정통하여 군관은 지휘에 능숙하며 병사는 전투에 능숙한 조직있고 규률있고 전투력있는 군대가 되어야하겠습니다。

내무원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인민들이 이미쟁취한 승리와 민주질서들을 확고히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안전히 보호하며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는 망국적반동세력의 온갖 시도와 음모들을 적시폭로분쇄 하도록 분투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남반부의 동포들이여!

공화국중앙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정책과 그들의주구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의 통치하에서 신음하는 당신들의 처참한 처지를 잘 알고있습니다。

해방후 三년간 조국의통일과 완전자주독립을 쟁취하기위하여 당신들이 싸워온 영웅적투쟁과 업적은 영원히 빛나게될것이며 전체조선인민은 당신들의 영웅적인 피의투쟁을 잊지않을것입니다。

공화국중앙정부는 남반부의 농민들이 봉건적 토지소유제도와 지주들의 착취와 일제시대 공출제도이상 더 가혹한 소위 량곡수매법에 의하여 략탈과 착취를 당하고있으며 파산과 기아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있으며 로동자들은 아무권리도 자유도없이 일제시대이상으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당하며 수백만의 실업로동자가 거리에 방축되어 기한에 신음하며 녀성들은 아무러한 인권도 자유도 가지지못하고 비인간적 학대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공화국중앙정부는 머지않은 장래에 남반부의 농민들도 북반부의 농민들처럼 토지의 주인으로 토지개혁의 혜택을 받게될것이며 로동자들은 로동법령의 혜택 녀성들은 남녀평등권의 혜택을받고 자기조국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게될 그시각이 돌아오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는바입니다。

친애하는 동포들!

오늘 공화국 남반부의 인민들앞에 제기되는 임무는 전체 애국적 진보적민주력량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 집결시키어 국토의 완정과 완전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하기위한 구국투쟁을 더욱 광범히 전개함에있습니다。

공화국남반부의 동포들은 미군을 우리조국강토에서 급속히 물러가게하는 투쟁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

조국을 식민지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정책과 조국과민족을 팔아먹는 남조선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의 소굴인 매국적괴뢰「정부」를 타도분쇄하고 머지않은 장래에 국토의 완정과 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하리라는것을 확신하는바입니다。

전체조선인민은 우리중앙정부주위에 일층 굳게 뭉치어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들고 국토의 완정과 완전자주독립국가 건설을위한 거족적투쟁에 총궐기합시다。

一、통일된 조선인민만세!

一、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세!

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정책의 도구인 소위「유·엔신조선위원단」의 정체를 폭로하며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의 소굴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주구인 남조선괴뢰「정부」의 온갖 매국적「협정」들을 청천백일하에 폭로시키며「괴뢰」정부가 채택한 온갖「법령」들과 매국적「시정방침」들을 분쇄배격하며 소위「국방군」내의 애국적 의거(義擧)운동과 영웅적 남조선인민들의 항쟁을 일층 긴밀히 결속시켜 망국괴뢰「정부」를 타도분쇄함으로써 국토의 완정과 완전자주독립을 촉진시키는 장엄한 구국투쟁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여야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이여!

남조선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은 날이갈수록 매국적정체를 점점 더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三년전에 자기들이 하던 행동을 또다시 거듭하고 있습니다。三년전까지만하여도 조선의 친일파들은 자기들의 애비처럼 믿던 일본제국주의가 거꾸러질것을 꿈에도 생각치못하고 왜놈들의 충복으로써 조선인민을 압박 착취하다가 오늘은 우리조국의 남반부에서 외래의 침략세력을 등에업고 또다시 그들의 주구로 증오의 죄악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남조선매국노중 어떤놈들은 하누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는격으로「북벌(北伐)」을 운운하고있으며 내란을 부르짖고있으며 동족상쟁을 부르짖고있습니다. 그러나 조선민족은 하나이며 인민들도 하나이기때문에 뉘가 분렬시키려고 애를써도 분렬되지 않을것입니다。

인민과 고립되고 나라를팔아먹는 몇개의 망국노놈들이 동족상쟁과 내란을 부르짖지만 놈들은 우리공화국기치하에 결집된 전체조선인민의 처단과 심판을 받을날이 오래지않을것이며 단일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이 강토에서 그들의 자취가 영원히 없어지게될날이 오래지않을것입니다。

그와동시에 오늘 국제반동세력과 국내민족반역자들이 제아무리 발악한다하더라도 력사는 인민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진리와 민주는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습니다。

공화국중앙정부는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위한 전체조선인민들의 장엄한 거족적구국투쟁은 우리

당사업지도방법에 대한 몇가지문제

김 열

위대한 쏘련군대의 결정적역활로 우리조국이 일본제국주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지 三년이 넘는동안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조선근로대중의 조직된 선봉대인 우리당은 조선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여 주동적역활과 지도적역활을 함으로써 찬란하고 거대한 업적과 공훈을 쌓아 놓았다.

북조선에서의 인민정권수립과 제반력사적민주개혁의 승리적달성 및 그의 공고화를위한 투쟁 二차에걸친 인민경제계획의 완수등은 우리당의 지도적역활에의한것이다 또한 작년 八월二十五일의 남북조선총선거에 기초한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수립 조선인민공화국헌법채택 공화국중앙정부수립에 이르는 온갖 위대한 과업들은 모두 우리당의 주도적역활에 의하여서만 승리적으로 실천될수 있었던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당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제반 력사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당들과함께 통일전선을 굳게함으로써 전인민을 굳게단결시키면서 가장 강력하고 위신있는 정당으로서 자기의 주도적역활을 다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곧「우리민족가운데서 가장 애국적선진분자들로 조직되었으며 우리민족의 주력부대인 로동계급을 핵심으로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선봉대로 조직되었으며 그들속에서 가장 우수한 분자들로 묶어세운 강철같이 조직된 유일한 정당」(김일성)으로서 우리당의 조직자이시며 조선민족의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우리당의 정치로선이 정확하였으며 또 조직지도원칙이 확고하였기때문이다.

당 창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사업과 투쟁가운데서 우리당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비약적장성을 보았으며 조직적으로 강철같이 훈련되

었다 따라서 매개당원들은 실지투쟁속에서 자라났고 리론적으로 성숙되어간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당은 오늘 우리조국의 운명을 능히 해결할수있는 강력한 대중적 정당으로 되였다.

조국의력사는 새로운단계에들어섰다 절대다수의 조선인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고 우리민족의 령도자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통일적 중앙정부가 수립되었다 우리공화국은 쏘련을 비롯하여 여러 인민적민주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고 또 우리의해방자이며 원조자인 위대한 쏘련군대는 우리조국강토에서 철거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발광적인 식민지화 음모가 날로 로골화되고 있는 오늘의 새로운 정치적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우리당에 부담시키며 당을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더욱 강화할것이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당앞에 제기되고 있다.

력사발전은 우리조국에 새로운 정치적환경을 조성하며 조국의 새로운 정치적 환경은 우리당에 새로운 사명과 임무를요구한다.

여기에서 우리당의 거대한 사업의 모든면에 있어서 당적지도방법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당지도일꾼들은 당사업지도방법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당단체의 력량을 일층 견고히 집결시켜 당사업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당단체의 력량은 당원들의 자각성과 열성에있으며 당의 모든사업은 당내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때문에 당지도기관과 당지도일꾼들의 당사업지도방법은 이 원칙에서 출발되어야한다 당사업의 정치적지도방법은 행정관리사업방법과는 판이하며 당일꾼은 행정관리자는아니다 그는 우선 사람들을 교양하며 조직하는 정치적 지도자이다.

김일성동지는 우리당제二차전당대회에서 당지도일꾼들의 사업지도방법에대하여「우리당 일꾼들은 사업지도방면에있어서 군중을 가르치며 군중과같이 군중속에서 호흡하며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광범한 대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산련락을 가지는것은 당일꾼들의 필연적 요구로 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당지도일꾼들은 당과 정권기관 및 경리부문내의 당원인 지도간부들에게 실지

함남도 어느군당 상무위원회는 신입당원 심사에있어 군당조직부장이 심사한후 본인들이 참가함이 없이 또는 입당자에대한 구체적인 토의도없이 조직부장이 제출한 명단에 의하여 한번 상무위원회에서 수십명씩 입당시키고있었다。

일부시군당위원장들은 중요한문제들을 상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토의하지않고 문의 회람식으로 결정서를 채택하거나 또는 단독적으로 지시하여 처리하며 혹은 위원들의 의사를 참작하지않고 자기의 의사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들이있다。

이러한 지도간부들은 당의 실지사업에 있어서 당사업을 행정화시키며 관료주의적으로 사여한것이다。 례를들면 함북도내 어떤 당단체들은 예정숫자를 실행하기위한 당협조사업에있어서 행정관리일군들에게 실지사업에대한 경험을분석체득하게하며 사업에대한 결점들을 제때에 적발퇴치하게 방조하며 당과 정부의 로선과 지시를 실행하기위하여 어떻게 군중을 조직동원시켜야하는것을 배워주며 전체당원들과 광범한 대중들을 조직교양하며 그들과의 정치적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으로하여금 모든 과업들을 자각적으로 접수하며 그의 실천을위하여 열성적으로 투쟁하

계할대신에 행정관리측의 사업에 지나치게 간섭하며 그를대신하여 심지어는 원료 부속품들을 직접구입함으로써 행정관리일군들로하여금 자기의사업에대한 책임감을 망각하게하며 사업에 적지않은 결점들을 계속나타내고있다 특히 농촌당단체들에서 일부당간부들은 농촌경리의 개인소유제를 망각하면서 예정숫자를 실행하기위하여라는 구실밑에 농촌에서 전달군들을 양성하며 농민의 자기경리운영에대한 관심을 적게하며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정신을 미약하게하는 부분적경향들과의 투쟁을 미약하게 전개한다 대지도일군은 항상 조직과 단체의 의사를 존중하며 당원들과 위원들의 의사를 들을줄알며 그를 실지사업에서 참작하며 당원들을 교양하여 설복시키며 당사업에있어서 당원들과 당일꾼들에 의거하여야한다。

·당조직의 전체인원들을 사업에 발동 참가 시켜야한다

당단체를 집단적으로 지도한다함은 당조직의 전체인원들이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함을 의미하는것이다。

우리당은 광범한 자기조직을 발동시키며 전체 당

적 사업경험을 교양하며 그경험을 통하여 사업 행정에서 있을수있는 오유들을 제때에 적발하도록 방조하며 당에서 제시한 과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군중을 조직지도하는 방법을 배워주는것은 그들의 직접적인 임무로되는것이다 여기에는 지식만 요구되는것이아니라 침착성과 민감성이 있어야하며 사람을 설복시킬줄 알며 그들의 장단점을 옳게 평가함으로써 력량과 기능을 유리하게 리용하여야한다。

우리당 지도기관과 지도일군들이 당사업지도에 있어서 기본목적을 달성하려면 당정치로선의 정확성을 광범한 당원군중에게 해득시킴으로써 그들로하여금 어떤과업이든지 자각적으로 실행하도록 인도하는데 있는것이다 당단체내에는 광범한 단체적 문제토의와 철저한 비판과 자기비판이 있어야하며 또는 당지도기관들은 하급당단체와 광범한 당원군중들과 일상적으로 민첩한 련결을 가져야 한다。

당지도일꾼들은 당단체와 당원들의앞에서 언제든지 자기의 사업에대한 책임성을 잊지말아야하며 당내민주주의를 철저히 준수하며 당사업에 있어서 그의 기본으로되는 집단적 사업지도방법을 더욱 강화시켜야한다 당의 실지사업에 있어서 광범한 당원군중을 문제의 해결과 그의 실천에 열성적으로 참가케하는 여러가지 집단적 사업형태가있다。

단체적 사업지도 방법에 대하여

사업에관한 대책들은 단체적으로 토의해결 하여야한다 문제의 옳은 해결은 다만 그 당조직의 당원들(례하면 도당 상무위원회라면 도당 상무위원들)이 문제의 토의와 대책들을 강구함에 있어서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때에라야만 가능한것이다。

우리당은 집단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토의 해결하여왔기때문에 당사업에 있어서 큰 오유가없이 성과적으로 사업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지방 당지도기관들에서는 위원들의 열성적인 참가가 없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토론이나 결론에 근거하여 단독적으로 되는 결정서들을 채택하는 사실들이 적지않다。

어느 지방당 상무위원회에서는 「부월리모범세포사업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상무위원회에서 당독조차하지않고 선전부의 한일꾼이 작성한초안대로 채택한결과에 그결정서에는 적지않은 오유와 결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사업에 적지않은 해를 주었다。

원들과 당열성자들을 당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시킴으로써 당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것이다。

흥남시당부와 비료공장구역당부에서는 一九四七년도八·一五 증산 경쟁운동과 一九四八년 년간계획 단축운동을 전북조선에 호소하고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활을 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앞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당단체는 이에대한 사업을 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구역당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제반대책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공장내의 열성적인 기술자 기능자들과의 수차에 걸치는 협의들을 진행하여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시킴으로써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하여 공장관리측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각급당위원회와 세포들에서는 전체당원들의 열렬한 토론하에 하급당단체들로써 강구하여야될 대책들을 충분히 토의결정하였으며 당열성자들을 가장 주요한 결정적 부문에 배치하고 광범한 당지도간부들과 열성자들을 발동시켜 전체군중들앞에서 선전교양사업을 진행한결과에 허다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一九四七년 八·一五증산경쟁운동을 계기로써 년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였으며 一九四八년도 예정 생산계획을 약속대로 十一월二十七일에 승리적으로 완수하였다 그러나 一부 당지도간부들이 과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당열성자들에게 그 과업에 대하여 철저히 인식시키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행할것을 자세히 가르켜줌으로써 당단체의 전조직을 발동시킬대신에 하급당단체의 위원장에게만 명령식 지시를주며 다수경우에는 상부로부터 수다한 지도원 검열원들을 하급당단체에파견하여 그들로하여금 직접사업을 집행하게하는 사업작풍이있는데 이것은 엄격히 지적하여야할것이다。

함북도 어느지방에서는 하급당단체에 간부들을 파견하는것을 비상한 경우에 하는 사업방법으로 하는것이아니라 당지도사업에 유일한 지도방법으로 삼고있다 물론 우리당 다수지도일꾼들이 사업에대한 경험이적고 정치적수준이 일반적으로 어린 사업초기에있어서는 이러한 지도방법이 림시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러나 오늘 다수 당지도일꾼들에게 사업에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리론적 수준이 제고된때에는 어떤사업을 물론하고 상부에서 수많은 간부들을 하급에 파견하여 직접사업을 집행하게하는것을 일상적 지도방법으로 삼는것은 옳지않다。

이러한 사업지도방법은 우리당단체로하여금 언제든지 사업에서 높은성과를 쟁취할수있는 조건으로 되는 하급당간부들과 당원들이 사업에대한 창조적 창발성을 발휘하지못하게하며 자기맡은 부문에대한 책임감을 미약하게하며 그들에게 옳지못한 사상적 영향을 주는것이다 례를들면 어떠한정치적 깜파니야를 진행하고 그에대한 사업총화를하는때 어떠한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결과가 어떠하다는것을 보고할대신에 상부로부터 하급당단체에 지도원 검열원들이 많이 동원된숫자를 보고함으로써 사업을 잘 조직지도 하였다고 평가하려는 부분적경향들이있다。

어느당부에서는 한정치적 깜파니야의 진행결과를보고하는데있어서 남녀 선전원四七、五五九명을 동원하였다는 통계숫자를 제일면에 내어 세움으로써 그 사업전부가 잘된것으로 보고 하였던것이다。

위에서 지적한바와같이 이러한 사업지도방법은 유일한 지도방법으로 될수없으며 또 실지에 있어서 유해한것이다 어떤 주요한 과업이 제시되는때에 그를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해당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직접책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지시와 훈시를 주어 그들로하여금 그사업에 대한 직접책임을 지게할것이며 그실행여부를 검열하며 지방당지도일꾼들의 사업을 방조하기위하여 상부로부터 부분적으로 간부들을 파견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제二차전당대회에서 지적하시기를 「정확한 검열사업의 조직은 당기관들의 사업형편을 밝혀주는 탐조등으로 되며 관료주의자들과 형식주의자들을 폭로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된다。 사업실행을 정확히 검열하기위하여서는 첫째 사업검열을 기회적으로 진행할것이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하며 둘째 사업검열을 하급일꾼들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책임지도일꾼들이 검열할것을 요구하며……검열은 상무위원회에 불러놓고 욕질하며 결정서나 만들기위하여서가 아니라 하급당단체들의 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의 사업에 원조를 주며 검열받은 당단체일꾼들을 교양하며 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나 일부당단체들에서는 하급당단체지도검열사업이 상무위원회의 계획서에 의거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집행하는 현상들로써 하급당단체들의 검열사업을 시간적으로 국한시켜 당단체의 경상적사업으로 집행하지못하고 분주히 날뛰고있는 형편에 있

으며 하급당단체들의 지도검열사업을 장점은 보지않거나 보려고도 하지않으며 결점만 주어모으려고하는 편견적사업방식과 극히 부분적문제에만 국한시키며 외면에 나타난 문제들에만 치중하는등의 형식적이며 관료주의적 지도검열사업들이 시정되지못하고 당지도사업에 적지않은 조해를 주고있다。

각급당단체들로하여금 당내 민주주의적 원칙을 준수하고 집단적지도방법을 더욱 활발히 실지사업에 살리어야하며 집단적지도원칙에서 토의결정된 자체당단체의 사업들을 상급당부의 검열지도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자체당단체로부터 구체적이고 세밀한 일상적 지도검열사업을 통하여 사업을 분석연구하여 당단체들의 지도적원칙과 방법을 더욱 높은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당사업에 전체위원과 당원을 참가시키는 원칙을 위반하는 다른실례로써 적지않은 당위원회나 세포들에서 해당위원회나 세포총회를 대다수의 위원들과 당원들이 참가하지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지못하는 회의를 진행하는데서 볼수있다。

례를들면 함북도 어느탄광당부에서는 五명이 모인 상무위원회에서 四명의상무위원을 보선한사실이있다。

군중의 사업경험을 당사업에 살리자

당단체를 집단적으로 지도한다는것은 당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여야하며 하급일군들의 복소리에 귀를기울이며 그들의 의사를 들을줄 알며 당군중의 사업경험을 실지당사업에 살릴줄 아는것을 의미한다。

지도간부들이 실지사정을 관찰함에있어서 그들이 보는점이 위에서 보기때문에 편견적으로되며 어떠한 정도에까지 국한되어있다 그와반대로 대중은 모든사실을 아래로부터 관찰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점도 역시 아래에서 보기때문에 편견적으로되는것이며 이역시 어느정도까지 국한되고있다 때문에 문제의 정확한 해결을얻으려면 이두가지면을 종합분석하여야하며 그런때에야만 실수없이 문제를 옳게 해결할수있다 이점에있어서 당위원회나 당회의를 옳게 조직진행한다면 그회의에는 각이한 여러부문에서 사업하는 당원들이 모였기때문에 그들의 사업경험을 당사업에 참작할수있으며 결점들을 제때에 적발할수있으며 당단체의 옳은 사업방향을 얻을수있다。

그러나 일부당단체들에서는 회의를 제때에 소집하지않거나 또는 한개의 기념식처럼 번잡하게 진행하거나 다수경우에는 지도층에서 사전에 어떤사람이 어떤내용을가지고 어떻게 토론할것까지 예정해놓고 기계적 관료주의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심한경우에는 토론자를 매회의마다 七―八명으로 고정하는 사실까지 부분적으로 있다。

그 대표적실례로 강원도 어느세포위원회에서는 세포총회전에 미리 보고자 토론자 결론자와 그의내용을 전부 예정해놓고 다른당원들은 토론에 참가하여 발언할수없게 회의를 조직진행한다。

비판을 대담하게 실제적으로 접수하여야한다

당사업의 집단성은 지도자로 하여금 하급간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기사업 결점에대한 비판을 대담하게 접수할것을 요구한다。

당지도일군은 사업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자기위신을 저락시키는것으로 인식할것이아니며 자기의 리기주의적 개성에 사업을 복종시키지 만아야 할것이다。

함북도당부 관하 어떤 간부들은 표면에서는 비판을 접수하는체하며 또 비판이 적다고까지 지적하면서 리면에 가서는 비판을 접수하지 않으며 자기의 위신을 침해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실지에있어서는 비판한자에 대하여 적대시하며 복수하려는 경향들이 있다는것이 어느 위원회에서 지적되었다。

쓰딸린대원수는 『단체적으로 행동을 취할줄 알며 개인의 의사를 단체에 복종시킴은 즉 볼쉐위끼적 대담성이라 한다 이러한 대담성으로서 자기의 리기주의를 극복하고 자기의사를 단체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가치가없이는 단체도없으며 단체적지도도없다』라고 말씀하였다。

당지도일군은 자기사업에 대한 당원들의 지적과 비판을 당적으로 접수하는 모범을 보여야할것이다。

비판을 회피하거나 접수하지 않는것은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당일꾼들과 당원들의 열성을 저하시키며 결점들을 시정하기위한 책임감을 적게하는것이다。

그렇다고하여서 일부당간부들은 자기비판을 한다고하여 종일토록 자기사업의 잘못된것만 사죄하고 마는 경향이 있다 혹은 자기사업에 잘못이있다고하여 다른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여 비판할것을 두려워하며 사업에대한의견을 제기할것을 주저한다。

이것은 자기비판을 위한 자기비판으로되는것이며

그결과는 당사업의 집단적 지도방법의 한부분인 당회의에서 당사업에대한 전반적 결점들을 대담하게 지적하지못하며 동시에 당사업의 좋은경험과 장점및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을 개선하는데 성과를 얻지못하게한다。

단독적책임으로써 원칙적으로 결정된 문제를 자립적으로 처리하며 사업을 정확하게 종합 、분석 계획 하여야한다

집단적지도방법은 당사업지도에 있어서 기본으로 되며 당지도간부들을 교양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나 이렇다하여 당지도사업에 있어서 집단적으로만 지도하거나 집단적으로 지도한다하여서 모든 문제를 회의에서만 해결하거나 또는 회의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것을 의미하는것은아니다。

평북도 어느 군당상무위원회에서 한 면당사업보고를 三、四、九월에 一四번을 청취하고앉아 있었으나 면당위원장은 어떤사업을 할찌도 모르는등 회의는 물론 집단적 지도사업방법과는 아무런 인연도없다。

지도사업의 집단성과 문제를 단체적으로 토의해결한다하여 당사업에 있어서 실무성을 제외하는것이 아니며 각자의 책임을 저감하는것이 아니라 그와반대로 구체적 실무성과 개별적 높은 책임감을 예결하는것이다。

레닌선생은『우리에게는 단독적 책임감이 필요하다 기본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집단성이 필요한것과같이 사업에 산만성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지않기위하여서는 단독적책임감과 자립적 문제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시하였다。

각급당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가하여 문제나 토의해결하면 자기임무를 다한것처럼 인식하는경향을 퇴치하고 결정이 채택된후에는 반드시 그실행여부를 살펴보며 직접책임을 지고 그결정을 집행 하여야한다。

절대다수의 우리당간부들은 원칙적으로 해결된문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위한 대책들을 강구함에 있어서와 집단적원칙위에서 해결된 문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대담성과 책임감 있게 사업을 조직함으로써 당이 내세운 과업들을 단기간내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구체적 실례로서는 우리당의 주도적 역활로써 진행되고있는 제반 려사적 위업들이 북조선지역에서

짧은기간내에 승리적으로 실행된것을 들수 있다。

우리당지도간부들은 과학적기초위에서 모든 사업을 정확하게 종합 분석하면서 계획적으로 사업하고있다 모든 사업이 종합과 분석이 없이 그기초위에서 수립되는 사업에 계획성이 없이는 정확하고 민활한 당사업지도가 있을수없다。

우리당간부들은 실지사업에 있어서 허다한 대소문제들을 취급하게된다。

때문에 그문제들을 옳게 평가하며 옳은결론을 짓기위하여서는 전체적으로 취급할줄알며 주요한것으로부터 주요하지 않은것과 전체적으로되는 것으로부터 부분적으로되는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크고 적은 문제들과 사실들을 그대로 모아놓는것은 그를 종합하는것이라고 볼수없다 어떤일군들은 자기사업을 종합함에 있어서 (특히 보고서를 작성하는때에) 허다한 사실과 실례를 아무러한 분석도없이 그대로 라렬한다。

또、어떤일군들은 사업을 분석한다하여 허다한 실례들만 둘처내며 례를 들기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지생활과 사업은 너무나 광대하고 복잡하기때문에 어떤사업이나 물론하고 그사업에대한 장단적례를 들자면 제한이 없는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결점을 퇴치하고 사업을 옳게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현상과 사실들을 각방면으로 연구하며 모든 사변들에대하여 그들의 위치를 구명할줄알며 그사실들을 비판적으로 취급한후 그것이 우연한것인가 혹은 대표적인것인가 즉 기본적 쩬젠치야(동향또는경향)와 기본과정의 표준으로 되는가함을 알아야하며 대표적인현상과 사실및 실례들을 매거하여 그를 세밀하게 연구하며 종합하여야 한다。

지나간사업과 사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미래에대한 교훈을 얻어야하며 앞으로의 사업에대한 오유를 미연에 방지할줄 알아야된다。

레닌선생은『제반 정치적 사변들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며 그들의원인에대한 련결성과 결과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자기를 검토하여야한다。

전일의 오유를 분석함으로써 오늘과 래일에 오유를 범하지않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말씀은 우리당 일군들의 사업의지침으로 될것이다。

일부 어떤간부들은 오늘의 목전사업에만 분주해

돌아다니면서 지나간 사업과 지난 사실들을 분석종합하지 않으며 때문에 래일과 미래에 어떠한 사변들이 있을것이며 어떠한과업들이 제기될것을 예견할줄 모르고 어두운밤에 주먹내미는 격으로 사업하는 사업작풍들을 볼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소위 지도자들은 하루종일토록 앉을사이 설사이없이 수다한 방객들을 만나 장시간에 걸친 쓸데 없는 담화와 잡담을 하고 있거나 여기저기 눈코 뜰사이없이 뛰어다니거나 또는 허다한 결정서 지시서등 서류에 파묻기어 해매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 그날이 가면 밤에는 두통이 생기고 피곤하여 쓰러져 자다가 날이새면 또다시 일어나 그러한「사업」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결과에 신문한줄 책한폐지도 보지 못하며 사업의전망도내다 보지 못하고 사무주의에 봉착되고만다 당간부는 정치적지도자로서 반드시 모든현상과 정치적사변과 자기사업을 비관적으로 분석하여 그를 종합함으로써 옳은결론을 지으며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할줄 알아야한다。

이러기위하여서는 우선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다。

때문에 당지도일군들은 항상 자기와 아래일군들을 교양하며 맑쓰 레닌 주의적과학지식을 소유하기위한사업에 꾸준한 노력과 방조가 있어야한다。

맑쓰 레닌주의적과학지식으로 무장못한다면 사업에대한 옳은대책들을 강구할수없으며 원칙적으로 해결된 문제를 옳게 집행할수 없으며 결정과 지시에 대한 실행여부를 정확하게 검열할수없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당사업을 옳게 지도할수없다。

때문에 당간부들은 자체의 리론사상적 수준을 높이기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당지도일군들은 당사업지도방법을 더욱 향상함으로써 우리당에 지워진 사명을다하여 조선민주주의 완전자주독립을 전취하는 투쟁에 있어서 계속 주도적 역할을 다할것이다。

최근의 남북조선의 정치정세

박 창 옥

一. 조선에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五월十일 망국적 단독선거이후 남조선에조성된 복잡한 정치 경제 정세

二、자주독립국가 건설을위한 투쟁에서 북조선인민들이 쟁취한 승리와 八월二十五일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이후 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

三、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제三차총회의 비법적결정과 남조선 반동괴뢰정부의 매국적발악

四、결 론

一、조선에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정책과 五월十일 망국적단독선거이후 남조선에조성됨 복잡한정치경제정세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진주한 첫날부터 오늘에이르기까지 한가지 유일한 정책을 실시하여왔다。

그것은 즉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시키려는 식민지 예속화정책이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대한 자기들의 음흉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기위하여 남조선에 진주한 첫날부터 두가지 기본방향으로 정책을실시하였나니 그것은 즉 정치적예속화정책과 경제적예속화정책이었다。

우선 정치적방면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예속화정책을 실시하였는가?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치적방면에서 자기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기위하여 남조선에 친일파민족반역자들로결속된 반동세력을 강화하는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적예속화정책을 실시하기위하여서는 남조선의경제를 혼란과 파탄시키며 조선인 민족공업의 부흥발전을

조해하며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잉여상품의판매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선 정치적방면에있어서 남조선에 민족반역자 친일파들로 결속된 반동세력을 조장하기위하여서는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였는가?

첫째로 그들은 남조선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반동세력을 조장하기위하여서는 우선 조선에대한 유일한 국제적협정인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을 파탄시키는 길에 들어섰다 그것은 조선을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부흥발전시키는 유일한 국제적협정인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을 파탄시키지않고는 그들이 조선에대한 자기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지못하게된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남조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반동세력을 조장하여 소위「반탁」이라는 미명하에서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을 파탄시키고 쏘미공위를 二차나 결렬시킨후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상정시키어 소위 유·엔소총회의 결정이라는 구실하에서 유·엔조선위원단을 가장하고 남조선 五월十일 망국적단독선거에까지 이르게된것이다。

둘째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친일파민족반역자들의 반동세력을 조장하기위하여서는 해방이후 남조선에서 우후죽순처럼 장성된 해방민족의 장엄한 민주세력을 로골적으로 탄압하는 길에들어섰다 그결과에 해방이후 남조선일대에 인민의 창의에의하여 수립되었던 인민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들은 해산되었으며 남로당을위시한 남조선민주주의 제정당사회단체들은 지하로 구축되었으며 민주출판물과 언론기관들은 폐쇄정간되었으며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은 구금 투옥 학살 당하였다。

민주진영에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탄압정책의 결과는 남조선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반동세력을 강화하였으며 남조선을 테로경찰국가로 전변시키었다。

그것은 일제시대보다 더참혹한 오늘의 남조선의 처참한 정치사태가 말하여주고있다 오늘의 남조선의 감옥수효는 일제시대에 전조선에있던 감옥수효보다 더증가되었으며 남조선의 감옥들에 투옥된 정치범들의 수효는(가장 축소하여 발표한 재료에 의하더라도 三만명초과) 일제시대의 전조선감옥에 투옥되었던 정치범수효보다 더 증가되었으며 일제시대에 경찰노릇하던 전직경찰들만하여도 五천여명이상이 오늘 미군통치

하의 남조선에서 전횡하고있는 사실은 남조선이 경찰테로국가로 전변하였다는 사실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셋째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통치 三년동안에 아무러한 정치적 개혁도 실시하지않았으며 민주제도도 수립하지않았다 그들은 해방된 조선인민에게 정권에 참여할 아무러한 권리도 주지않았으며 일체정권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수중에 넘겨주고 남조선에 일제시대의 통치기구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였다。

정치적방면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반동세력을 조장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남조선에 매국적 반동괴뢰정부를 수립하는 길을 닦아놓았으며 또는 그 반동괴뢰정부의 손을 통하여 남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자기들의 음흉한 기도를 실천시키려고 시도하고있다。

다른 방면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경제를 파탄시키며 조선민족공업의 부흥과 발전을 조해시키며 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위하여 어떠한 정책들을 실시하였는가?

첫째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경제를 혼란파탄시키며 조선민족공업의 부흥발전을 조해할 목적으로 소위 경제적「원조」라는 미명하에서 경제적 예속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미정권당국은 남조선통치 三년간에 남조선경제를 부흥발전시키기위한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않았으며 도리어 조선인민족경제를 혼란파탄시키고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잉여상품시장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둘째로 미제국주의자들은 희랍이나 중국이나 이태리나 불란서등 국가들에서 실시하던 소위 경제적「원조」정책의 미명하에서 조선공업의 부흥발전을위한 대책들을 취할대신에 남조선시장을 불필요한 잉여상품으로 범람시키고 소위 남조선 원조물자의 대가로 二천五백만딸라의 차관과 군정무역이니 과정무역이니 민간무역이니하여 二천여억원의 대부를 남조선에 주었다한다 이와같이 그들의말에의한다면 미군정통치의 三년간에 三천만 조선인민은 벌써 매명이 七천여원의 미국빚으로 얽매운셈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정책의 구체적실례로는 다음과같은 사실을 들수가있

다 一九四七년八월부터 一九四八년 九월까지 불과 一년동안에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된 설탕값만하여도 四十여억원에 달하며 외래미 값만하여도 八十五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고보니 곡창인 남조선의 미곡은 어데로갔는가? 이것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소위 경제적「원조」정책의 결과이다。

셋째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위하여 소위 적산불하법이라는『이름좋은』법령을 채택실시하였다 소위『적산 불하법』의 결과는 조선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한 유일한길인 산업국유화의 길을 막아놓았으며 조선공업을 파괴시키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적산 불하법』에의하여 모든 적산을 모리간상배들의 수중에넘기어 파괴시키었으며 미국상인들과 기업가들의 수중에 넘기어 파괴시키었다 여기에서 지적하여야할것은 만일 이『적산 불하법』에의하여 기업을매수한 어떤개인이라도 그것을 옳게운영한다면 어느정도라도 남조선 형편에서는 용서할만한 일일것이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의 고혈로된 공장과 기업소들을 파괴하며 남조선공업을 파탄시키는 방향으로 이『적산 불하법』을 실시하였던것이다 이『적산 불하법』에이하여 어떠한 개인기업가를 물론하고 적산기업소를 일정한 기간내에 리용할 운영권만을 매수하고 자기가 매수한 운영기간내에 공장의 기계들을 혹사하며 일체설비들을 파괴하여 팔아먹을수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그리하여 이『적산 불하법』의 결과에 오늘 남조선의 절대다수의 기업은 파괴 마비상태에 처하여있게된것이 우연한 일이아니다。

一九四八년三월五일 전군정장관 띈의 기자단과의 담화에의하여도 一九四七년도에 五천여개소의 소 중기업을 불하하였으며 二천척의선박과 八만여호의 적산가옥을 불하하였다고한다。

넷째로 미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한 경제적예속화정책의 다른 방법은 소위 딸라장사 정책이었다。

최근 남조선에서 통행되는 환산률은 미화 一딸라에 남조선 은행권 二천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얼른 보기에는 그리 큰일같이 않지만 사실에있어서는 조선의 민족경제를 딸라에 얽어매는 가혹한 경제적 식민지 예속화정책이며 조선인민의 고혈을 짜아내는 가장 가혹한 식민지경제정책이다。

실레로 현재 아무기술도없는 남조선에온 二등병 미국군인이 매삭 九十딸라의 월급을 받는데 이것을

남조선은행권으로 환산하면 미국군인이 남조선에 와 받는 월급은 매삭 十八만원으로되는것이다 이러한 군인은 남조선에 한명도아니고 몇만명으로 계산되며 그외에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딸라는 수천만딸라에 달하는것이다 이와같이 『자선심많은』미국식『원조자』들과 미국상인들은 딸라장사에 의하여 조선을 원조하는것이아니라 조선을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조선사람의 피와땀으로 조선에 왔던 어떤 미국사람을 물론하고 남조선에 와서 一년만있으면 그들은 빈한한 우리 조선에서 부자가되어 미국으로 돌아가는것이 우연한일이아니다 누구의 땀과 누구의 피로 미국상인들과 미국『자선가』들이 부자가되는가? 이러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화정책은 남조선의 전체 공업을 파괴시키었으며 남조선의 경제를 혼란시키고 五백여억원의 통화팽창을 불러내고 三백여만명의 대중적 실업자를 거리에서 방황케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을 빈궁과 기아에 몰아넣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통치 三년동안에 농촌경리방면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또 계속실시하고있다 조선농촌의 락후성의 원인으로되는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를 존속시키고 토지를농민들에게 주지않았으며 농촌경리발전을 위한 어떠한 개혁이나 대책을 실시하지않았다 실례로 남조선총경지면적의 六三%를 농업인구의 약 三、四%가되는 지주가 소유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과거 일제의 소유이던 동척소유 토지는 남조선농민을 무제한으로 착취하는 새기관인 신한공사로 개칭하여 관리케하였으며 一九四八년三월에는 적산토지를 소위 소작인들에게 분배한다는 미명하에서 군정법령 一七三호로써 소위 중앙토지행정처에 이관된듯이 하였으나 실제에있어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소유로 남아있거나 모리배 지주들의 소유로 넘기였다。

이와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통치의 三년동안에 남조선에 친일파민족반역자들의 세력을 조장강화하고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경제적 식민지 예속화정책을 실시한이후에 남조선을 우리조국에서 영원히 분렬하는 소위 五월十일 망국적단독선거를 실시하는길에 들어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五월十일 망국적단독선거를 실시하기위하여 준비계단으로 무엇을 하여놓았는가?

첫째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五월十일 망국적단독선거를 준비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이 단선을 반대하는 장엄한투쟁을 전개할것을 예견하고 그들은 남조선민주진영을 탄압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로골적으로조장하는 음흉한 행동들을취하였으며

둘째로 선거를 강압하기위하여 미군의 무력과 남조선경찰의 총동원과 각종각색의 테로 청년단 향보단들을 동원하여 선거의위조를 보장하려고 하였으며

셋째로 선거의 합법성을 구실하기위하여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이라는 미제국주의의 침략도구를 가장하여 선거의 소위 국제적 감시를 보장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五월十일 망국적 단독선거를 배격 뽀이콧트하는 전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은 실제상 남조선 망국적 단독선거를 파탄시키였다。

만일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五월十일 망국적단독선거의 소위『결과』를 가지고 말한다면 그것은 위조와 기만의 결과에서 불과한 날조인것이다。

五월十일 남조선 단독선거 실시이후에 우리조국에는 가장 큰 사변들이 발생하였다 그사변들은 남조선인민의 구국투쟁의결과에 실시된 八월二十五일 최고인민회의의선거이며 그선거결과에 우리조국에 조선인민이 一일천추로 고대하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되고 공화국 중앙정부가 수립된 사실이며 그것은 우리조국에 공화국 중앙정부가 수립된이후에 그중앙정부를 쏘련을 위시한 제민주국가들이 시인하고 약소민족의 권리와 자주권을 존중하는 위대한 쏘련군이 우리조국에서 철거하게된사실이며 동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주위에 굳게뭉친 남북조선인민이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들고 남조선 단독괴뢰정부를 배격분쇄하며 미군의 즉시철거를 요구하는 장엄한 거족적투쟁이 전개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남조선괴뢰정부로하여금 조선인민과 절연되게 하였으며 또는 오직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에의하여 자기의 여명을 존속할수있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굴로 그정체를 일층폭로케하였다。

五월十일 남조선 망국적단독선거실시 이후에 우리조국에 조성된 이러한 력사적사변들과 이러한 구국투

쟁의 대책들은 왜 자능하게되었던가?

그것은 해방후 三년동안에 위대한 쏘련군의 진정한원조에의하여 우리조국의 북반부에 강력한 민주기저가축성된 결과인것이다。

二、자주독립국가 건설을위한 투쟁에서 북조선인민들이 재취한 승리와 八월二五일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이후 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치 정세

해방후 三년동안에 우리조국의 북반부에서는 쏘련군의 진정한 원조에의하여 위대한 정치경제적 변혁들이 발생되었다 이변혁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정책을 걸음마다 파탄시키었으며 조선인민들에게 자주독립국가 건설을위한 투쟁에서 승리에대한 거대한 확진념을 주었다

해방후三년동안에 우리조국의 북반부에서는 강력한 인민정권이 수립되었으며 토지개혁을 위시한 산업국유화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등 위대한 민주개혁들이 실시되었으며 우리조국의 자립적민족경제를 수립하는 장엄한 민주건설과 경제부흥발전 계획들이 성과있게 실행되었으며 또는 발전되고있다 그결과에 북조선에서는

첫째로 정권이 인민의수중에 장악되었으며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각부문에서 완전한 주인으로 되었으며

둘째로 북조선에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에 부합되는 민주개혁들을 실시한결과에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각부문에서 인민대중의 지도적 지위가 확보되었으며 반동의지반이 근본적으로 전복되였다。

셋째로 북조선에서 실시한 민주개혁들은 인민경제의 장래부흥발전을위한 아주 유리한 조건들을 지어주었으며 인민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 거대한 성과들로써 인민대중의 물질적 문화생활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었다。

넷째로 북조선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치적기초인 인민위원회들이 확고발전되었으며 공화국

의 정치적 물질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이와같이 해방후 三년동안에 우리조국의 북반부에 강력한민주기지가 축성된 사실은 우리민족이 자기손으로 능히 자기조국을 통치할수있으며 동시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걸음마다 파탄시키며 실현하지못하게하였다。

五월十일 망국적단독선거와 관련하여 우리조국에 조성된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기위하여 남북조선의 전체인민들은 더강력한 구국투쟁의 대책을 취하게되었던것이다 이구국투쟁대책의 결과에 八월二十五일최고 인민회의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우리조국에 조선인민이 일일천추로 고대하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되고 공화국중앙정부가 수립되었다。

금번 제三차유•엔총회에서 쏘련대표 말리크는 八월二十五일 최고인민회의의 선거에대하여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만일 남북련석회의에 참여하였던 『제정당측으로부터 유•엔의 비호밑에서 미군정당국이 조선인민에 대하여 감행하는 그와같은 전횡을 수수방관하였다면 그것은 유치하고도 놀랄만한 일일것이다 이단체들이 정당한 대책을 취하였던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八월二十五일 최고인민회의선거결과에 우리조국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되고 공화국중앙정부가 수립된사실은 우리민족 독립투쟁사에있어서 가장 장엄한 사실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엇에 토대하였는가?

八월二十五일 선거에의하여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첫제로 三천만 조선인민의 장구한 해방투쟁의결과에서 수립된 숙망의 결정체이며 해방후 三년동안 자주독립국가 건설을위한 조선인민의 지망의 실천이며 투쟁의결과이다。

공화국은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의하여 수립되었으며 조선인민의 절대적 지지를받고있다 그실례로는 공화국수립이후 남북조선의 방방곡곡을 통하여 공화국 수립경축대회가 전개된사실이며 친일과 민족반역자

들의 반동통치하의 남조선에서까지도 공화국지지경축대회들이 지하에서 장엄히 전개된 사실들이다 공화국이 선포된날 남조선소위 중앙청 꼭대기에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기가 휘날린사실은 남조선인민들이 얼마나 공화국을위하여 투쟁한다는 상징으로된다。

둘째로 공화국은 해방후三년동안 북조선민주건설의 성과들을 자기의 정치 경제적 토대로하였다 북조선공업은 남조선에서의 적산불하와는 달리 인민의 소유로되어 산업국유화정책을 실시하게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공화국은 북조선에서 실시된 위대한 민주개혁의 성과들과 장엄한 경제건설의 성과들을 자기의토대로하였다。

셋째로 공화국의정치적기초는 해방후 三년동안에 북조선인민들이 쟁취한 진정한 인민정권의 형태인 인민위원회를 토대로하였다。

이와같이 八월二十五일 남북조선총선거의결과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확고부동한 정치경제적 토대위에서 튼튼히 구축되었으며 이공화국이 수립된이후에 우리조국의 정치정세에는 위대한 전변들이 발생되었으며 반동진영에는 대혼란이 발생되었다。

공화국수립이후 우리조국의 정치정세에서 발생된 사변들은 어떤것들인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조국의 정치적세력배치에서 발생된 사실들이었으니 즉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전체 애국적민주세력은 장엄한 민주진영에 결속되었으며 조국과 민족을배반하는 반동매국도당들은 전체조선인민과 일층고립된 사실들이다。

그것은 둘째로 공화국수립이후에 남북조선의 전체인민들은 인민공화국의기치를 높이들고 공화국중앙정부의주위에 일층굳게뭉치어 장엄한 구국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사실이며 공화국의북반부에서는 국토의 완정과 공화국의정치경제의 토대를 일층공고발전시키는 장엄한 경제건설이 일층전개된사실이며 공화국의 남반부에서는 망국적 괴뢰정부를 반대하는 영웅적 인민항쟁이 일층광범위로 전개된사실들이다。

그것은 셋째로 공화국중앙정부의 수립과 관련하여 위대한 쏘련군대가 북조선지역에서 철거하게된 사

실이다 쏘련군 철거에대한 쏘련정부의 결정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주었다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쏘련군이철거하는 조건하에서 남조선에 장기주둔을 구실할 아무런 조건도없게되었으며 조선인민에게 자기들의 식민지정책의 정체를 일층더 폭로하게된때문이다 그러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 제三차총회에서 자기들의 거수기를 리용하여 진정한 조선인민의 대표의 참가를 거절하고 조선문제에대한 비법적 결정을 채택한것이 우연한 사실이아니다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의진정한 대표의 목소리를 듣기를 두려워한까닭이다。

유•엔 제三차총회에서 미국대표단은 조선인민의 진정한 대표의 참가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주구인 남조선망국괴뢰정부의 대표를 참가시켜 자기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남조선망국괴뢰정부의 대표 망국노 장면은 유•엔총회에서 남조선 五월十일 망국적 단독선거의 합법성을 증명하기위하여 변명하기를 남조선에서 선거가 자유적민주주의 분위기에서 실시된 사실은 자기도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였으며 또 투표에 의하여 자기도 피선되었으며 유•엔총회에 대표로까지 파견되었다고 하였다 이 얼마나 한심한 증명인가?!

그는 말하기를 「조선인민속에는 자기조국을 다른나라보다 덜사랑하는 사람은 매우적다」고 하였다 장면의 이 말은 가장 옳은 말이다 조선인민속에는 자기조국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기위하여 유•엔총회에 와서 자기조국에 외국군대가 남아있어달라고 애걸하는 장면과같은 족속의 망국노들은 가장적은 것이다 이러한 족속의 매국노들은 리승만 김성수 리범석 장면등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뿐일것이다。

三、조선문제에관한 유•엔 제三차총회의 비법적결정과 남조선 반동 괴뢰정부의 매국적 발악

남조선五월十일 망국적 단독선거이에후 수립된 소위 남조선 국회는 그동안 벌써 一백二十八차나 회의를 가지고 소위 「국사」를 처리하였다。

이 一백二十八차의 회의에서 남조선의 소위 국회는 조선인민을위하여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였는가? 이 망국국회는 조선인민을위하여 어떠한 한가지문제도 해결할수없었으며 또는 해결하지도 못할것이다。 만일 그들이 해결한 문제라면 그것은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기위한 문제들뿐이며 자기의 모리와 사리사복을위한 문제들뿐이었다 그렇기때문에 소위 남조선국회는 一백二十八차나 회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풍습 상태는 점점더 몰락과 중세기의 암흑천지로 들어가고있는것이 우연한 일이아니다。

남조선에 조성된 금일의 경제 문화 풍습상태를 간단히라도 총화하여보자。

첫째로 산업형편은 어떠한가 남조선서울지대에있는 三천여개의 소중기업소중에서 금일 조업능률을 가진 기업소는 불과 五%이며 이 가운데서 운영하는 기업소들은 二十三%에 불과하다 남조선 공업지대인 영등포지대에는 금일 완전히 조업하는 공장이 하나도 없으며 생산력은 종전의 二十분지一로 저하되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파괴된 남조선 산업경제에 대하여 매국노 리승만은 미국에서 좋은 물자가 들어오면 해결될것이라고한다。

오늘 미국의 「원조」를 바라는 리승만은 미국 「원조」에 의하여 남조선의 민족경제를 파괴시키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빈궁과 기한에 몰아넣었으며 二천五백만딸라의 차관과 二천여억원의 부채를 남조선인민들에게 덮어씌우려고 흉계하고있다。

둘째로 오늘 남조선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 일제시대에 곡창 남조선에서 매년 일본으로 수출한 쌀미는 一천만석이나되며 북조선으로 수백만석의 식량을 실어보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조선에서는 지난 한해동안에 四十억원의 설탕을 미국에서 사들이었으며 八十五억원의 외래미를 사들이었다。

그런데 왜 오늘 남조선에서는 식량이 부족되며 인민들이 기아에서 신음하고있는가?

남조선에 지난해에 흉작이든까닭인가 그렇지도않다 리승만이 말한대로「하나님 덕분에 남조선에는 농사도 잘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식량이 일제시대보다 부족하게되는가?

조선인민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미제국주의자들이 훔쳐 갔다는것으로 밖에는 짓지못할것이다。

매국노 리승만이는 소위 공출을 없샌다는 미명하에 악명높은 량곡매입법을 제정하여 남조선농민대중을 강탈하고있다。

만일 전라남도 한도의 실례를 가지고 본다면 이 량곡매입법이 얼마나 가혹한가하는것을 우리는 능히 판단할수있다。

一九四七년 미군정 공출령에 의하여 전라남도에 활당된 미곡공출량은 八十二만석이였다면 一九四八년도 이름좋은 량곡매입법에 의하여 활당된 량은 지난해의 약二배 一백四十만석에 달한다 그런데 한심한것은 일제시대의 가장 공출이 심하던 년도의 전라남도에 최고로 활당된 량은 一백二十八만석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남조선 반동괴뢰정부가 조선인민을 기아에서 신음케하며 조선농촌과 농민을 빈궁과 파산에 몰아넣고있다。

셋째로 서울시민의 생활형편을 가지고 보자。

지금 서울시만하여도 집없는 호수가 五만여호에 달하며 도세한방에 남조선신문이 보도한바와같이 三十여만원을 주고도「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곤난하다」고 한다 그리고 장작 한평에 一만二천三백원을하며 물한지게에 六十五원내지 一백원씩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반동「서울신문」이 보도한바와같이「서울시민은 물안먹는 토끼로변한다」고한것이 우연한사실이아니다。

최근서울시내에서 동사한 사람의 수효는 매국노 리승만의 말에의하여도 벌써七十여명에달한다고한다。

그러나 매국노 리승만이는 동포들이 얼어죽는것은 마치당연한 일로인정하면서 변명하기를「미국 시카고에서도 三十여명이 얼어 죽었으니 겨울에 어데든지 얼어죽는 사람이없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최근 남조선 신문의보도에 의하면 서울장안거리에서 죽은사람의 시체를 개들이三、四일씩 뜯어먹고 끌고다니어도 모르는척하는것이 오늘 남조선괴뢰정부의 시정방책이다

넷째로 남조선 문화풍습방면은 어떠한가?

최근남조선 신문들의 보도에의하면 서울시내의 각종 녀급 기생들을 검진한결과에 七五%가 보균자라고한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 반동신문들은 마치 기쁜소식을 전하는듯이「이제좋은세상을 만난것은 가정부인밖에없다」고 하였다

그외에도 서울시내 三각지에는 밀매음소가 시설되였으며 각려관 호텔등에는 비밀매음소가 시설되였다고한다

이것이 미군정 통치의 三년간에 동방례의지국이던 우리조국의 남반부를 음탕하게 말들어놓은결과이다。

남조선 문화중심지서울시의 문화형편은 어떠한가?

여기에대한 실례로는 남조선각종 출판물과 신문들에 매일 발표되는 연극광고를 가지고본다면 충분하다

그연극광고들은 어떤것들인가?

「시들은 청춘」「화류비극」「울지마라 두남녀」「사랑만리 고향만리」「돈이죄다 청춘이죄냐」「서글픈인생」「돈이승리냐 사랑이승리냐 三백만원의 부채에 결혼한 二十세 처녀의 정조문답」「청춘의 설음」「안해여 울지마라」등이다 이러한 모든사태들은 미군통치三년간의 남조선문화 풍습생활들이 어떻게전락되어가고있다는 결론으로된다

남조선정치 경제문화풍습생활에서 한가지 문제도 해결하지못한 소위 남조선국회는 一백二十八차나소집되어 무엇을 해결하였는가?

그들이해결한문제는 국회에서 자리다툼문제이며 장관들과 의원들이라고 마남자동차분배 문제이며 국회의원들의 봉급에대한문제이며「국사도 먹고야할판이니」(국회의원연설) 국회의원의 후생사업조체에대한문제들이였다。

이와같이 남조선단독괴뢰정부의 수립이후 미국의 소위「경제적원조」를 받는다는 남조선의물가는 어떻게 되였는가?

북조선시장에서 백미 대두 一두에 四백원씩할때에 남조선에서는 二천四백원 계란一개에 북조선에서는 五원 남조선에서는 二十一원 약주한병에 북조선에서는 八十원 남조선에서는 二백七十원 세탁비누 북조선에서는 四十八원 남조선에서는 二백원 배추한톳에 북조선에서는 十원 남조선에서는 一백원 장작一평에 북조선에서는 一천二백원 남조선에서는 一만二천三백원씩한다。

이것이 남조선 미군통치의 三년간『경제원조』정책의결과이며 반동매국괴뢰정부의 매국적정책과시정방침의결과이다。 만일 一백二十八차나 회의를한 남조선매국국회가 해결한 문제라면 그것은 조국과 인민을 팔아먹는 매국적 각종협약인것이다。

첫째로 一九四八년 八월 二十四일에 리승만과 미주둔군 사령관 하지간에 비밀히 체결된 한미군사협정을 가지고보자

이협정은 비밀리에서 체결된것이므로 그매국적 가혹한 정체를 일일이는 다알수없으나 공보처의보도에 의하여도 그 전고미문의 매국적정체를 알수가있다。

매국적 흉한 리승만이는 十월 一일 기자단과의 회견석상에서

『군사협정은 어느나라에있어서나 비밀이므로 국회에 제출할성질이아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소위 국회에 제출할 성질이아니라는 이 비밀적 군사협정의 내용은 공보처의 보도에의하여도 가히알수있다。

그보도에의하면『이협정은 잠정적인것으로 대한민국과、미주둔군의 안전보장을위하여 한국전국방군비(경찰통위부 해안경비대)의 통할권과 통수권을 가급적속히 점진적으로 이양할것을 규정한것이다 협정기간중에는 미군의통위부와 해안경비대의 훈련과 장비에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원조를 계속할것이다 또한 一九四七년 十一월 十四일부 유·엔총회 제二차결의 제四절에 표현된것과같이 대한민국에서 철퇴를 완수하기까지 미군주둔중에 소요되는 지역과 기구의사용을 규정하였다 이협정은 미군이 철퇴하기까지 유효하다』

이협정에 의하면 해안경비대 륙군의 통할권은 미군이 가질것이며 남조선의 모든지역과기구는 미군이 요구하기만하면 미군에게 제공하기로되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인천항이나 목포항이나 부산항이

요구된다면 이협정에의하여 그것을 반드시 미군에 넘겨주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이 이협정은 우리조국을 팔아먹은 을사조약보다 더악독한 매국적조약이다。

둘째로 一九四八년 九월 十一일에 체결된 재정급재산이양에관한 협정을 가지고보자

이협정에의하여 소위 한국정부는『유체무체(有体無体)를 막론하고 미국의 관심있는 재산은 미국에속함』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관심있는 유체무체의재산이 무엇으로끝나며 그들이 관심하는 범위가 어디에끝나겠는가 하는것을 누구가 알수있겠는가?!

그들이 관심하는 유체재산인 반도호텔은 벌써 미국의 영원한 소유로되었다 이협정에의하여 만일미국에 상동중석광산과 소림광산이 관심된다면 그것도 할수없이 미국에넘겨주게되었다 뿐만아니라 이협정에의하여 우리조국의전체 부원은 미국에관심된다면 무엇이든지 다넘겨주게되였다 이얼마나 한심한 협정인가?!

이협정에 의하여 二천五백만딸라의 차관중 첫해 변리 一백七十만딸라의 대가로 미국이 관심하는 유체무체의 재산으로 벌써반도호텔과 서울의 일부지대를 대가로 지불하게되였다 다음해의 변리는 어떤유체무체의 재산으로 보상하겠는가?!

이와같이 이협정은 우리조국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영원히 팔아먹는협정이다。

셋째로 一九四八년 十二월 十일에 체결된 소위한미경제원조협정을 가지고보자。

이협정에의하여『한국에대한 외국인의 사적투자 사적외국무역상이 한국에 입국하여 영업에종사함을 용이케하며』미국은 미국원조대표급 그직원을 한국에두게되는바 그들은 한국자체의 자원급 북미합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제공되는 재료를 운영관리하며 대한민국정부는 그들에게 특권을 주게되며 그들은 대한민국내 각처를 마음대로다니며 대한민국의경제를 검열통제할수있게되었다 이외에도 여 협정에의하여 북미합중국정부는『원조물자』가격에대하여 미딸라로 대한민국정부에통첩하며 대한민국정부는 통첩을 받은후 미딸라를 조선은행권으로환산하여 조선은행에 예금하여 미국정부의 요청에의하여 그를지출한다。

이와같이 이협정에의하여 미국기업가들과 상인들은 남조선에 마음대로투자하여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얽이놓을수있으며 남조선의전체산업을 자기수중에 장악할수있으며 미국「원조대표」는 자기의 외교상특권을 리용하여 남조선내정에 마음대로 간섭할수있으며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지배할수있게되였다.

그외에도 소위「원조」물자의 대가 미딸라를 남조선은행권과 환산하여 조선은행에 예금하였다가 미국정부의 요청에의하여 지불하게된조건은 조선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차관으로 얽어매는정책이며 조선의민족경제를 파탄시키는정책으로된다.

이와같이 이 협정은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가혹한 매국적 예속정책이다.

남조선 단독괴뢰정부의 이러한 매국적행위와 남조선에 조성된 처참한 정치 경제적 사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단독괴뢰정부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장엄한 구국투쟁과 반항을 환기시키지않을수없었다.

五월十일 남조선망국적단독선거이후에 남조선 일대에서 일층 치렬히 일어난 장엄한 인민항쟁과 특히 금년 十월二十일에 소위 국방군 十四련대내의 반란사건을 비롯하여 려수 순천 구례 대구등 남조선 일대에 벌어진 소위 국군폭동사건과 남조선인민항쟁사건이 그에대한 가장 명백한 실례로된다.

남조선인민들이 거족적 구국항쟁에 어떻게 결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하는것은 소위 괴뢰정부 내무장관 매국노 윤치영의 十一월 二十五일의「시국에 대처할 국민의 각오를 요한다」란 특별방송에서 명백히 나타났다.

윤치영은 자기의 속타는 방송에 지적하기를「왜적의 학도들은 락제한 학우에 대하여 사형(私刑)까지한다는데 우리의 학도는 공부에는 열중하지않고 은사를 해하며 죽창을 들어 경찰관이나 국군의 옆구리를 찌르는 기현상과 대조하여 볼때 진실로 통탄의 눈물을 금할수가없다」라고 하였다.

매국노 윤치영은 왜 남조선 학도들이 죽창을 들고 경찰관이나 국군의 옆구리를 찌르는것을 몰랐던것인가?

학도들에게는 공부보다도 조국과 인민이 더 귀중하며 자기의 생명보다도 조국의 운명이 더 귀중한까닭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공부도 버리고 조국을 구원하는 구국투쟁에 총궐기한것이다.

八월二十五일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선거실시이후 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에서 남조선 반동괴뢰정부는 다음과같은 엄중한 사변들과 난관들에 봉착하게되였다.

그것은 첫째로 전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고 공화국중앙정부가 수립된이후에 공화국중앙정부의 정강에 의하여 공화국의 기초가 점점더 튼튼하여지며 공화국방위의 간성인 공화국인민군이 점점더 강력하여지며 인민군에대한 신망과 위신이 전조선인민속에 점점더 널리 제고된 사실이며

둘째로 공화국을 지지하며 공화국의 강력한 정치 경제적 자반의 공고발전에 고무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점점더 치렬하여가며 망국적 단독괴뢰정부는 전조선인민과 점점더 고립하게된 사실이며

셋째로 북조선지역으로부터 쏘련군대의 철거와 관련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정책과 남조선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매국적 정체가 일층더 폭로되게된 사실이며 미군의 남조선 장기주둔을 변명할구실이 없게된 사실이다.

넷째로 남조선 단독괴뢰정부의 매국적 각종협정들이 어떻게도 참혹하였든지 저어 일부 소위 국회 의원들까지도 리승만의 매국적 죄악을 반대하여 출현하고있으며 국회내부에서 정권쟁탈을위한 분쟁이 일층 심하여가며 국회 의원들과 당파들간에 호상협박장으로 공겁케하는 사태들이 연출된사실이다.

그실례로 리승만을 반대하는 한국회의원은 리승만과에게로부터 협박장을 받았는데 그협박장에는 지적하기를「정부대신자리가욕심나지? 한자리하기전에 장덕수를 만나게할것이니 안심하라」등이며 다른국회의원은「반정부 반국가적행동을 즉시정지하라 불연이면 너의생명은 순식간에 없어질것이다」라는등이다 괴뢰정부장관들은 반대파에게서 협박장을받으며 반대파는 한민당이나 독촉계렬로부터 협박장을받고있다.

이러한 사태에 공표된 망국노들은 소위내무장관 윤치영에게서 보고를 들었는데 그는 자기의보고에 대답

하기를 「협박단체에 대하여서는 조사중이다 국회의원들뿐만아니라 그가족의 신변도 대단히 위험하니 각위원들은 가장좋은 방법으로 오후六시면 문을닫고 밖으로나오지말며 손님들을 접대하지말며 피스톨이나 경관 一명씩을 경호로 갖추어 두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남조선 반동괴뢰정부와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은 인민과 절연되었으며 대내 대외로 각종 난관에 봉착하게되었다。

그들은 남조선에 조성된 정치적 사태를 수습하기위하여 무엇을 꾸미고있는가?

그들은 남조선에 조성된 정치적 사태를 수습하기위하여 우선 민주진영에대한 학살정책을 감행하며 소위 국방군내에서 숙청사업을 전개하며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외 재판인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무고한 인민대중을 대중적으로 탄압 검거 학살하기시작하였다。

그들은 인심을 수습하기위하여 각종 허위적 선전사업을 전개하며 애국선렬들을 조상하는 합동병제를 지내며 소위 국군 합동위령제를 거행하며 북조선 일대에 대폭동이 일어나서 총살된자가 二천여명에달하며 폭동에 참여한 군중수효가 二十五만명에 달한다는 허위선전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민심을 수습하며 청년들 속에서 반동괴뢰정부를 지지하는 운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소위 「한국민족의 용단」「학병방공단(防共團)」「청년의용단」「민보단」「호국군」「학생 호국대」등 단체들을 조직하여 민심을 수습하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은 일제 정책의 재판으로 반동괴뢰정부에대한 인민들의증오를 일층 제고시키였다。

그들은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를 수습하기위하여 조선에 대한 제三차 유•엔총회의 비법적 결정을시국수습에 리용하려고 대대적 선전을 전개하고있다。

그들은 미거수기에의하여 채택된 유•엔총회의 비법적결정으로 인민과고립된 자기들의 가련한 처지를 회복시키며 남조선괴뢰정부의위신을 제고시키기위하여 리용하며고 각종술책을 다하고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여달라는 「미군 철퇴연기 비상시국 총궐기대회」를 소집하기까

지하였다 남조선 친일과 민족반역자들로 결속된 매국적 반동괴뢰정부가 아무리 발악한다하여도 조선인민은 공화국의 기치를 일층높이들고 국토의 완정과 통일을위한 구국투쟁을 일층맹렬히 전개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제三차 유•엔총회의 비법적결정에의하여 남조선에오게되는 소위 유•엔 조선위원단의 목적이 무엇에있는가 하는것을 잘알고있다。

만일 제二차 유•엔총회의 거수기결정에의하여 남조선에왔던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로 남조선을 우리조국에서 분렬하는정책을 실시하였다면 제三차 유•엔총회에서 미거수기에의하여 또다시 파견되는 유•엔조선위원단은 남조선에 「미군의 장기주둔」을 합법화시키는 도구로밖에는 되지않을것이라는것을 잘알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조선인민은 제一차유•엔위원단을 배격한것처럼 금번에 오는 유•엔위원단도 배격할것이며 그들의래조와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친일과민족반역자들의 매국정책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거족적투쟁은 일층더 맹렬히 전개될것이다。

一九四七년十一월 제二차 유•엔총회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가급적 속히 철거」라는 구실하에서 남조선에 一년동안 남아있었다면 제三차유•엔총회에서는 「가능한 첫 기회」라는 새술어로 남조선 장기주둔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조국을 사랑하는 전체 애국적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흉계에든지 기만되지않을것이며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의 어떠한 흉책이든지 용서하지않고 분쇄하고야말것이다。

四、결 론

우리조국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하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정당한 투쟁은 오늘까지 승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승리하게될것이다 그것은 이정당한투쟁에서 조선인민에게는 승리할 모든조건들과 토대들이 구비되어있다。

우리가 이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될 조건들과 토대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오늘의 조선인민들은 작일의 조선인민들이 아니다 오늘의 조선인민들은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당한투쟁에서 자기들을 능히 지도할수있는 강력한 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를 가진인민들이며 이공화국중앙정부는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외하여 조선인민의 결정한 대표들과 애국자들로 구성되었음으로 조선인민의 리익과 숙망을 실현시키는 우리조국의 유일한 중앙정권으로서 남북조선인민의 총지지를 받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의하여 우리민족이 자기손으로 수립한 공화국 중앙정부이외에는 어떠한 정권도 조선인민은 인정하지 않을것이다。

조선인민의 지지와 인정을 받지못하는 매국적반동괴뢰정부는 조선에대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충직한 도구이외에는 다른것이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체조선인민은 공화국정부의주위에 굳게뭉치어 이반동적매국괴뢰정부를 타도분쇄하는 거족적투쟁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여야할것이다。

둘째로 오늘 우리조선인민은 자기의손에 주권을잡고 자기의 정권을 운영하며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고 공화국의 튼튼한 정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한 북조선의 장엄한 민주기지와 경제기지를가진 인민들이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기지와 이러한 건설을 가진 인민들은 어떠한 힘으로든지 제어하지못할것이다。

전체북조선인민들은 공화국중앙정부와 그의 수장 김일성장군이 발표한 정강에의하여 공화국의 정치경제적기초를 일층 확고발전시키는 사업들을 전개하여야할것이다。

셋째로 오늘 우리 조선인민은 적수공권의 작일의 조선인민이 아니다 오늘 우리 조선인민은 우리 조국의 강토와 우리민족의 리익을 보위할수있는 조선인민이 낳은 강력한 인민군을 가진민족이다。

우리의 인민군은 인민과 골육으로 련결되었으며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신명하고 충직하게 복무할수

있는 강력한 인민군대이다。

전체조선인민은 우리민족의 해방투쟁과 해방된 우리조국이 낳은 자기의 첫인민군을 사랑하며 그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그의장성에 전민족적 관심과 고려를 돌리어야할것이다。

넷째로 우리조국의 남반부에서는 망국적 단독괴뢰정부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장엄한 영웅적 투쟁이 계속치렬히 전개되고있다。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들고 국토의 완정을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은 최후의승리를 다할때까지 영웅적 자기의 투쟁을일층맹렬히 계속할것이며 북조선인민들은 그들을 성원하기위하여 공화국의 튼튼한 터전을 구축하는 장엄한 민주건설과、경제건설을 일층 완강히 전개할것이다。

다섯째로 오늘 우리조선인민은 분산되고 분렬된 작일의 조선인민이아니다 오늘의 조선인민은 민주주의통일전선에 굳게뭉친조선인민들이며 남북조선로동당과같은 단련되고 조직된 강력한 정당을 가진 인민들이다。

그렇기때문에 단련되고 조직된강력한 전투적정당의 지도를받는 인민들은 언제든지 승리하고야말것이다。

우리는 공화국의 기치밑에 굳게뭉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정책을 일층강화하여야할것이다。

여섯째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이정당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은 고립되지않았다 조선인민은 이정당한 투쟁에서 국제민주세력의 선두에선 위대한쏘련과 제민주국가들의 성원과 지지를받고있다。

우리는 조쏘친선을 일층강화하며 자유애호국가인민들과의 친선을 일층강화하여야하겠다。

조쏘친선의 강화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을위한 투쟁에서 우리의승리의 담보로된다。

이와같이 우리는 국토의완정과 독립국가건설을위한 투쟁에서 필승의 조건과 신념들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와 그의수상 김일성장군의 주위에 굳게뭉치어 공화국정부의 정강을 실천하며 국토의 완정을위한 투쟁을 일층맹렬히 전개하여야할것이다。

조선문제에 대한 쏘련의 정당한 주장과 유·엔의 비법적결정

장 하 일

一、제二차세계대전에서의 쏘련의 결정적역할과 조선의해방

전세계피압박인민들과 약소민족의 구성인 쓰딸린 대원수가 령도하는 쏘베트군대는 서방에서 야수—팟쇼군대를 소탕하고 동방에서 강도—일제를 격파한후 그들의 철제하에서 신음하고있던 전세계 수많은 인민들과 약소민족에게 해방과 평화와 희망의 서광을 가져다 주었다。

쏘련은 인류력사상에서 일찌기 볼수없었던 가장 참담하고 류혈적인 제二차 세계전쟁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고귀한 인명의 희생과 막대한 재산의 소모를 무릅쓰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함에있어서 결정적역활을 놀았다。

위대한 쏘련인민은 전세계의 항구적평화와 전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확보하기위하여 그의 어떠한 희생이라도 돌보지 않았으며 이 전쟁에서 사회주의 조국을 옹호하기 위하여 온갖 중하를 량어깨에 걸머지고 그의 고상한 임무를 수행함에있어 가장 용감하였다。

그러나 영、불、미 뿔럭은 바로 제二차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도 팟쇼독일을 반대하는 투쟁을 한것이 아니라 쏘련에대한 고립정책을 써왔었으며 팟쇼국가들의 포행을 묵과해버림으로써 도리어 그들의 기세를 북돋아 주었고 나아가서는 독일침략의 길을 충동하여 놓았다。

그러나 영、불、미 지배층들이 기도하였던것과는

관이하게 제二차대전은 마침내 발발하였으며 미、영、불은 팟쇼독일과 대항하여 싸우지않으면 안되었고 쏘련과의 동맹관계를 맺지않고서는 팟쇼독일을 이겨낼수가 도저히 없었던것이었다 그때 벌써 불란서는 독일군의 철제하에 유린되었고 영국정부도 역시 자기본국을 버리고 자기의 식민지 카나다로 대서양을 건너서 도망치지않으면 안될 비운에 빠지었다 그러던중 一九四一년六월에 쏘련의 참전으로 인하여 영국의 위기는 벗어났으나 이 전쟁에서 영국은 아무런 결정적역활도 못놀았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위압을 항상 받고있었던것이다。

一九四五년一월六일에 영국수상 처—칠은 쓰딸린에게 다음과같은 편지를 보내였다。

『서부에서는 대단히 곤난한 쟁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 사령부에서는 어느때든지 커다란 결정이 요구되고 있는것입니다 창발력을 일시상실한후에 대단히 광범한 전선에 걸친 방지를 하지않으면안되는 립장에 서고 있다는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인가하는것은 귀하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잘 아실것입니다…… 로씨야군대가 비슬리전선 또는 그외의 지대에대하여 一월중으로 또는 귀하가 좋다고 생각하는 어느때에든지 대공격을 질시할것을 우리는 기대할수없는가 하는것을 우리에게 통지하여 주신다면 본인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쏘련사람들은 동맹국이 곤경에 빠지는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하여 구출하여야하며 자기의 동맹국은 一시적 동맹자로서가 아니라 그의 성공과 그의 강화를 기뻐하는 친우로 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이다 과연 쏘베트군대최고사령부는 서부동맹군에대한 원조를 촉진시키기위하여 공격일자를 一월二十일에서 一월十二일로 당기어 결정하였다 一월十二일 발찌크해로부터 카르파트에 이르는 광범한 전선에서 쏘베트군대의 대공격은 시작되였다 대량의 포병과 공병을가진 一五○개의 쏘베트사단은 동원되어 독군전선을 파괴하였으며 독일군대를 수백키로 퇴각시키었던것이다 이리하여 독일은 서부전선의 병력을 동부전선으로 부득불 이동시키게 되었으며 따라서 미 영 불군대의 위기는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쏘련이 팟쇼독일의 배신적침공으로 말미암아 전쟁첫시기에 매우 위급한 상태에 빠져있을

때 미, 영뿔럭은 제二전선개시를 고의적으로 태공하였던것을 여기서 상기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대표자들은 강력한 동맹국은 위협하며 동맹국이 강화하는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하지않다고 생각한다 그러기때문에 그들은 강한동맹국보다는 약한동맹국을 가지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동맹국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그것의 약화를 피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데서 출발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영국과 미국대표들은 쏘미영간에 반히틀러련결이 조직된 이후의 전쟁사기에있어서도 영, 미량국대표자들은 비렬하게도 독일과 비밀리에 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획책하였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一九四一년가을 그리고 一九四二년과 一九四三년 리스본과 서서에서 영국과 독일대표자들간에 또 그후 미국과 독일대표자들간에 대독강화조약체결에관하여 회담이 진행된 사실아다

이에 관련하여 독일이 쏘련에대하여 배신적공격을 시작한 그이튿날 현재의 미국대통령 투루맨이 성명한것을 회상해보면 그들의 의도는 명백해질것이다

「독일이 승리할것같으면 우리는 쏘련을 원조하여야할것이며 쏘련이 승리할것같으면 우리는 독일을 원조하여야할것이다 그렇게하여 그네들을 될수있는때로 많이 살해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뉴욕타임쓰 一九四一년六월二五일)

쏘련은 반팟쇼전쟁에있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의 그와같은 희망과는 정반대로 히틀러독일을 격멸함에있어서 결정적역활을 놀았을 뿐만아니라 더욱 위력있는 나라로 장성되었다。

제二차대전에있어서 만일에 쏘련의힘이 아니었다면 야수같은 팟쇼도배들의 철제하에서 신음하고있던 수많은 인민들을 누가 구원할수있었을까? 심지어 오늘날에와서 영, 불자체의 운명도 예측하기가 어려웠을것이다。

동시에 팟쇼독일이 오늘날까지 구라파에 잔존해있었더라면 동방에서 미영의 힘으로써만 강도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할수없을것이며 설사 독일은 넘어졌다하더라도 일본이 강력을 자랑하던 관동군을 보존하면서 마, 영과 대륙에서 결전할것을 타산하고있는한 쏘련의 참전없이 일본제국주의를 축한 기일내에 격멸할수가 있었을까? 도저히 없었을것은 분명하다。

쏘련은 동맹국과의 협약에 충실하며 인류를 전쟁의 참화속에서 하루속히 구원하고 새로운 평화를 가져오기위하여 아세아인민들을 강도일제의 철쇄에서 빨리 해방시켜 그 고통을 면하게하기위하여 一九四五년 八월九일 대일선전포고를하였다。

쏘베트군대의 파죽지세의 공격은 강도일본제국주의가 호언장담하던 관동군을 단기간에 격파하고 전쟁을 선포한지 一주일 八월十五일에 일본제국주의로 하여금 무조건 항복을 하게하였다。

만약 동맹국의 약속에 충실하며 인민들의 평화와 독립을 회복시키기위하여 싸우는 쏘련군대가 대일전쟁에 참여하여 결정적역활을 담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조선민족은 야수적 침략전쟁의 참화속에서 극도의 비운에 빠진채로 오늘에 이르렀을것이다。

악독한 일제를 격멸하기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리며 북조선에 진주한 위대한 쏘련군은 조선인민에게 다음과같은 첫 인사를 보내었다。

「조선인민들이여……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조선력사의 첫 페지가 될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로력과 정력의 결과이다, 이와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로력하여야만 달성할수있다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해방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려졌다 쏘련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로력에 착수할만한 모든 조건들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자체가 반드시 자기의행복을 창조하는자로 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면 일제가 무조건항복한후 一개월이나 지나서 일제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않고 남조선에 진주한 미군이 조선인민에게 보낸 첫인사는 어떠하였던가

「아로부터 조선북위三十八도이남의 주민에대하여 군정을 설치함 주민은 본관과 본관의권한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적극복종할사 점령군에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자는 용서없이 엄벌에처함 군정기간중 영어를 가지고 모든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함……」

이것이 남조선에 주둔한 미군이 조선인민에게준 「관대」한 첫인사이다。

쏘련군은 북조선에진주할 첫날부터 조선인민들이

창설한 인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방조하였으며 일제통치하의 악독한결과를 청산하며 제반민주개혁과 민주건설투쟁에있어서 백방으로 이를 원조하여 조선인민들에게 모든 유리한조건들을 지어주었다。

남조선에 진주한 미점령군사령부는 남조선이 적국의령토가 아님에도불구하고 조선인민들이 창조한 인민위원회를 해산하였으며 군정을실시하고 일본법률과 경찰규칙을 그대로 보존하더 이전의 일본식민지관리제도를 복구시킬뿐만아니라 모든 행정 및 경찰기관의 각부문에는 다년간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복무하던 변절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을 그대로 등용하였으며 민주주의애국자들을 탄압하였다。

그결과 八·一五해방후三년유여에 三八선을경계로 남북조선이 서로각각판이한 정체로 갈라진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며 이는 쏘미량군사령관이 조선인민에게 보낸 첫인사그대로 반영되고있다는것을 누구보다도 조선인민이 똑똑히 잘알고있다。

一、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은 조선을 자유와 민주와 독립국가로 보장할수있는 유일한 국제적공약이다。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에있어서 미국계획에 의하면「조선은 쏘、미、영、중 四개국대표들로 구성된 행정기관의 명의로 활동하는 어떤최고총감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되어야한다」는것이었다 조선에대한 이러한 관리는 첫五개년을 실시하기로 예견되었으며 필요에 의하여서는 또 五년동안을 연장할수있도록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기한이 지난후에야 비로소 후견시기가 또 시작된다고 하였으며 조선정부수립에 관하여서는 미국제안에는 전혀 예견되지않았다。

조선에대한 미국의 이제안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민주자주독립국가로서 발전시킬데대한 아무러한 관심도 없다는것을 증명한다 이제안은 조선의 민주발전과 자주독립의 길을 체연말살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의 팽창주의적목적을 달성해보려는 흉악한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침략자들의 음흉망칙한 제안을 승인할 쏘련이 결코 아니다 주지하는바 레닌—쓰딸린적정책에 충실한 쏘련은 약소민족의 해방과 민족자주독립의 옹호자로서 또는 원조자로서 이같은 팽창적목적을 가진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정책을 폭로분쇄하는 성책이다。

그러므로 모쓰크바三상회의에서 제의한 조선에대한 미국제안은 쏘련정부에의하여 일축되고 그회의에서 쏘련정부의 제안을 채택케되었다 이것이 바로 조선문제에대한 모쓰크바三상회의결정이며 그후 중국 역시 이 결정에 동의하였다 이 결정의 중요한 목적은「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며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위에서 발전하게하며 장기간에긍한 일본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신속히 청산할 제조건을 창조할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림시정부를 반드시 수립함에있으며 조선인민의 정치 경제 사회진보와 민주주의적발전과 조선이 자주독립국가로되게함에있어 최고 五개년간후견제를 실시하여 방조하며 협력하는 대책들을 작성」하는데에 있는것이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여론앞에서 자기들의 팽창적야망을 은폐할목적으로 외관으로는 이정당한제안에 동의치않을수없어서 조인하고도 내용으로는 이원칙에 위반되는 목적을 추궁하고있었다는것이 오늘날에는 숨길수없는 사실로서 나타났다 이사실들은 남조선에 미군정이 실시되면서부터 그들이 걸어온 발걸음마다의 자취인것이다。

미군정의 이와같은 흉책은 모쓰크바三상회의결정실행에대한 대책물을 수립하기위하여 개최되었던 쏘미공동위원회사업 진행과정에서 로골화하기시작하였다 이는 결국에있어서 미제국주의자들은「반동적미제국주의주구들아 우세를 가지는 정부를 수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다른 통일정부가 있을 수없다는 그릇된 주장을 고집」(김일성) 함으로써 이사업을 파탄시키려는데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전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은 모쓰크바三상회의결정을 절대지지하며 쏘미공위사업이 진척되기를 갈망하여 열성적인성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조선인민의 대렬에서 전혀 탈리되었으며 고립된 한줌도못되는 친일과 민족반역자들과 결탁하여 쏘미공위사업을 두번이나 파탄시키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반탁」과「즉시독립」이란 허위적간판을 내걸고 최고五개년간의 후견제를 신탁관리제라고 날조함으로써 조선인민을 기만하며 전세계여론앞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음모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대하여 쏘미공위쏘련대표단수석 쓰띠꼬브대장은 다음과같이 성명하였다。

「조선지역내에 쏘미량군대가 주둔하고 있는한 후견이없어도 관계치 않다는것은 조선인민을 기만

하는것에 불과하다」

이와같이 미국정부는 여러가지구실로써 모스크바 三상회의 결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협약하기를 원치않는까닭에 쏘련정부는 속히 조선을 민주주의 독립국가로 발전시킬목적밑에 一九四七년 九월二十六일 쏘미공위쏘련대표단을 경유하여 一九四八년초에 조선에서 쏘미량군이 동시철거 함으로써 조선인자체에게 자기의 민족정부를 조직할 가능성을 줄것을 제의하였던것이다 이 쏘베트제안은 련합국간의 리해관계에있어서나 또는 조선인민자체에있어서도 조선문제를 속히 조절할수있게 하는 기본으로 될것은 물론이다。

쏘련정부의 공명정대하고 무사무욕(無私無慾)한 이제안은 청천의 벽력과같이 미제국주의자들과 매국노들로하여금 황황망조케하였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물러나가는날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대한 식민지적정책을 단념치않을수가없으며 미군의 비호하에있는 조선인민의 원쑤—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미군이물러가는 그날에인민들로부터의 심판이 반드시 올것을 누구보다도 자기스스로 더잘알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민의원쑤—매국노들은「반탁」로「즉시독립」의간판을 조급하게 내리우고 미군장기주둔을 요청하는 매국적정체를 폭로치 않을수없게되었다。

조국의독립과 인민의리익을 팔아먹는것을 그의본직으로하는 매국노들은 미군장기주둔을 요청함으로써 전조선인민들의 증오의 화살앞에 직면하였으며 三척동자라도 그들의 정체를 통히 판단해내리만큼 전조선인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였다。

이리하여 오직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만으로 야합된 리승만 김성수 리범석도당은 전조선인민이 천추만대를 두고 저주할 비렬한매국노로서 락인을 받았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조국을 미국의식민지로 원료공급지로 상품시장으로 또는 아세아동방침략기지로 본사의 자기의계획을 수행함에있어서 조금도 주저치 않을뿐만아니라 도리어 매국노들을 일층 독려하여 우리조국의 민족적분렬과 국토량단을 고정화하기위한 온갖 수단들을 꾀하고있다「남조선을 미국의 칼라포니아주와같이 간주」(맥아더)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정책의 전제조건으로 되는 미군장기주둔의구실을 조작해내기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있다 이리하여 미국정부는 조선문제를 一九四七년十一월에 제二차유·엔총회에 제기하였다。

조선문제는 반드시 현존하고있는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해당한국가들이 해결하여야할 전후조정(戰後調整)에관한 전체문제의 한부분인만큼 유·엔관할권내에 들지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국제공약을 위반하며 유·엔헌장을 유린하고 비법적으로 조선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 미국은 딸라에순종하는「거수기」를 발동시키어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대한 야망을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여 실현해보려는것이다。

三、미국은 남조선 단독선거실시를 목적하고 유·엔제二차총회에서 소위「유·엔조선림시위원단」을 날조하였다

미국정부는 유·엔내의 다수「거수기」를 리용하여 조선에서의 미국의침략정책을 은폐할 도구를 조작할것을 획책하였다。

쏘련대표는 조선문제를 유·엔에상정하는것은 유·엔헌장의 위반이며 조선의자주독립을 방해하는것이라하여 미국제안을 반대하면서 량군동시철거만이 조선인민들로써 자기의 민족정부를수립할 가능성을 줄수있다고 성명하였다。

쏘련대표의 이정당한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문제는 예기하였던바와같이 다수「거수기」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제二차유·엔에 상정되었다。

조선문제가 미국딸라에 지배되는 다수파의 거수로 유·엔에상정된이상 쏘련대표 그로므꼬는 자기의 견해를 성명할 필요를 느낀다고하면서「이문제는 선발된 조선인민대표들의 참가없이는 공정하게 해결될수없다」고 하였다。

미국이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제의한 목적은 조선인민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유·엔의「거수기」를 리용하여 자기계획을 달성할것을 예견하고있기때문에 선발된 조선인민의 대표를 유·엔에 참가시킴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겁내하는것이다。

그러나 미국대표는 쏘련대표의 이정당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대해나설 아무러한 근거도 갖지못하였기때문에 다음과같은 구실을 지여내었다。

첫째로 철병안에대하여는 외국군이 철거하는날이면 조선에 혼란과 내란이 일어날 념려가있으니 반대한다는것이며

둘째로 조선인 대표를 유·엔총회에 참가시키자는 문제에대하여는 시일이 없으므로 반대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얼마나 뻔뻔스럽고 교활한 수작이냐! 미국대표의 이가증한 기만적발언은 오늘날에와서는 완전히 숨길수없는 사실로서 폭로되었다。

이사기한에게 묻노니— 오늘날 북조선에는 민주질서가 확립되었으며 자기고국으로 떠나간 위대한 쏘련군에대한 조선인민들의 열렬한 환종회합이 북조선방방곡곡에서 벌어지었던사실들을 그대들은 무엇으로 설명하려는가 또 쏘련군이 이미 철퇴를 완료한 북조선에 무슨 혼란이있으며 무슨 무질서가 있더냐? 이같은 엄연한 사실들은 어떠한 음모술책으로나 또는『유·엔조선위원단』같은 보재기로써는 도저히 감출수가 없을것이다。

이와반면에 미군이장기주둔을 꾀하고있는 남조선의 무질서와 혼란한사회현상 또 미군장기주둔과 괴뢰정부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치렬한 구국투쟁을 그대들은 무엇으로 답변하려는가

그대들은 친일파민족반역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왜그리즐겨하며 진정한 조선인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왜그리 겁내하는가

미국대표는 제二차유·엔총회에서 기만적언사를 구사하면서 조선내정에대한 미국간섭을 은폐하기에 편리한 소위『유·엔조선림시위원단』을 조작할데대하여 전력량을 기울였다 이회의에서 쏘련 우크라이나 백로씨야 유—고슬라비야 파란 및 체코슬로바끼야대표들이 조선실정에대한 풍부한 실제적 자료를 들고 미국제안을 반대하였다 미국대표 덜레스는 마침내 노기충천하여『귀중한 시간을 상실한다』라고 방언하면서『자기사명을 리행할때까지는 조선에 주둔하겠다』고 자기꼬리를 마침내 드려내놓고 말았다 미국상전에대한 일등가는 아첨쟁이며 자기운명이 경각에 박두한 장개석정부의 대표는『쏘베트정부의제안은 너무도 단순하다』고 전제하고 미국안에 동의한다고하였다 장개석정부대표는 조선문제가 일부러 복잡화됨을 희망하고 중국정세에있어서의 조선문제를 중국반동에게 유리하게 리용해보겠다는 망상을 폭로하였다 영국의식민지 호주대표

는『조선독립에대한문제는 반드시 일본에대한 평화조약문제의 일부로 간주하여야한다』고…

마치 조선을 대일전쟁배상의 대상물로 간주하려는 폭언까지하였다。

그러나 미국대외정책에있어 매우 편리한 다수『거수기』를 유·엔내에가진 미제국주의자들도 조선문제에대하여는 그들이 예기하였던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영국의식민지 애급의대표는 쏘련제안에 찬성하여 투표하면서 다음과같이 성명하였다。

『어떠한 나라에서든지 외국군대가 진주하고있는 것을 애급은 절대반대하는바이다 때문에 어느국가에 관계되는가에 불관하고 다른나라에 진주하고있던 외국군대를 철거하는데관한 제안이라면 어떤것이든지 애급대표는 찬동투표할것이다』애급대표는 외국군대가 주둔하고있는한 어떠한 나라에서든지 자주독립이 보장될수없다는것을 털어놓았으며 자기의 쓰라린오랜경험에서 종속국가인민들의 진정을 토로하였다。

조선에있어서의 량군동시철거에대한 쏘련대표의제안은 전조선인민의 의사를반영하였으며 조선인민의 리익과 완전히 합치되는 정당한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내"다수파"의거수발동으로 인하여 미국대표가 제출한『유·엔조선림시위원단』조직에대한 의안이 정치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순종하기를 자원하고나선『유·엔조선림시위원단』은『천사』의 가면을 쓰고 一九四八년초에 남조선에 들어온것이다 이위원단은 남조선에도착하는 첫날부터 전조선인민들의 맹렬한 반대운동에 봉착하였다。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집단인 김성수의 한국민주당과 리승만의 독촉(獨促)을 제외하고는 전조선인민은 좌익 중간 우익할것없이 쏘련이제의한 량군동시철거안을 절대지지하고『유·엔조선림시위원단』을 배격하는 운동에 총 망라되었다。

『유·엔조선위원단』은 전조선인민들의 민주력량에놀라 미국의 예정계획대로 전조선적『선거』를 감시한다는『미명』을 도저히 수행할수없다하여,비법적으로조직된 유·엔중간위원회에 호소하였다 그래서 중간위원회(쏘련대표와 신민주주의국가는 참가치않았음)는 미국대표의 강압밑에서 권고라는 구실로 남조선에서라도『선거』를 감시할 임무를 자담하라는 직접지시를『유·엔조선림시위원단』에게 주게되었다。

조선에관한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는것부터 비법적이었다는것은 전술한바와같거니와 중간위원회 그자체가 국제적협조를 파탄시키며 유·엔의 제기판들을 미독점자본에게 예속시키기위하여 강대제국의 일치가결원칙이 적용되는 안보리사회를 대리시킬목적으로 미 영 뿔력이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비법적으로 조직한것이며 유·엔총회에도 편입되지않는 남조선 단선문제같은 그러한 중요한 정치문제를 중간위원회에서 결정할 아무런 권리도 없는것이다 유·엔은 조선문제에대하여 또하나의 불법행위를 범하였다。

이 중간위원회에서 스웨덴대표 게흐레브는 정명하기를 「남조선에서만 선거를 실시함을 반대하는것은 단지 조선의 실지정세에대한 공식적재료가 없기때문에만 아니라 국제련합기구가 전후조정문제를 토의하는 연단으로되기위하여 창설된것이 아니기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노르웨대표 퀸·모예는 「유·엔중간위원회가 미국결정을 채택하게되는것은 유·엔총회가 중간위원회에 준 권한을 람용하는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밖에도 지적하여야할것은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의 대표중에서도 「남조선에서 단독정부수립을 지지하는 자는 오직 미국의 충복인 리승만과 조선인 친일 대지주 대기업가들로 결성된 한국민주당뿐이라」고 말하였으며 그대표는 「조선을 영구히 분렬하게될 남조선 단독선거로서 "민족정부"를 수립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좌익과 중간파뿐만아니라 심지어 많은 우익지도자들까지도반대하여 나섰다」는것을 고백하였다。

비법적으로조직된 유·엔중간위원회에서 주인노릇을하는 미국대표들은 허 여러국가들의 정당한 반대를 롱락해버리고 이결정을 채택하도록 유·엔중간위원회를 강압하였다。

유·엔조선위원단내의 카나다대표는 중간위원회의 [illegible]를 가르쳐 비합리적이며 비법적이라고하였고 호주대표는 극우익정당을 제외하고는 조선전체의 정당들이 그선거를 보이코트하리라고 성명하였다 그위원단의 단장인 인도대표는 성명하기를 그는 「중간위원회결정의 법적정당성에 관하여 의심한다」고하였으며 또 그는 언급하기를 「선거가 조선을 통일지킬수있겠는가를 나는 몹시 의심한다 우리가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보장할수있겠는가를 몹시 의

심하는바이다」라고하였다 유·엔중간위원회의 남조선단독선거 권고에 찬성투표한 위원은 비률빈 살바돌 남경정부 및 인도대표들이였는데 九명(우크라이나 대표는 참가치않았으나 이들 타산한다면)의 위원중에서 결국 四명의 찬성투표로써 남조선단독선거에대한 운명이 결정되였으며 인도대표가 자기의반대성명과는 판이하게찬성투표하였다는것은 그들의 협잡성을 여실히 폭로하는것이다。

이와같은 절차로 진행된 반인민적 반민주주의적 결정으로써 남경정부 비률빈 살바돌등 형식으로나 내용으로나 그지배층이 현저하게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국가들의 대표 四명의 찬성투표로써 수천만의 인구를가진 남조선에대한 단독선거의 운명을해결하며 우리조국의통일을 반대한다는것은 우리민족을 모욕하는것도 너무나 심한것이다。

그러면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의 비법적조직으로부터출발한 비법적이며 일방적인 행동은 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어떠한결과를 갖게하였던가?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조선인민들의 단결력을 더욱 공고히하였으며 거족적구국투쟁을 일층 조발하였으며 애국증산운동으로 인민경제예정숫자초과달성에 더높은 성과를 올리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을 더욱촉진시켰을뿐이였다。

四、전조선인민은 남조선단선단정을 반대하고 조국의통일과 자주독립을위하여 총궐기하였다

「우리조선인민은 一九四八년五월十일 남조선에서 실시하려는 "단독선거"는 우리조국을 영원히 분렬하며 우리조국에서 남조선을 떼어내어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만들며 그들의 군사정치기지로 변화시키려는것을 잘알고있다 우리민족을 분렬하려는 이러한반동적 반인민적 미국계획이 실현되는것을 반만년력사를 가진 조선민족으로서 어찌 용납할수있겠는가?

그렇기때문에 남북조선을 물론하고 三천리 전지역에서 조선인민은 조국에대한 외국의 간섭을 없이하며 우리조국에서 「유·엔조선위원단」이 물려갈것을 강경히 주장하고있다」(김일성)

북조선에서는 방방곡곡에서 남조선단독선거와 「유·엔조선위원단」을 반대하는 시위가 장엄하게 일어났으며 三월十四일부터 四일간에 만하여도 三

백五十만이참가하였다 남조선인민들 역시 반동의 총검앞에서 죽엄을 무릅쓰고 피의 항쟁을 계속하였다。

一九四八년一월八일에는 서울 각공장의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이 파업하였으며 一월十九일에는 경전로동자들과 기타로동자들이 파업하였다 二월초에는 남조선전역에 걸쳐 체신종업원들과 철도종업원들의 장엄한 동맹파업이 일어났다 우리조국의 분렬을 반대하여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뿐만아니라 농민 시민 학생할것없이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남조선단선을 반대하여 전체조선인민들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주의통일정부수립을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전조선인민들의 요구를반대하고 남조선경찰과 반동 테로단들을 총동원하여 강압적으로 남조선선거를 실시할 온갖 대책들을취하였던것이다 미군은 선거당일에 전투태세에 들어갔고 비행기 탕크 군함까지 출동하였던것이다 유권자들을 협박하기위하여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은 명령을 발표하여 선거에참가하지않는 남조선인민들을 위협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에있어서 수만의 피검자와 수천명의 사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투쟁은 날로 치렬화하였다。

五·十단선반대투쟁에있어서 특히 지적하여야할것은 제주도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이다 제주도에서는 三개선거구중 二개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지못하였으며 제주도인민들의 괴뢰정부를 반대하는 무력항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며 남조선인민들의 괴뢰정부를 반대하는 무력항쟁은 방금 남조선전지역에 파급되고있다。

五·十단선이 강제적이었다는것은 미국신문기자까지도 승인하였다 유·피특파원제임스·로우는 다음과같이 기술하였다。

「미군정찰기는 상공을 비상하였으며 선거장이 있는곳에는 야구용타봉을가진 향보단원에의하여 엄중경호되였으며 동장소로부터 약三十메―터의거리에는 총검을 착용한경찰들이 있었다」(자유신문五월十二일) 동기자는 다시 기술하되 「서울에서는 수천명의경관과 특임된민간인이 미국군대지원하에 각종요도로와 교차장에 방색을설치했으며 각골목입구에는 경비대가 배치되었다 민간경비대원은 도끼자루 야구뺃 곤봉등을 휴대하고있었고 모든 조선경찰들은 미국 카―빙총으로 무장하였다 선거일은 휴일

이나 분위기는 계엄령하의 도시와 같았다 조선부인은 보통일요일 기타휴일에는 황색 록색의 신선한의복을 입는데 이날은 호릿한 황백색의복 또는 바지를 착용하고 투표장으로가면서 가만이 주위를 살피는 기색이었다……서울을 통하여 아동들만이 웃음을 웃었다」고하였다(경향신문五월十二일)

이것이 미국기자가 자기눈으로보고 五·十단선당일의 서울의풍경을 묘사한것이다 이것이 인민들로부터 민주주의자유에대한 마지막 한토막까지라도 박탈해버린 망국적 단독선거를 강제로실시한 미국기자눈으로본 서울의풍경이다 서울조차 이러하니 지방의선거는 더말할여지도 없을것이다。

이망국적선거를 강요하기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조선의매국노로 야합된 반동도배들은 온갖 간악한 수단을 다썼던것이다 인민들로부터 쌀통장을 빼앗아간것은 예사로진행되었고 四월二十일 소위 수도청장 강택상은 누구를 물론하고 로상에서 두류하는 사람은 경찰이체포하여 보안주임에게 인도하라고 발광하였다 四월三十일 소위경무부장 조병옥은 선거를 방해하는자는 무차별사살하라고 짐승같은 목소리를 울렸으며 四월二十七일 미군정장관 띤은 립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자에게는 다른사건보다도 우선적으로 취급하라고 재판소 검찰청 경찰서등에 명령하였다 五월一일 미군정청은 행정명령二十一호로써 五월九일과 十일에는 집회와 가두행렬등을 금지한다고 하였다。

五·十망국단독선거규정은 미군정이 발표한것에의하여 시행되었으며 후보자一명이되는 선거구에서는 인민들의 투표없이 기계적으로 자연당선되었으며 리승만 역시 그중의한사람으로서 인민의투표한장받지않고「대통령」까지 되었다는사실은 인류력사가있은후 리승만이가 처음기록에 오르게될것이다 리승만선거구에서는 다른립후보자도 있었는데 테로와강압으로 그의립후보를 방해함으로서 리승만이가 단일후보로 되었던것이다。

이러한 반인민적 반민주주의적 테로와 강압과 매수와 간책에 의하여 시행된 선거의결과는 친일과 민족반역자들로서 「국회」를 구성하게되었으며 로동자와 농민의대표는 물론 一명도없었던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종밑에서 조국을팔며 인민을 반대하고 나선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이 제아무리 이같이 흉악한 발악을 한다하여도 조국을사랑하며 통

일적민주주의중앙정부수립을 갈망하는 전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은 억제할수없을것이다 반동매국노들의 발악이 심하면 심하여 갈수록 전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일층맹렬해질것이다 이것은 一九四八년 四월에 열리었던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와 八•二五선거에있어서의 전조선인민들의 애국적선거로써 시위한 민주력량—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一천만당원과 맹원을 망라한 전조선五十六개정당사회단체대표자들이 참석한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서 남조선 단독선거를 전적으로 뽀이코트할것을 결정하였고 이회의에서 쏘미량국정부에 대하여 량군동시철거에대한 쏘련의제안을 실천함으로써 조선문제를 가장 단순하고 현명하고 정당하게 해결하는것을 조선인민에게 열어줄것을 요청하였다。

약소민족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시하는 쏘련정부는 이요청을 쾌히접수하고 어느때든지 자기군대를 미군과 동시에 철거할준비가 되어있다는것을 회답하는동시에 그실천의제일보로써 북조선에서 자기군대를 대폭적으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이와반대로 미국정부는 이요청을 묵살해버리고 도리어 남조선지역에 자기군대를 증파하였고 리승만괴뢰정부를 비호하기 전력을기울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매국노들로하여금 국토를량단하며 민족을 분렬하여 이를 고정화하려는 온갖 수단을 다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도를 실현하여주는 남조선민족반역자들이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시키며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변화시키기위하여 그들이 할수있는 모든것을 다하여놓은 현하의 조건하에서 다지「통일된조선을 보기를원한다」는 희망을 선포하는것으로만은 부족하다 우리들은 통일민주주의인민조선을 위하여 반드시 선진적으로 투쟁하리라는것은 명백한사실이다」(김일성)

이투쟁의 첫과업으로서는 전조선적으로선거를 실시하여 조선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하는것이었다。

이리하여 八•二五선거에있어서 전조선인민들의 애국적열성으로 북조선에있어서는 전유권자의 九九•九七%가 선거에참가하여 二一二명의 대의원을 선거하였으며 남조선인민은 반동의 폭압을뚫고 인민대표자대회대표선거에 七七•五二%가 참가하여 一、〇八〇명을 선거하였으며 一、〇八〇명중 一、〇〇

二명이 참가하여 인구의비률로써 三六〇명의 조선최고인민회의대의원을 선거하였다。

전조선인민들의 열렬한지지와 환호속에서 창설된 조선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이에기초하여 조선인민의 령도자이며 절세의애국자이며 민족적영웅인 김일성장군을 수반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를 수립하였다,

전조선인민이 일일천추로갈망하던 통일중앙정부는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통일이 다실천되였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조선인민은 중앙정부주위에 굳게뭉쳐 김일성수상이 발표하신 정부정강을 높이받들고 더욱힘차게 매진할것이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제一차회의요청에 의하여 쏘베트정부는 一九四八년말까지 자기군대를 완전히 북조선에서 철거할것을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였다。

그러나 미국군대는 남조선에서 물러가기를싫어하며 남조선에 장기주둔하기위하여 리승만괴뢰정부로하여금 미군주둔을 요청하며 한편 유•엔제三차총회에서 미국대표단은 새로운「유•엔조선위원단」을 조작하여 남조선의 미국예속화정책을「합법화」하려한다。

五、조선문제에 대한 제三차유•엔의 비법적결정은 조선인민과 아무런공통정이 없다

유•엔제三차총회가 끝나기 겨우一주일을 앞두고 미영쁠럭은 十二월六일정치위원회에서 조선문제토의를 불법적으로 채택하였다。

미국대표단의 의도하는바는 그의온순한「다수파」의 힘을 믿고 조선문제를대속도로 진행시켜 자기주장을 관철할 목적이다。

주지하는바 미국대표단은 一九四七년十一월 유•엔제二차총회에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상정하여「유•엔조선림시위원단」을 조작하였고 그는 이위원단을통하여 남조선단독괴뢰정부를 날조함에「성공」하였다 미국대표단은 금번 제三차유•엔총회에서「유•엔조선림시위원단」의 보고형식으로써 또다시 이문제를 상정케하였던것이다。

쏘련 및 신민주주의국가들의 반대에도불구하고 이문제가 유•엔에상정된이상 제一차유•엔결정에 지적된바에 의한 선발된 조선인민의대표를 초대할때대하여 六일정치위원회에서 체코슬로바끼아대표는 전

조선의 절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참가한 민주주의 선거의 결과로 수립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대표들을 초대할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의충실한 앞잡이 장개석정부의대표는 남조선에서 기만적 반민주주의적 선거를 은폐할 목적으로 유·엔의 이름을 악용하여 유·엔제二차총회에서 미대표단의 주장으로 조작된 비법적인 소위「유·엔조선위원단」의 원조하에 미군정당국이 날조한 리승만 괴뢰정부대표단을「조선인민의 대표」로서 인정할것을 제의하였다。

쏘련대표를 비롯한 동남유로빠제민주주의국가대표들의 정당한견해를 증명하는 여러가지사실들과 숫자들이 구체적으로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개석정부대표제안이 미영뿔럭의표결로써 통과되었다。

이리하여 남조선유권자의 七七·五二%와 북조선의 유권자九九·九七%가 참가한 민주선거의 결과로 수립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대표는 초청치않고 해방전에는 일제의 충복으로 복무하였고 일제가망한후에는 새상전—미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주구로서 역확하는 리승만 괴뢰정부의 허수아비—장면 조병옥 김활란들을「조선인민의대표」로서 가장시키었다。

이회의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수가있었던가

첫째로 미제국주의자들은 토론을 될수있는대로 회피하고 그저 자기의「거수기」만 리용하여 자기의 계획안을 통과시킬것을 조급해하고있는것

둘째로 조선인민의 진정한대표를 참가시킬것을 몹시 겁내며 조선인민의원쑤로서 조선인민과 대면하는것조차 겁내하는자들로하여금 미제국주의자들의 대변자역활을 시키려는것

그렇기때문에 첫째로 총회종결일을 불과 일주일을 남기고 조선문제와같은 중대한문제를 어물어물하여 넘겨보자는것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의도이다。

둘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가 참석할것을 몹시겁낸 나머지 미국대표 덜레스는 협잡까지하다가 발각되었던 사실들을 볼수있다。

、이에대하여 쏘련대표말리크는 다음과같이반문하였다

「덜레스씨는 정치위원회가 그문제를 심의하고 그것을 거부하였다느니 다시그문제토의에 귀착하지않으려고 결의하였다느니하고 성명한리유가 어데 있는가?」

말리크는 덜레스의 이같은 책동이 우연한사실이 아니라는것을 지적하였다。

덜레스는 유·엔의 공적기관지에 써어있는 것을 인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들을 초청할데 대한 문제토의를 방해하였던것이다 이기관지는 그릇된보도를 내고 그후 이것을 정정하였는데 덜레스는 이기관지에써어있는것을 인용함에있어서 그기관지의 정정에대하여서는 묵과해버렸다。

이에대하여 말리크는「이것이 착오인가 그렇지 않으면 협잡인가?」하고 질문하였다。

말리크는 계속하여「이것이 기관지주필의 실수인가 그렇지않으면 그에게 누가시켜 한일인가? 오늘 미국대표가 이같은 보도에, 의거하고있는사실을 타산하여볼때 그 기관지가 그와같은 착오를 범하는한 나는 기관지의 객관성을 의심하는바이다」라고 성명하였다。

남조선에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엄폐할목적으로 조작된「유·엔조선림시위원단」은 남조선단독선거에대하여 유·엔에 어떠한보고를 제출하였던가?

그보고에는 남조선은 경찰국가로서 반민주주의제도가 실시되며 남조선단독선거는 친일파민족반역자들이 독판을 차린 테로 강압속에서 진행된실제적 재료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재료들과는 정반대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었다。

「첫째로 조선사람은 자치능력이 없으며 또한 민주주의적 관리형태를 가질능력이없다」

「둘째로 남북조선간에 평화적관계를 달성시키는 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모순된 이데올로기들과 그들의정치로선들이 더욱더 증대하여가는 세력을 가지고 충돌을 계속하고있는한 무익할것이라고 믿고 있다」

「세째로 조선은 장래도 역시 분활된대로 남아있을것이라고선언한다」

이보고의 결론으로써 미국의주장에의하여 비법적으로 조작된「유·엔조선위원단」은 예견하였던바와같이 완전히 미제국주의자들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것을 다시 한번더증명하여주었다。

「조선사람은 자치의능력이없다……」는 소리는 미제국주의 자들의말을 그대로섭취하여 자기 보고에기입한것이다 쏘련군이 진주한 북조선에서 三년간에 수많은 민족간부들이 장성되었으며 현재 조선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완전히 자기손으로 운영하고있으며 조선인민은 자기국가를 앞으로 더

욱발전시켜 나아갈수있는 능력을 충분히가지고있다는것은 북조선의 실정이 잘증명하여주는것이다。

『남북조선에 평화적관계를 달성시키는것은……무익할것이라고 믿는다』「조선은 장래도 역시 분활된채로 남아 있을것이라고 선언한다」운운… 이것은 남조선을 분활하여 미국의 식민지로 예속화시키며 조선의 통일독립국가건설을 방해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독소리를 그대로 복사한것이아니고 무엇이냐!

그리고 「모순된 이데올로기들과 그들의 정치로선들이 증대하여가는……」운운의 모호한 헛소리로써 어물 어물한것은 남북조선에 벌어진 민주와 반민주와의 투쟁적 사실을 엄폐해버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바라는 목적을 실현시켜주려는 구실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리승만 괴뢰정부의 대표자 장면(張勉)은 다음과 같은 연설로써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다한다。

첫째로 이자는 남조선에서 선거가 자유롭게 진행된것처럼 증명하려고 자기자신도 투표하였으며 피선되였다고하였다。

둘째로 조선사람중에는 다른나라보다 자기조국을 덜 사랑하는 사람은 매우적다고 하였다。

셋째로 미군이 남조선을 포기하며 서울〝정부〟를 그 자신의 운명에 맡겨두지말라고 애걸하였다。

매국노로서의 「훌륭」한 연설을 한것이다 조선의 애국자로서 누구가 남조선 단선에 참가한 사람이있으며 매국노들만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장면같은 매국노가 피선된것은 당연한 일이아닌가

리승만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매국노를 제외한 전조선인민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주둔을 요청한것은—리승만〝정부〟는 외국총칼의 후원을 받아조선인민을 도살함으로써만 유지될수있으며 조선인민을 겁내한다는것을 고백한이외에 아무것도아니다。

이 매국노 장면의 연설을 칭찬하면서 듣고난 미국대표 덜레스는 토론을 끊고 미국 중국 호주등 대표들이 공동제출한 결의초안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서둘어 대였다。

이 결의초안의 내용은

첫째로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의 결론들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을것과

둘째로 리승만괴뢰정부를 『합법적정부』로서 총회로하여금 선포케할것과

셋째로 최초의 『조선위원단』보다도 더 광범한권한을 가진 또하나의 『조선위원단』을 설정할것등이다。

이 결의안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있었던가

첫째로 『유·엔조선위원단』의 결론—즉 조선은 장래도 역시 분활된채로 남아있을것이라고 선언할것

둘째로 미국의 허재비 리승만괴뢰정부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자기정책을 실현할것

셋째로 미군이 남조선에 장기주둔하기위하여서는 유·엔의 가면을 또한번 리용해보자는것등이다。

덜레스가 조선문제와같은 중요한 문제에관한 토론을 우물쩍하려는 욕망에서 나오던 토론을 중지하자는 제안은 쏘련대표 로우오노브의 반대를 받고 토론은 八일 오후회의까지 연기되었다。

十二월八일 오후회의에서 조선에서의 미독점자본가들의 침략주의적 목적들을 폭로하면서 백로써아 대표단수석 끼셀로브는 「미국이 남조선에서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기위한 경제적조건들을 벌써 만들어、놓았으며 조선을 량부분으로 절단하는데에 성공하였다」고、성명하였다。

얼마전에 미국과 리승만괴뢰「정부」사이에 체결된 소위「한미경제협정」은 미국이 남조선에 이미 만들어놓은 식민지적 경제적 조건들을 최근에와서 성문화한것이다 소위 「국회의원」중에서도 이는 당국적협정이라고 비난성명한 사실로 미루어 그「협정」의 내용이 얼마나 매국적인가를 판단키 그리 어렵지않을것이다

유·엔총회는 十二월十一일、밤늦어 방청자들은 이미 사라지고 당번신문기자들만이 여기저기서 졸리는 눈을 비비고있는가운데 조선문제의 심의가 시작되였다。

이 총회에서 미영블럭의획책으로 새로운「유·엔조선위원단」이 조직되였는데 이 위원단은 조선에서의 량군철퇴를 감시한다는것이다

제二차총회에서는 외국군대를「가급적 속한시일」내로 철퇴시키자고 미국이 제안하여、승인된 무의미하고도 애매한 규정을 조선으로부터 「기회있는대로」철퇴하자는 더욱 무의미하고도 막연한 문구를 가진 결의초안으로 바뀌어졌다。

「가급적 속한시일」이 일년이 훨씬넘은 오늘에

도 그 시일에 이루지못하였다면「기회있는대로」는 어느때까지란말인가?

이러한 막연한 외군철퇴를「유•엔조선위원단」으로써 감시케한다는것이다。

북조선에서는 쏘련군이 一九四八년十二월말내로 철퇴완료함에도 불구하고 량군철퇴감시라는것은 쏘련군에대하여는 해당치않는말이다。 이것은「거회있는대로」철퇴한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에서 미군이 장기주둔할것을 엄폐하려는 병풍으로 조작된것이다。

× × ×

미국이 쏘미공동위원회를 두번째이나 파렬시키고 쏘련이 제의한 량군동시철거안을 거부하고 조선문제를 유•엔에 비법적으로 제기한 리유는 어데있는가?

유•엔 제二차총회에서 비법적으로 조작한「유•엔조선위원단」은 조선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였던가 남조선에 경찰제도를 강화하고 인민에대한 탄압학살을 조장한것밖에 아무런 사업도 한것없다 있다면 미국과 리승만괴뢰정부간에「한미협정」이니「군사협정」이니 「한미경제협정」이니하는 망국적협약을 성문화사킨것을 엄폐하는 병풍으로서의 역확밖에 한일이 없을것이다。

그리고도 몰렴치하게 새로이 또하나의「유•엔조선위원단」이니하는 간판을 질머지고 미국지령하에 조선으로 재차 들어오려는것이다 쏘련군이 북조선에서 철퇴하는 조건하에서 「가능한 시기」에 량군철퇴를 감시한다는 말은 무슨 잠고대인가? 이것은 남조선에서 장기주둔하려는 미군의 침략적야망을「가능한시기」까지 연장시키는 변명으로 밖에 되지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예속화하기위하여 남조선에 장기주둔할 목적으로「유•엔조선위원단」을 조선내로 다시 끌어온다하여도 조선인민은 결코 이에 놀라지않을것이며 전조선인민은 우리인민의 령도자 김일성수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주위에 굳게 뭉쳐 더욱 장성발전한 민주력량으로「유•엔조선위원단」을 철저히 배격할것이며 우리조국의 남반부에서 미국군대가 하루속히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리승만을 괴수로한 매국도당들을 반드시 타도하고야 말것이다。

「유•엔조선위원단」따위가 몇섬 몇때개가 들어온

다하여도 조국의 민주자주독립을위한 이러한 조선인민의 견결한 투쟁력을 도저히 막지못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는 전조선인민이 절대지지하며 쏘련을 위시하여 모든 신민주주의국가들의 시인을 얻은 조선의 유일한 합법적 정권기관이다 이밖에 아무런정권도 조선인민은 용허하지않을것이며 유•엔에서 어떠한 결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조선인민의 리익과 배치되며 우리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따위의 결정은 전조선인민들과 하등의 공통성이 없는것이다。

전조선인민은 위대한 쏘련이야말로 우리민족을 악독한 일제에서 해방시켰으며 민주조국건설에 있어서 친우적원조를 주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조선인민들에게 행복한 자주독립을 옹호하기위하여 열렬히 투쟁하고 있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면서 앞으로 쏘련인민과의 영원한친선만이 우리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수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것이다。

참고자료

쏘베트 미학(美學)의 제문제

므·로젠딸리

미학(美學) 즉 예술론은 예술의 본질, 현실에 대한 예술의 관계, 사회생활에있어서의 그의 의의 예술창작방법, 예술작품에있어서의 형식과 내용의 상호관계, 예술성의 규범및 기타에관한 제문제들과 관계된다 미학리론은 예술실천에대하여 영향을 주며 또는 예술비평을 위하여 큰 의의가 있다 비과학적 미학리론에 근거한 비평은 자의(恣意)적 주관적 또는 무원칙적인것으로 되고만다。

미학은 예술의 직접 창작자들의 크나 적으나 협소한 써클의 리해범위를 훨씬 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미학은 사람들의 예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며 일정한 예술적 취미를 배양하며 예술에, 대하여 제기되는 제요구를 리론적으로 공식화한다。

력사경험은 선진적 미학리론및 견해가 예술과 예술적취미 또는 사람의 도덕적 의식에 영향을 준 사실을 립증하는 현저한 실례들을 적지않게 보여준다。

四〇—六〇년대의 로씨야에있어서 벨린쓰끼, 체르넵쓰끼 또는 도브로류보브등 위대한 혁명적민주주의자들의 미학은 당시의 로씨야의 예술에있어서의 모든 선진적인것 모든 진보적인것의 기치로 되었었다. 그들의 리론은 이미 실지에 존재하고있던 진보적 문학현상을 개괄하였을뿐만아니라 예술가들에게 창작방법을 가르쳤으며 선진적인 사회적리상을 예술가들의 의식에 침투시켰으며 예술의 발전을예술적 사실주의, 대중성, 혁명적 사상성의 정신에서 인도하였다。

체르늬셉쓰끼의「현실에대한 예술의 미학적관계」라는 유명한 학위론문은 五〇—六〇년대당시에 문

학과 예술에서 발생한 적대적 진영과의 분계(分界)를 짓는데있어 제일차적 요인으로 되었었다。

체르늬셉쓰끼의 강력한 제창(提唱)의 영향은 그의 동시대 문학과 회화(繪畵)예술에 심각히 반영되었다。

인민과 공산주의에대한 예술의 충실성(忠實性)을위하여 투쟁할 사명을 가진 쏘베트의 참다운 과학적 미학의 역할은 실로 거대하다。

쏘베트 미학의 거대한 우월성은 모든 복잡한 미학적 문제들을 정당하게 해결할수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가장 선진적인 철학적 세계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있다。

맑쓰주의는 미학을 과학의 수준에 제고하였다 이 부문에있어서도 맑쓰주의는 혁명적 대변혁을 수행하였다 변증법과 사적유물론은 미학과 예술비평의 모든문제의 해결을위한 과학적기초를 준다。

쏘베트 미학은 맑쓰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명백하고도 정확한 미학개념으로 쏘베트예술과 작가및 예술인을 무장시키는바 이 미학개념은 사회주의사회의 예술의 기본적 원칙및 그 방향과 창작방법을 가르키며 예술의 사상성 당파성 내용성을 위한 또는 사회주의를 건설한 인민다운 예술을위한 쏘베트비평의 투쟁로선을 규정한다。

미학과 비평은 예술에대한 고상한 요구를 공식화하며 또는 착취계급들의 기생(寄生)에서 해방된 쏘베트생활의 모든 제도에 부합되는 예술적취미를 쏘베트인민들에게 교양주어야한다。

최근 二년간에 채택된바 이데올로기 문제에 관한 전동맹볼쉐위끼공산당중앙집행위원회의 제결정은 쏘베트미학연구사업을 매우 용이하게 하여준다。

이 결정들은 쏘베트사회주의 예술에대한 심오한 리론적개념을 제시한다。

잡지 「별」및 「레닌그라드」 연극장의 상연목록, 영화 「거대한 생활」 브·무라젤리의 가극 「위대한친선」에 대한 전동맹볼쉐위끼공산당중앙위원회의 제결정은 쏘베트사회주의 예술 발전에있어 중대한 력사적 단계를 의미한다 이 력사적 의의를 가진 결정서에는 쏘베트사람의 공산주의적 의식의 형성에 참가한다는 영예로운 과업을 목전에한바 쏘베트예술의 앙양에대한 공산당의 배려가 표현되어있다。

예술과 문학에관한 전동맹볼쉐위끼공산당중앙위원회의 결정서에서는 쏘베트예술의 장래발전을 위한

주도(周到)한 프로그람이 포함되어있다 이 프로그람은 예술을위하여 원칙적이며 사활적인 모든 문제에 걸치어 철학적으로 기초지어진 명확한 자시를 준다。

× × ×

전동맹 볼쉐위끼공산당중앙위원회의 결정서는 쏘련사회가 예술에대하여 제기하는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요구 즉 예술의 사상성과 당파성에대한 요구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맑쓰 레닌주의미학(美學)의 근본문제이다 이 문제에대한 연구는 쏘베트 미학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된다 쏘베트 미학은 부르죠아퇴폐와 예술의 무사상성에 대하여 쏘베트사회주의 예술의 높은 공산주의적 사상성과 당과성을 대립시켜야한다。

제국주의시대에 특징적인 부르죠아예술의붕괴(崩壞)가 그표현을 발견하고있는 현대 부르죠아 퇴폐주의 미학리론에대한 비판과 폭로는 쏘베트미학과 예술비평의 긴급하고도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다 이 과업은 '문학과 예술에관한 전동맹 볼쉐위끼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결정서에서 직접 흘러나오는것이다 이 제결정서는 「예술을위한 예술」이라는 부르죠아리론 형식주의 및 자연주의의 온갖 잔재 또는 정치적 무관심과 무사상성 또는 염세주의와 우울의정신 또는 인간타락 또는 현대 부르죠아 예술에특유한 모든 반동적 특징을 향하여 그 칼끝을 겨누고 있다。

부르죠아 미학은 그 대표적 인물들이 선진적예술을 위하여 투쟁하던 시대로부터 자체를 격리시키고있는 문턱을 넘어 섰지 오랬다 일찌기 十八세기말에 독일의 관념론적 미학은 예술의 「무관심적」 또는 「무당과성」에대한 명제 즉 「예술을위한 예술」론 형식주의 등등의 기초로되었던 명제를끌어냈었다 제국주의시대에 있어 주관적 관념론적 부르죠아 미학은 전적으로 예술에 있어서의 데카당적 불구(不具)를 정당화(正當化)하는데 주력하였었다。

일찌기 블레하노브는 부르죠아 미술가의 회화 또는 상징주의(象徵主義)문학에있어서의 「주관주의적 취연(主觀主義的醉宴)」을 비판하면서 최신 부르죠아예술의 주요특징은 그 무사상성에있는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전혀 합법칙적이다 예술은 그것이 다만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위대한 사회적 사변 인민운동 인간생활의 본질적 측면을 반영하는때라야만 심오한 사상적 예술일수있는것이다 예술과 선진적사회적운동간의 련락이 상실된 곳에서는 예술은 쇠퇴에빠지며 반동적 목적에 복무한다 현대 부르죠아 예술의 현상(現狀)은 이 법칙에대한 훌륭한 례증으로되는것이다。

게르첸은 자기시대의 부르죠아사회에 언급하여 이 사회에는 제금궁(提琴弓)도 화필(畵筆)도 조각도(彫刻刀)도 효과를 주지못하는 방해물(妨害物)이있다 이 방해물은 부르죠아적 속물근성(俗物根性)이다 라고 말하였다。

최신 부르죠아 미학은 무사상성、개인주의및 예술가의 사회적 문제에대한 랭담(冷淡)을 예술의 기본원칙에까지 끌어올리고있다 미국의 비평가 늪톤 어ー빈 박사는 현대 미국문학에있어서의 근본방향을 특징지으면서 미국 부르죠아 작가들의 현실도피(逃避)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어ー빈은 젊은 작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있는 현실의 외면적 경제적 사회적 현상에대하여 관심을 두지않고 내면세계의 제현상이거나 잠재의식적(潛在意識的) 또는 무의식적 생활의 암흑면에로 의식적인것의 가면을 쓰고 침입하는데 관심을 두고있다」는 사실을 미칠듯이 개탄한다。

사회생활의 본질적 문제로부터의 예술의 절연은 부르죠아 회화 조각 예술등에서도 창도(唱道)되고있다。

최근에 잡지 「대영동맹국(大英同盟國)」지상에 영국에있어 「평화의 삼년동안에 예술에 대한 관심은 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론문의 「철학」은 흥미가 많다 필자의 단언에의하면 「테마적인 그림의 시대는 지나갔으며」 회화에대한 관중의 태도는 그들의 단순한 「회구(繪具)에 대한 기호(嗜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이다 다만 「미술가의 기법(技法)」 그의 인상만이 관람자에게 흥미를 주며 「생활장면을 묘사하는」 테마적인 회화에대한 흥미는 완전히 소멸되어버렸다는것이다。

현대 부르죠아 「미학」에있어 특징적인 극단적 주관주의、형식적 허세(虛勢) 연간을 우매케 할 목적으로 자본주의적 현실의 첨각한 모순을 의식적으로 은폐하는 작질 현대의 사활적인 초미(焦

眉)의 중요문제로부터 사람을 이끌어내버리는 사실에대하여 다시더 증거를 들 필요는 없을것이다 현대 브르죠아 미학리론의 계급적 리면(裏面)은 영국 회화에관한 전기 론설에대단히 잘 표현되어 있다。

『만일 미술가가 자기의 개인적체험(体驗)의 섬광(閃光)템즈강(江)상의 황혼의 기분이라든가 묘한나무나 가시덤불의(스케치이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다면 나는 생각컨대 바로 여기에서 관객들은 그들의 전후의 노력에 수반하는 준엄한 로동규률과 희생으로부터의 기분전환과 휴식을 발견하는것이다』

이것은 유명한 형식주의파 화가 마티스가 그당시에 표명한 데카당사상의 반추(反芻)이다. 마티스는 예술은 사람이 세상만사를 잊어버리고 앉아서 휴식하는『훌륭한 의자』와 같아야하며 예술은 『정신을 가볍게해주고 진정시켜주는 수단』과 대비(對比)되는바라고 주장하였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부르죠아 예술가와 비평가들이 생각하고있는 예술은 자본의 종들로 하여금 생활상 모순 결핍 곤궁 또는 자본주의를 위한 보통사람들의 희생에대해서는 될수있는대로 적게생각하도록 강요하고 그들에게 현대 퇴폐과예술가들의 『체험(體驗)의 섬광(閃光)을 탄상(歎賞)』할기회를 제공함을 그 사명으로, 하는것이다。

부르죠아예술의 리론가와 실천자들이 선포하는바 『저주받은 문제들』로부터의 초탈(超脫)이 있는 그들의 활동에 있어서 제국주의적 략탈과 인종론(人種論)의 방자한 로골적 선전과 결합된다는것은 자명의 사실이다 저것이나 이것이나 동일한 직무적(職務的)책임이 있는것이다。

十九세기의 로씨야의 혁명적—민주주의적 비평가들—벨린쓰끼 체르늬쉡쓰끼 도브로류보브 등의 거대한력사적 공적은 그들의 예술의 사상성과 거대한 사회적 의의의 리해(理解)에 근거한 미학리론을수립한 거기에있는것이다 예술은『생활의 교과서다』—체르늬쉡쓰끼가 제시한바 심원한 내용으로 가득찬 이 간단한 정의(定義)가운데는 로씨야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의 미학사상의 근본적 방향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있다 그들은『예술을위한 예술』이라는 반동적 리론을 분쇄하고 인민의 해방투쟁의 리익에 예술을 복종시키기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부르죠아적 퇴폐주의와의 반대투쟁에있어 쓰베트미학과 예술비평가들은 혁명적—민주주의적 사상의 풍부한 유산을 리용하며 그 사상을 맑쓰—레닌주의 세계관으로써 풍부히 하여야한다。

맑쓰주의는 예술을 사회생활 계급투쟁 또는 사회내에서 진행되고있는 모든 과정으로부터 멀리떨어진 창작분야인것처럼 보는 부르죠아적 관념론적인 반동적예술관념에 대하여 대타격을 주었다 예술은 과학 철학 도덕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현존하는 경제 정치 및 기타관계들과 유기적(有機的)으로 관련된 사회적 의식의 형식이라는것을 맑쓰주의는 명시하였다 예술은 임의의 다른 형식의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내용을 사회생활로부터 섭취해들이는것으로서 자기고유의 독립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지아니하며 또한 가질수도 없는것이다 예술의 내용과 또한 그 형식은 전적으로 사회발전의 객관적 조건에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부르죠아 반동미학자들이•묘사(描寫)하기를 즐겨하는것처럼 사람을 격동시키는 정열에 초연한 어떤 령적(靈的)존재인것이아니다 계급사회에 있어서는 예술가는 어느 한계급에 속하는것이며 또 그의 창작은—그것을 원하든지 또는 원치않든지간에— 일정한 계급적 리해와 지향을 표현하게되는 것이다 맑쓰주의적 미학은 예술의 초계급성(超階級性)『무당파성』『무욕정』에대한 부르죠아적 전설을 철저히 분쇄하였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것은 『순수』한 민주주의 또는 『초계급적』 정책이라는것과 같은 허위인것이다。

예술에관한 과학의 이, 근본적문제에대한 맑쓰주의적 연구에 레닌은 위대한 기여(寄與)를 주었다 그는 그의 저명한 론문 『당조직과 당의 문학』과 기타 로작가운데서 당파성의 원칙을 기초지었다 제계급으로 분렬되어있는 사회에있어서의 『무당과성』이라는 사상은 부르죠아적 사상이라고 레닌은 가르킨다 그와 반대로 당파성의 사상을 레닌은 사회주의적 사상이라고 부른다 부르죠아 철학자 비평가 평론가들이 악의(惡意)와 광포(狂暴)를다하여 문학과 예술의 당파성에대한 레닌적 원칙을 공격하고있는 우리 시대에있어서 레닌주의의 이 명제는 새 힘을 가지고 확인되고있다 그들의 공격에있어서의 기본적인것은— 정치로부터의 예술의 독립성에 관한 반동적사상을 유지하려는 희망이다。

과학과 진보의 광포한 원쑤인 영국관념론 철학자 버ー트랜드 럿셀은 「예술가는 정치권외(圈外)의 적을 추구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제국주의에게 충성을 다하여 복무하고있는 부르죠아 비평가와 음악학자들은 증명할수없는것을 증명하려고 즉 음악은 어떤 미국비평가가 말한바와같이 「인간풍습의 극히 독립적인 관찰자」라는것을 증명하려고 죽을힘을 다하고있다.

부르죠아 예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아주 명백한 리유에서 예술에 있어서의(철학과 과학에 있어서와같이) 당파성을 공공연히 인정하는것을 불처럼겁내한다. 즉 부르죠아 예술의 당파성을 인정한다는것은 그것이 사회의 상층부를 위하여 한춤도 못되는 자본주의 거두들의 반동적리익을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을 인정함을 의미하는것이며 또 예술의 당파성을 승인하는것은 즉 비타협적 제계급으로의 사회의 분렬 또는 자본주의에대한 대중의투쟁을 공공연히 인정하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부르죠아지는 무당파성에 마음이 끌리지않을수없는것이니 왜 그러나하면 당의 결여(缺如)는 결과에있어서 부르죠아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의 결여를 의미하기때문이라고 레닌은 가르켰다.

예술에 있어서의 「무당파성」이라는 사상은 부르죠아제도의 놀랄만한 계급적 모순을 은폐할 목적으로 부르죠아 예술이 자본의 리익에 예속되어있다는 사실을 호도(糊塗)하는것에 불과한것이다 「부르죠아사회에있어서의 무당파성이라는것은 배부른자의 당, 지배층의 당, 착취자의 당에 소속하여있다는것을 위선적(僞善的) 은폐적 소극적으로 표현하는것에 불과한것이다」라고 레닌은 썼다 (전집 一〇권六一페지 제四판)

맑쓰주의 철학과 미학은 당파성을 과학과 예술의 결정적 원칙으로 공공연히 인정한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사상적옹호자들은 당파성의 원칙을 대담히 선언하며 옹호한다 왜 그러나하면 그들의 사상은 사회의 절대다수의 리익을 표현하며 사회발전의 최고단계인 공산주의를위한 투쟁에로 수백수천만인을 동원시키는 까닭이다.

맑쓰 레닌주의 학설을 지침으로삼는 쏘베트미학은 예술은 언제든지 정치의 권외에 서있지않았고 또 설수도없다는것을 명시함으로써 부르죠아지의 「정치적 무관심」의 가면을 벗겨버린다 전체문제

는 그것이 어떤 정치를 반영하며 또는 어떤 정치와 관련되였는가 하는데 있는것이다 쏘베트 예술과 그 대표자들의 힘은 그들이 자기의 생활적 기초에대하여서처럼 쏘베트국가와 공산당의 정책에 의거하고있는 점에있는것이다 이 정책은 예술발전에 대한 생명의 원천으로 되는것이다 왜 그러나하면 그것은 예술을 위하여 존재할수있는 최고의 목적 즉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인간의 창조력을해방시키는 목적 인류사회와 인간개인의 미증유의 개화(開花)에로 인도하는 물질적 정신적 사람의생활조건을 지어주는 목적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예술을 지향시키기때문이다.

× × ×

이데올로기의 한개형태로서의 예술의사회적성격 계급투쟁에있어서의 그 역활과 지위 사회적관계에 대한 그 의존성을 밝힘으로써 맑쓰주의 미학은 력사상 처음으로 예술발전의 합법칙성 한형식의 다른 형식에의한 교대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사적유물론은 수천년간에있어 예술이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어찌하여 또는 어떤사정으로 인하여 하나의 예술적 원칙과 리상이 다른것에의하여 교대되었고 또한 교대되고있는가를 리해하기위한 확고한 과학적근거를 미학에 준다.

그 사회적내용과 그형식에있어 새로운 예술의 발생은 사회적 생산방법의 교대에, 력사행정에서 성숙된 새로운 사회적수요를 충족시켜야할 필요성에, 계급들의 투쟁에 반동적 낡은 세력을 반대하는 선진적 사회세력의 투쟁에 근원을 두는것이람을 맑쓰주의는 가르친다.

예술의 력사적발전에있어서의 매개 새단계는 새로운 사회적조건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것이다 이 범위의 밖에서는 예술사상(史上)에서 아무것도리해치못할것이다 이와함께 맑쓰주의는 새예술은 빈터에서는 발생할수없다고 가르친다 새예술은 반드시 과거의 예술발전에 의하여 축적된 경험을 리용하며 그것을 새력사적 조건과 요구에 적응하도록 개조해야하는것이다.

예술의 발전법칙에대한 맑쓰주의의 이러한 명제들은 쏘베트사회주의 예술 그 미학적 제원칙 그 창작적 예술방법의 원칙적 특징들을 기초지울 과업에 직면하고있는 쏘베트미학을 위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있는것이다.

쓰딸린동무는 쓰베트예술의 방법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방법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놀랄만치 심오한 해석에서 쓰베트 예술과 과거의 예술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의 새예술적 원칙들은 어떤것인가하는 질문에대한 해답을 준것이다 이와동시에 이규정은 쓰베트 예술은 어떠한 전통 과거의 어떠한 예술적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며 그것을 새로운대과업—쓰베트예술에의하여 수행되는—에적응하도록 개조하는가하는 문제에대해서도 서광을 비추어주는것이다。

쓰베트예술에있어서의 유산에관한 문제는 날카롭고도 사활적인눈제로 되어있다 전동맹볼쉐위끼공산당중앙위원회의 가극『위대한 친선』에대한 결정서가운데 이문제를 부르죠아 모더니즘 반인민적 형식주의의 견지에서 해결하는 자들에게 대한 반박이 제시되어있는것은 우연한사실이 아니다。

쓰베트예술이 발족한 첫시기부터 이문제를 중심으로하여 맹렬한 투쟁이 시작되었었다 혁명전 부르죠아지식층의 수많은 대표자들은 부르죠아형식주의자들의 자아류(自我流)의 최신기술(最新奇術)을『새것』이라는、미명하에 어린 쓰베트예술속에 잠입시키기위한 편리한 구실로써 낡은것의 혁명적 파괴를 리용하였던것이다 볼쉐위끼당은 쏘베트예술에 퇴폐과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용서없은 반격을 주었으며 고전적 사실주의예술이 창조하여 놓은 귀중하고 위대한 모든것을 비판적으로 섭취하는 방향으로 쓰베트예술을 지도하였다。

만일 당이 레닌과 쓰딸린의 령도하에서 쓰베트예술을 부르죠아모더니즘의 함정에로 밀어넣으려는 무수한 대소(大小)그루빠들—미래파(未來派)보그다놉과 구성파(構成派)에서『문학전선』과 프리체와 뻬레웰제브등과같은 통속적 사회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을 분쇄하지않았더라면 쓰베트예술은 현대의 가장 선진적이며 가장 사상적인 예술로 될수없었을것이며 현재 그가 가지고있는 그성과를 달성하지못하였을것이라는것을 자신있게 단언할수있다。

현대부르죠아예술의 주요특징중의 하나는 예술적 사실주의를 증오시하며 사실주의적 회화 사실주의적 음악등을 부인하는그것이다。

물론 새인류사회의 건설을 반영하며 위대한 공산주의의 사상을 예술의 수단을빌어 창도하며 인민을위하여 복무하며 또한 자체의 본질에있어 극

히 사실주의적인 쓰베트사회주의 예술은 반사실주의적 부르죠아예술과는 타협없는 모순관계에 있는것이다。

쓰베트사회주의 예술을 형식주의와 자연주의의 퇴폐적예술을 리용할수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해야할 쓰베트미학과 쓰베트예술비평의 과업이 여기로부터 류출하는것이다。

가극『위대한 친선』에 관한 전동맹볼셰위끼공산당중앙위원회의 결정서에서 유산에관한 문제는 광범한 범위로 또한 최대의 명백성을다하여 제기되고 해결되었는바 이것은 음악예술뿐만아니라 기타모든 쏘베트예술일군들에게 옳은방향을 주는것이다 동결정서는 쓰베트음악발전에 관한 문제를 고전적유산(古典的遺産)무엇보다도 먼저 그예술 창작의 심오한 사실주의적 원칙에 그 훌륭한 가치가 들어있는 커다란 진보적역활을 인정하는것과 유기적으로 련결시키고있다。

동결정서에는 음악부문에서 활동하는 지도적 단체들이『고전적유산 특히 로씨야음학과전통의 거대한 진보적역활의인정 이유산의 리용과 일층발전 음악에있어서 고도의 내용성과 음악형식의 예술적 완벽(完璧)과의결합 음악의진실성과 사실성(寫實性)인민 또는 인민의음악 및 가요창작과의 그의 깊은 유기적련관 음악작품의 단순성과 리해의용이성을 동반한 고도의 전문적숙련등을 그기초로하는 사실주의적경향을 발전시키는대신에 실질상 쓰베트인민에게는 무연(無緣)한 형식주의적 경향을 장려하였다』고 지적되어있다。

아 몇마디의 많은 유산에관한 문제를 명백히 또한 확정적으로 해결하고있다 쓰베트예술은 과거의 고전 예술가유데의 훌륭한 모든것을 계승한다 왜 그러냐 하면 위대한 고전적 미술가 작가 음악가들의 예술적창작들은 그사실주의 그사상성에있어서 또는 사람들의 심원한 사회적리념 사상 감정을 표현하려고하는 그지향에있어서 우리에게 가까운까닭이다 형식주의와 또한 자연주의는 쓰베트예술의 본질자체에 심각히 적대되는것이다。

부르죠아형식주의의 원칙과 이전 고전적 사실주의의 제원칙을 단순히 대조(對照)하는것만으로도 우리가 유산에관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리유가 남김없이 천명된다。

회화를 실례로 들어보자、형식주의자는 회화에있

어서의 미의 근본적 원칙을 다음과같이 규정한다。

『미(美)라는것은 무엇인가? 그림에있어서의 미(美)는 무엇인가? 그림의 미—이것은 색깔과 형상의 련결 또는 상호 작용이다』이것은 한 부르죠아비평가 월뗀의 말이다。

고전적 사실주의 예술의 가장 뚜렷한 대표자중의 한사람인 위대한 로씨야미술가 이·레뻰은 크람쓰끼에게 보낸 편지가운데서 회화의 중요한 제원칙을 다음과같이 규정하고있다。

『우리는 광선 색채를향하여 전진하여야 되겠다고 당신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않습니다 여기에있어서도 우리의 과업은—내용입니다 사람의 얼굴과 심리 인생의 연극 자연의인상 자연의 생활과 의미 력사의 정신—이런것이 우리들의 테마입니다……회구(繪具)는 우리에게 있어—도구(道具)인것이니 그것들은 우리의 사상을 표현하여야하는것이며 우리의 색채는 아름다운 얼룩이 아니라 음악에있어서의 협화음(協和音)처럼 전관중의 마음을 끌며 포로로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이 두개의발전가운데는 현대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퇴폐과예술과 고전적 유산과의사이에 존재하고있는 모든 차이점이 훌륭하게 표현 되어있다。

「형식주의자들은 예술을 자기목적적인것 또는 허망한 회구(繪具)의 유희로 생각하는것이다—비록 형식주의자들이 사회적생활및 투쟁으로부터 마치 절연되어있는것같이 꾸미는것을 가지고는 사회생활에서 그들의「예술」이 놀고있는 그반동적 역활을 언제나 은폐하지못하였으며 또한 지금도 은폐할수없는것이지만………

고전적 사실주의(古典的寫實主義)의 대표자에있어서는 예술은 사회생활의 도구이며 사회적투쟁에 참가하는 적극적수단이며 사회와 인민을위하여 중요한의의를 가지고있는 사상의 표현형식인것이다。「력사의 정신」과 「인생의 연극」을 반영하는것—여기에서 과거의, 위대한 예술가들은 예술의주요과업을 보았던것이며 이러한 그 성질로말미암아 쏘베트사회주의예술은 인민에게 귀중한것이다。

쏘베트예술에있어서 고전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킨다는것은 물론 그것을 변모시킴이없이 단순히 재생시킴을 의미하는것은 결코아니다 쏘베트예술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예술발전에있어서의 새단계를 의미하는것으로서, 쏘베트예술과 고전적유산의 사

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존재하고있다 그러나 쏘베트예술과 낡은 고전적예술간의 이 차이는 그들사이에 존재하고있는 계승관계를 배제하지못하며 또한 배격할수도없는것이다 즈다노브동지는 쏘베트음악가들의 회의석상에서 한 자기연설가운데서 「고전적유산의 의의를 완전히 부활 시켜야되겠다」고 말하였다。

× × ×

쏘베트예술은 고전예술의 우수한 특질의 계승발전인동시에 질적으로는 고전예술과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예술은 새로운 예술 해방된 인민의 예술이다 쏘베트맑쓰주의 미학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과거의 온갖형태의 예술적 사실주의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어디에 있으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특징은 어떤것이며 그것은 어떠한요구를 예술 및 예술가에게 제기하는가를 명시하여야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제를 취급한 문헌가운데서는 쏘베트예술의 예술적방법의 본질에 대하여 옳지못한 그릇된 해석을 종종 볼수있다。

一九四八년에 브·밤라스의 저서 『영화예술』이 발간 되었다 이 책에는 몇몇 비평가와 예술학자들의 발언가운데있는 크게 옳지못한 한가지 경향이 뚜렷이 표현되어있다 즉 예술적사실주의에대한 불신(不信) 사실주의를 사실의 파상적 서술로보는편해가 그것이다 이책의 저자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불충분한 방법이며 그와함께 또하나의 자립적방법—즉 그가 사실주의보다 웃자리에세우는바의 랑만주의가 반드시 존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견해에의하면 예술적사실주의는 다른것이아니라 사실의 실증적(實證的)재현이며 현실의 자연주의적 서술이라는것이다 『현실』과 『진실』을 번쇄철학적(煩瑣哲學的)으로 대립시키면서 그는 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

『만일 현실상의 진실이 두스타일(즉사실주의와 랑만주의의 스타일—필자)의 테마로되며 진실과 현실이 대상(對象) 및 대상의 의의(?)로써 불가분적 전일체(全一体)를 형성하는것이라면 사실주의의 스타일에있어서는 현실이 강조되고 랑만주의의 스타일에 있어서는 진실이 강조되는 것이다 사실주의자는 진실을 발견하기위하여 현실로부터 객관적으로 시작하는것이고 랑만주의자는 주관적으로 진실의 폐소스(감격)로부터 현실에 접근하는것이

다」(一九〇폐지)

이 장광설(長廣舌)의 소박한 의미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피상적현실』의 객관적서술로 리해되고 있다는 점에있다。

『사실주의자는 객관적으로 남아있으며 그의감정이 그의 형상(形象)을 채택치 않는것이다』고 필자는 썼다(一九〇폐지) 브·발라스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자연주의 또는 실증주의(實證主義)와 동일시하고 있다는것은 전혀 명백하다 본의(本意)이거나 또는 불본의(不本意)거나 이책의 저자는 다만 형식만을 차리기위하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언급하고있는것이 보인다……

브·발라스는 쏘베트예술 작품에있어『사실주의적 주인공이 현재 생존하고있는 사람들중에서 선택』되고있는데대하여 불만을 표시한다『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온 잘 아는 타이프(型)다 그는 우리와 상이되는점이 극히적다』라고 이 주인공에대하여 그는 썼다。

묘한 불만이다! 벨린쓰끼는 미술가가 전형적(典型的)인간형상을 그리면서 우리의『지인(知人)』들을 보다낫게 보다 깊이 알수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며 그들에대한 우리의관계를 정식화하는점에서 바로 사실주의적 예술의 온 힘을 발견하였던것이며 또 여기에 예술의 거대한 인식적 효과적의의도 들어있는것이다 브·발라스는 만일 사실주의적으로『평범한』주인공을 그려낸다면 회색의(단조한) 그림밖에는 아무것도 얻지못할것이라고 쏘베트예술가들에게 가르친다『우리는 주관적 정서적(情緖的)음악적 감동적 랑만주의(浪漫主義)를 요구한다』고 그는 썼다。

「주관적 정서적 음악적 랑만주의」운유의 문구는 예술가들에게 우리현실과 그 생동하는 위대한 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표현하는것을 포기하라고 권하는것외에 아무것도 의미하지못하며 또한 저자가 일반적으로 예술적사실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며 황차 사회주의적본질이 무엇인지는 더욱 모른다는것을 립증하는것이다 사실주의에대한 저자의 불신(不信)은 그가 예술의 대상으로되는 쏘베트의 현실을 리해치못한다는것을 표시하는것이며 저자가 쏘베트의 현실을 허위적으로 해석한다는것 쏘베트현실가운데서 영웅적 쏘베트사람들의 찬란한 사업들을 볼 능력이없든가 또는 볼 의사가 없다는것을 말

해 주는것이다。

브·발라스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제를 허위적으로 해석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미학과 문예비평문제에관하여 잡지『十월』지상에서 진행되고있는 토론에서 중심문제로 되게된것은 바로 사실주의와 랑만주의의 상호관계에관한 문제이다 여게있어 일련의 비평가들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대한, 다음과같은 해석 즉 거기에서 사실주의가 탈락되어버리는것과같은 해석을 내리고있다 사실주의없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그들의 발언의 의미는 이러한것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본질에대한 여사한견해를 전개시키고있는것은 브·밸리크다 그가 의거하고 있는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있어서의 랑만주의적 요소에관한 므·고리끼의 발언의 의미를 리해치못하고 브·밸리크는 쏘베트미문학(美文學)의 방법에 관한 문제의 중심을 랑만주의로 옮기고 사실주의는 날개가없는것이며 자연주의적이며 미래에의 지향과는 무연한것이라고 단언한다。

자기의견지를 론증하면서 그는 낡은 사회주의전(前)문학에있어서는 사실주의와 혁명적 랑만주의는 분리되어있었으며 사실주의의「전문」(밸리크동무는 이렇게「전문」이라고 썼다)은 존재하는것의 류형화(類型化)하였다고 주장한다 랑만주의의「전문」은 미래에대한 전망과 현실에대한 선구(先驅)였으니 왜그러냐하면 사회주의이전시대에는 긍정적 주인공이없었던 까닭이다 따라서 사실주의는 다만「비관적」으로밖에 될수없었고 랑만주의는 사실주의적으로될수없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있어서의 새것 또한 사실주의와 랑만주의의 결합에 들어있는것이다。

「비관적 사실주의의 전문으로되었던것—즉 현실의 다양한 현상을 류형화하며 일반화하는 과업과 혁명적 랑만주의의 전문으로되었던것—즉 현실적발전을 선구(先驅)하며 미래를 전망하는과업이 함께 결합되어서 유일한 과업으로된 거기에 새로운것이 또한 있는것」이라고 밸리크는 썼다(잡지「十월」제二호 一九四八년도발행 一八〇페지) 파거의 문학사에대한 이러한 표현의 희화적(戱畵的)성질에대해서는 말하지않더라도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대한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것은 본질상 번쇄철학적(煩瑣哲學的)이며 형식주의적이다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문제를 설정하는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방법에

있어서의『새로운것』을 낡은 비판적사실주의와 혁명적랑만주의의 단순한결합에 귀착시켜버리는것이기 때문이다. 실례(失禮)의 말이지만 이러한분석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진정한 참신성(嶄新性)을 리해함에있어. 무엇을 기여할수있단말인가? 밸리크가. 자기의 견해를, 쏘베트문학의 구체적현상에 적용하려고 시도할때에. 어떠한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다음의 실례가 보여준다。

잡지『十월』의 一九四八년 제二호에게재된 론문, 가운데서 브·밸리크는 당출판물에서 비판을당한 파제예브동무의 장편소설『청년근위대』의 단점은 어디에 기인하느냐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이소설의 근본적 단점은 작자가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있어서의 당의역활을 명시하지않았고 후방에서 볼쉐위끼적 지하활동에서의 독일인을 반대하는투쟁의 용감한조직자들—전형적 볼쉐위끼들의 형상을 제시하지못한점에 귀착하는것이다 작자는 당의 지도가없이 청년근위대원들이 자립적으로 행동할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모든 단점들이 명확한 리유에서 나온것은 분명하다 즉 그것들은 현실의 사실주의적 재현원칙으로부터 퇴각한결과이다 쏘베트의 현실의 표현에있어서 쏘베트사회의 지도적 력량인 공산당의·주도적역활을 표현하지않는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구、조건 즉 현실에대한 충실성을 위반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런데 밸리크동무는 다른견해를가지고있다 그는 이모든것은 이소설가운데 묘사되고있는 주인공들과 제사건의 랑만화가…………불충분한결과라고 생각하고있다。

그는 다음과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예술가로서의 파제예브의 과오는 어데있는가? 「그는 자기의 약간의 주인공들을 너무과도하게 올려세운데있는가 그렇지않으면 그들을 불충분하게 올려세운점에 있는가? 약간의 형상에있어 랑만주의적 요소가 너무 강렬하였던점이나 그렇지않으면 그와반대로 이형상들에있어서 랑만주의적 요소가 불충분하였던점에 있는가?」

—그가주는 대답은 파제예브가「청년근위대원들」보다 퍽 못하게 이 주인공들을 불충분히 랑만화하였다」는것이다

이와같이 우리생활에있어서의 볼쉐위끼들의 지도적 조직적역활을 보여주기위하여서는 주인공들을

랑만화시켜야되는 모양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문제에대한, 전혀 옳지못한 번쇄철학적취급방식 또는 쏘베트문학방법에있어서 기본적이요 주되는것 즉 그 철저한 사실주의의 진실성을 무시하는태도에서 류출하는. 어리석은 결론은 이러하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문제에대한 형식적 추상적 분석방법이 유익한 결과를 주지못할것은 명백하다 우리의 예술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새 문화건설의 산 실천에서 또는 부르죠아형식주의 및 자연주의의 즉 사회주의적 문화와는 무연한 이러한 현상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에서 탄생하였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추상적 개념인것이아니라 쏘베트예술의 우수한 작품들가운데 체현되어있는것이다 우리의 예술비평과 미학리론은 쏘베트예술이 경과한 도정을 개괄하며 생동하는 예술현상위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리론을 수립해야한다。

올바른 발전로선을 위한 날카로운 투쟁으로. 충만된 쏘베트예술의 실천경험과 쏘베트문학사가 명시하는바에 의하면 예술에있어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달성한바 질적으로 새로운단계는 그것이 세계의 혁명적변혁을위한 투쟁 공산주의적 사상성과 당파성으로써 결실된 사실주의라는 점에있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예술적 사실주의의 가장 철저한 최고의형식으로 만드는것이다 쏘베트미학은 공산주의적 사상성과 당파성이 예술적사실주의를 새력사적 단계로제고시키는 힘이라는것을 명시하여야한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또한 사회생활의 원동력 계급투쟁 력사상의 인민대중의역활 정치투쟁의 의의를 볼수있는 력량을 예술가에게 부여하며 자본주의에대한 사회주의의 전세계사적투쟁에있어서의 예술가의지위를 결정하는 까닭에서도 예술적사실주의의 최고형식인것이다。

쏘베트예술의 경험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방법에대한 이 중요한 질적특징을 전적으로 증명한다 우리의예술은 그의 제일보로부터 예술적창작을 공산주의의 고귀한 리상에 복무케한 심원한 사상적 예술로서 발전되어왔다 아·쎄라피모비츠의 작품「철류(鐵流)」드·푸르마노브의작품「차빠옙」프·그라드꼬브—「쎄멘트」아·파제예브—「파괴」브·마야꼽쓰끼—「레닌」「훌륭하다」므·숄로호브—「고요한돈」「개간지」와 같은 쏘베트 문학의 최초의 우수한 작품들은 사상성·그 공산주의적 경향성 어

데까지나 진실한 현실묘사와 사상성의결합으로 뛰어났다 쏘베트문학은 죽어가는 부르죠아지의 무사상적이며 부패하여가는, 퇴폐주의적 예술에대하여 과학적사회주의의 고상한사상을 예술적언어가운데서 표현하고 체현시키는 새로운예술을 대립시켰다。

쏘베트문학의 전 발전력사는 현재 그 불가분적인 결정적 특성으로된 공산주의적 사상성의 장성과 공고화의 력사였다 최근 몇해에 출현한 쏘베트문학의 작품들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예술의 이 중요한 특성이 일층발전 공고화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므·부베노브의작품 『흰벗나무(白樺)』 쁘·빠블렌꼬—『행복』 브·빠노브『동행자』 쁘·뽈레보이의『진정한인간에대한 소설』 쓰·바바옙쓰끼의『황금별의 훈장을받은 용사』 아·네도고놉의『농촌쏘베트위에 휘날리는 기빨』 까사께비취—『별』 기타 이러한작품들에 표현되어있다。

공산주의적 사상성은 쏘베트예술을 특징지으며 그것을 세계의 가장 선진적예술의 수준에 향상시키는 그러한 주요하고 귀중한 특질이며 예술비평과 미학리론은 이특질의 발전을 각방면으로 조장하여야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예술의 높은 사상성은 쏘베트국가의 사회생활제도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쏘베트사회와 쏘베트사람들의 생활은 사상적인 면이 크다 쏘베트사람의 로력은 의의있는 로력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사상으로 지도되며 고무된다 쏘베트국가와 공산당의 일보일보는 공산주의사회 건설에대한 거대한 과업에 종속하고있다 공산주의 건설은 사회주의세계와 자본주의세계간의 투쟁 즉 새것과 낡은것 산생되는것과 죽어가는것사이의 투쟁을 로대로하여 발전하고있는것이다。

전세계사적 의의를가진 이투쟁은 부르죠아적 몽매주의를 반대하는 공산주의적 사상성의 투쟁에 반영되어있다 어떤사회나 어떤국가도 과거력사에있어 쏘베트사회나 국가처럼 긴장되고 강렬한 사상생활을 알지못하였으며 또는 알수도 없었던것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예술의 사상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쏘베트예술가는 자기의창작을 인민의 생활을 진정으로 인간적이며 행복한 생활로 만들기위한 사회의 공산주의적 재건설을 위한 투쟁의 도구로 본다는것을 의미한다 그의 작품의 근저(根柢)에는 현실을 반영할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하고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켜주며 사람의 의식과 사유(思惟)에 방향을주며 사람을 공산주의적 도덕의 정신에서 교양하는 사상이 놓여 있는것이다 이러한 사상성을 가지지못한 작품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예술과는 무연한 것이다。

더 나가서 사상성은 쏘베트사회와 쏘베트사람의 높은 사상적 수준이 쏘베트예술가의 작품가운데서 완전히 반영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잘아는바와같이 우리 쏘베트혁명의 최대의 성과는 쏘베트사람들의 새로운정신적 풍격(風格)이다 쏘베트사람의 특질적인 특징으로되는것은 그의 항상 자라나가는 자각이며 무한히 확대되며있는 정치적및 문화적 시야이며 심원한 애국주의이며 사업에있어서의 창조적정신이며 개인적 리해와 사회적리해간의 련결에대한 리해(理解)들이다。

잡지『十월』제六호에는 금년도의 유명한 트락또르운전수 바사·안겔리나의『끌호즈농장의 사람들』이라는 수기(手記)를 게재하였다 이수기에는 낡은 세계가 모르는 새선진적 녀성농민의 모양이 그려져있다 끌호즈회원은 새기술과 농업과학을 알고 있다 그의로력은 토지의 생산력의 향상을위한 새방법의 창조적 탐구이며 그는 정치와 예술에 관심을 가지며 전국가의 리해로써 살아간다 이것은 심오한 사상적·내용으로 충만한 생활을 의미한다 쏘베트예술의 사상성은 쏘베트사회와 쏘베트사람의 생활의 이사상성의 반영으로도 되지않으면 안된다。

끝으로 사상성은 예술가가 자기 작품의 형식을 혁명에서 태어난 새사람 새로운 정세와의갈등 수백수천만사람의 자산(資産)으로된 새사상을 표현하는 과업에 복종시키는것을 의미한다 즉 이길에서 쏘베트예술의 새형식이 탄생하는것이다。

예술에있어서의 친정한 혁신적형식—이것은 사회생활의 새로운내용의 가장 충실하고 또한 정확한 표현수단으로 되는 형식이다 예술에 있어서의 형식은 막대한 의의가 있다 형식이 완전하면 할쑤록 작품의 사상은 더욱 풍부히 표현되며 작품은 사람에게 더욱 힘있는 작용을 준다 그러나 형식은 자기만족적인것이 아니다 그것은 작품의 내용과 사상의 표현에 종속한다 이때문에 예술의 사상성은 작품의 모든 형식적방면—주제구성(主題構成) 작곡(作曲)음률(音律)색채(色彩) 음성(音聲) 등 사상을

옳게 또는 깊히 전하며 또 현실을 옳게 반영하는데에 방향을 가졌을때에 있어서의 사상과 또는 내용에대한 형식의 의존성인것이다。

이렇기때문에 쏘베트예술가들의 사상성은 작품에, 대한 훌륭한 현실적주제의 선택에 국한하지않는다 화가는 자기 그림에있어서 지금 쏘베트국가에 흔히있는 공업의 풍경의 하나를 그릴수있다 그러나 만일 그림이 공장이나 일군(一群)공장을 사진처럼 재생시키되 우리국가의 공업의 위력을 감촉케 못한다면 또 만일 우리가 그림의 감상에있어 사회주의적 로력에대등하여 시취(詩趣)를 느끼지못한다면 그의 그림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않을것이다。

이렇기때문에 사상성과 형식주의 혹은 자연주의는 량립할수없는 것이다 형식주의자에게는 형식이 전부이고 사상은 아무것도아니다 자연주의 이것은 즉 형식주의를 뒤집은것이다 자연주의는 현실의 무사상적 복사이다 그의 목적은 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이 아닌것으로부터 필연적인것을 우연한것으로부터 분리 할줄을 모르는때에 예술가의 시야(視野)에 들어오는것을 전부 감각없이 조사하는데 있다 자연주의자는 현실의 본질속으로 침투하여 선진사상으로 현실을 해명할줄 모르고 대상과 복사와의 피상적 류사(類似)만을 피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가장「정확한」묘사조차 진정한 내용을 상실한 빈(空)형식으로 되는것이다 자연주의는 그렇기때문에 형식주의처럼 사상없는것이다。

어째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예술의 결정적 특징은 그의 사상성인가하는것은 상술한 것에의하여 명확히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사상적 및 철학적기초는 현재뿐아니라 미래도 볼수있는힘 생활을 그의발전과 부단한 정신가운데서 관찰할수있는힘을 쏘베트예술에게 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부단히 새것이 탄생한다 금일에 만들어지는것은 쏘베트사람의 물질적 정신적 력량의 더큰 비약을위한 기초를 준비하는것이다 쏘베트사람의 특징적 특성은—현재와 미래를 련결할수있는 기능 미래에의 지향. 새것과 또는 새성과를 획득하려는 희망등이다 이것은 이미 창래에대한 낡은 공상이아니라 공산주의로 인도하는 길에대한 명확한 리해 또는 공산주의적 리상의 실천을위한 영웅적투쟁이다。

제一차 전동맹작가대회에서 즈다노브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견고한 유물론적 기초에 립각한 우리문학에 있어서 랑만주의는—그러나 이것은 새로운형태의 랑만주의 즉 혁명적 랑만주의를 말하는것이다—무연(無緣)한것일수없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쏘베트 예술 문학의 또는 예술 비평의 근본적방법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혁명적 랑만주의는 문학 창작에 그 구성 부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한다는것을 예상(豫想)하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당의 전생활 로동계급의 전생활과 그 투쟁은 가장 엄격하고 가장 건전한 실지사업이 최대한 영웅적정신 및 웅대한 전망(展望)과 결합하는데에 있는것이기때문이다』

—예술가가 주위세계를 사실적으로 그리면 그릴수록 그는 현실을 그것에 고유한 부단적운동과 경신가운데서 보다 심오하게 보다 정확하게 보여준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방법을가지고 쏘베트사회의 생활을 표현하는 예술가는 미래를 볼수있는 전망대(展望台)에 있는것으로 이것은 그의 시야를 비상히 확장시키며 새로운것의 싹가운데서 발생하며 발전하는것의 아직 잔약(孱弱)한 어린가지 가운데서 미래가 누구의것인지 볼수있게하여주며 따라서 이 미래를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있게하여준다。

이것은 랑만주의를 론의하는 약간의 비평가가 요구하고있는 현실에대한「장식」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것이다 쏘베트의 현실과 쏘베트사람들은「장식」을 요구하지않는다 쏘베트예술의 혁명적랑만주의는 영웅적인 오늘에의하여 더 거대하고 명확한 래일을 예상시키며 또한 따라서 이래일을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현실에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고리끼는 쏘베트작가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현재로부터 미래를 관찰할줄알기위하여서는 현실을 광범위로 파악하여야하며 그것을 심각히 인식하여야하며「그속으로 깊히 들어가야」한다 그는 작가들에게「세가지현실」즉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야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고리끼는 사회주의적 현실에있어서의 혁명적 랑망주의의 요소에 대하여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작가는 인민을 천진시키며 오늘날의 위대한 성과에 의거하여 쏘베트인민과 쏘베트사회의 더욱 위대한 미래를 생동하는 화면가운데서 발현시켜야한다고 가르쳤다。

로동이 차지하는 지위도 포함되어있다 세계예술사상 최초로 로동이 예술작품의 주인공으로 되었다고 당당히 말할수있다 이것은 당연한일이다 쏘베트국가의 사회제도자체에 있어서 수백만사람의 자유로운 창조적 로동은 생활의 주인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이것의 반영으로서 사람의 로동 자유로운 새로동이 사람의 심리 그 도덕관념 그의 물질적 정신적 은생활에 주는 영향은 쏘베트 예술의 가장 중요한 테마의 하나로 되고있다 고리끼는 쏘베트 예술의 이러한 새로운 력사적 특성을 특히 강조하고 작가들이 이것을 완전히 인식할것을 요구하였다「대대로 타인의 로력에 의하여 생활하는데 습관이되었으며 전승(全勝)의힘 즉 로동의 힘을 선천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것와같은 태도를 문화사에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술활동가들을 고리끼는 날카르이 비난하였다「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로력이 해놓고있는것이 전혀 기상천외(奇想天外)의 믿을수없을만한것이기때문에 특히 이것은 우리나라에있어서 명백한 사실로 되어야할것으로 생각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낡은사회의 로력자들에있어서는 로동은 저주로운것 형[illegible]으로 되어 있었다 만약 약간의 작가들 례를들면 졸라가「제르미날」이라는 자기작품가운데서 사람들의 육체로동을 그렸던것이라면 그것은 주로 인간을 불구자로 만드는 그의 영향의 면에서 표현하였다。

르 톨쓰로이의 작품 례를들면「안나 까레니나」에서 우리는 농민의 로동을 귀족계급들의 기생성(寄生性)과 대립시켜서 훌륭히 묘사한 페지들을 볼수가 있다 그러나 톨쓰로이는 자기의종교적 도덕과 철학에 유리하게 족장적 농민의 로동을 리상화(理想化)시켰다 위대한 프로레타리아 작가 고리끼는 로동의 표현에 있어 새것을 기여하였다 고리끼는 강제로동에서도 미(美)의 요소를 관찰할줄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유로운 창조적 로동이 사람에게 줄수있는 미와 희열(喜悅)을 강제로동이 죽여버린다는것을 말하였으며 또 자기의 작품가운데서 이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은 노예로동의 족쇄를 분쇄하였으며 인간의로동을 해방시켰다 처음으로 수천만 사람은 이 로동이 자기와 자기 인민을위한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자유로이 로동하게되었다。

쏘베트 미학은 과거의 예술에 비하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되는것은 그 혁명적 성격이라는것을 명시하여야한다 쏘베트 예술가로부터 요구되는것은 공산주의를위한 인민의 투쟁에 적극 참가하는것이다 예술의 방법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에 적극작용하는것이며 그들을 사회주의 정신으로 또는 열렬한 쏘베트 애국심의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쏘베트 작가들을 인간정신의 기사라고 칭하였다 제一차 전동맹대회에서 통과된 쏘베트 작가동맹규약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현실에대한 진실한 력사적 구체적표현을 사회주의적 정신으로 로력자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며 교양하는 과업과 결합시키는것으로 규정되어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예술의 이 특성은 쏘베트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예술의 새로운 지위에서 류출한다 예술은 우리나라에있어 전인민적 사업의 일부분으로 행복한 새생활을위한 전인민위 투쟁의 도구로되었다 세계의 훌륭한 예술가들은 예술이 인류사회 생활에있어 이런 큰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게될 시대를 꿈꾸어왔던것이다 그런시대가 닥쳐왔다 예술가는 이제는 고독(孤獨)한 사람이아니다 그는 인민의앞에서 책임진다 인민은 그의 말을 기다리며 인민은 그의 작품을 평가한다 현실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예술가의 작품들은 생활의 진정한 교과서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예술가가 인민의 의식속의 낡은 모든 잔재를 반대하는 투사로될것을 요구하며 심리 세태(世態) 또는 사람의 사회생활에있어서의 자본주의적잔재를 극복하기위하여 투쟁할것을 또한 요구한다 이와같이 우리의 미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방법의 근본적요구가 공산주의적 사상성과 당성의 립장으로부터 현실을 그의 혁명적 발전속에서 심각하게 진실하게 사실적으로 묘사(描寫)하는것이다 또는 쏘베트 사회의 전진 즉 공산주의의 위대한 원칙실현으로의 전진을 방해하는 모든것과 투쟁하는 목적을가지고 새세계 건설과정에대한 예술의 적극적 참가를 자기의 과업으로하는 묘사이라는것을 명시하여야한다。

× × ×

쏘베트 사회주의 예술의 새성격이 발현되는 그 중요한 특징들중에는 그것이 그리는 사회생활에서

로동은 우리나라에있어서 명예로운일 영광스러운일 용감하고 영웅적인 일로되었다.

로동에대한 인간의관계 우리사회의 로동자체의 성격상 일어난중대한 변화는 쏘베트국가에 있어서의 로동은 더욱더 창조력으로 화하고있다는 점에 있는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있어서는 생활과 로동은 호상배제하는 개념으로되어있다 쏘베트사회에있어서는 로동은 인간의 생활로 되였다。

호주(濠洲)의 잡지기자 아·멘제르는『저녁 여섯시부터 자정까지』라는 책을 집필하였다 이 책가운데서 그는 외국에서의 사람들의 생활을 그리어냈다 그는 그들이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등을 이야기해준다 책 제목부터 벌써 상징적이다 부르죠아적 사회의 인간생활은(물론 대중을 말하는것이다) 저녁 여섯시로부터 시작된다 아침으로부터 저녁까지의 생활은 생활이아니다 이것은 로동이다 『우리의 대다수에게 있어서 낮은 로동에 생계(生計)를 세우는데 가버린다 현대 생존조건하에서는 대다수의 사람에게있어 로동은……무의미한것 또는 목적없는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다만봉급을 위하여 또는 보수금을위하여 로동한다는것을 그자신이 알고있다 우리중에서 몇이나 이러한 자기로동을 귀중히 여길것인가? 몇이나만일 말하자면 十만폰드를 벌었다면 로동을 계속하려고 할것인가? 로동은 전쟁시기에만 어쨌든「전선을 위하여」로동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떤의의가 있다 물론 이것은 로씨야에있어 큰의의가있다 거기에서는 몇백만 사람들은 그들의 로동은 새세계건설을 위한 집단적로력의 한부분으로서 새로운의의를 띠우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또 멘제르는 자본주의적 조건하에서 사람들의 생활은 로동한후부터 시작된다고 결론을 짓는다 그러나 이생활 역시 그가 보여주는 바와같이 빈궁하다 그런데 그는 쏘베트사회를 특징짓는 그 세것을 정당하게 관찰하였다 여기에서는 로동이 생활로 되였다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창시자 고리끼의 작품중에는 이미 로동과 로동해방을위한 투쟁은 그의 창작의 라이트 모티—브로 되어있었다 쏘베트 예술문학은 많은 작품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자유스러운 로동을 노래하였으며 로력영웅의 선명한형상을 표사하였다。

쏘베트 예술의 이 새로운 특징이 반영되어있는 첫

째작품인 프·그라드꼬호의「쎄멘트」로 시작하여 므·사기난의「기드로첸트·랄이」야·일린—「큰 콘때야」브·카타예브—「때는 앞으로」유·크릴노브—「유조선(油槽船)」「젤벤트」등 기타 이러한 작품들을 경유하여 이 새로운 특징이 일관하게 관통하고있다 전쟁후에는 인민경제 복구와 장래발전을위하여 투쟁하는 로동자 끌호즈니크와 쏘베트지식계급의 로동의 창조적 성격이 힘있게 표현되어있는 작품들이 출현하였다 빠브렌코의 작품『행복』빠노브—『크루실리하』등 기타 작품들을 이런 작품이라고 칭할수있다 이 작품들에 있어서 쏘베트인민의 로동은 사변이 연출되는 전반적 배경으로만 되는것이아니라 쏘베트사회의 생활을 개조하는 힘으로 된다。

로동은 쏘베트인민의 창조적 활기의 근본형태로서— 인간자체와 그의 생활에 대한 견해 그의 세계감각과 다른사람에게대한 관계등을 변화시키는것으로서 표시되어있다。

유감스러우나 우리 화가들의 그림에서는 로동과 로동하는 사람이 적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쏘베트로동자들의 로력에대한 영웅심 사회주의경쟁 끌호즈니크와 인테리들의 로력적 위훈은 회화의 표현력의 발전을위하여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고있는것인가! 그러나 쏘베트사회주의적 로동의 환희와 감격을 선명하게 반영한 작품은 전람회에 아직 드물다。

최근에 있어 미술가 아쿠쁘리나의 미술전람회가 있었다 이 화가의 우점(優點)을 지적하여야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업풍경을 자기 그림가운데서 묘사하는 많지않은 화가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의 그림들은 본질적인 결점을 가지고있다 이것들은 사상과 리념을 담고있지못하며 사진과같다 로동을 특히 단독자가 아니고 공산당에 의하여 조직된 유일한 의지와 목적으로 단결되였으며 수백만사람들의 로동이 쏘베트 예술의 근본적 테마의 하나로 전변하는것은 많고많은 미학상의 낡은사상과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고있다 낡은 예술에비하여 우리의 예술에있어서 다른것은 주제 등장인물 극적갈등등이다 예술적 작품에있어서의 주제와 사전은 낡은 문학작품의 절대다수에 있어 전형적인 가정소설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나왔다 그것들은 그 성격에있어서 또는 그 규모에 있어서 다르게

되었다 이 작품들가운데 묘사되어있는 사건들이전 인민이 참가하고있는 수대한 사회적 과정과 련결 되어있는 사건과 그 가운데서 전개되는 갈등과 투쟁은 낡은 착취제도의 근본적 변혁과 새공산주의 세계의 창건을 위한 전세계사적 투쟁이다 이런 의미에있어 쏘베트 예술은 진실로 혁신적이며 또한 쏘베트 미학리론은 여기에 광범한 활동분야를 가지고있는것이다.

쏘베트 미학의 본질적 문제중 하나는 예술의 인민성에대한 문제이다 가극 「위대한 친선」에 관한 전동맹 볼쉐위끼 공산당중앙위원회의 결정서에와 문학과 예술에 대한 기타 결정서에는 예술의 인민성에 관한 문제가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공산당은 어떠한 예술작품의 평가에 있어 쏘베트 사회주의 예술의 중요한 특점은 그의 인민성이라는데로 부터 출발한다 당은 형식주의와 각종의 부르죠아 퇴폐과적 예술형식들을 바로 그 반인민성때문에 그것들이 그 내용에있어 인민에게 적대적이며 그 형식에있어 인민과 두연한것이기때문에 비난한다 쏘베트의 맑쓰주의 미학과 예술비평은 인민성에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위대한 로씨야혁명적—민주주의적 비평가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리용하며 발전시켜야될것이다.

예술에있어서의 인민성이라는것은 무엇이냐 하는 심원한 정의를 우리는 체르늬셉쓰끼에게서 발견한다 「실제에 있어 미(美)문학에 대한 인민성의 충분한 영향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국한되는가?고 그는 질문한다.

1, 어떤 대상에대하여 문학이 돌리고있는 주의의 정도는 이 대상이 인민생활에서 가지고있는 중대성의 정도와 상응하는것이며

2, 예술작품의 형식은 완전히 인민적이되어야한다」 이 규정속에는 예술의 인민성 즉 내용의 인민성과 형식의 인민성의 확실히 가장 중요한 특징이 포함되어있다 예술의 내용의 인민성은 예술가가 표현하는 대상이 인민과 인민의리익을위하여 가지고있는 중요성의 정도와 상응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전부는 아니다 그외에도 또 작품의 예술형식이 인민적이 되어야한다 즉 인민이 리해하기 쉬운것으로 현실을 가장 완전히 또는 심각히 밝힘을 도와주는것으로 사실적인것으로 되어야한다.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로씨야비평가들은 인민성과 사실주의개념을 밀접히 련결시키었다 인민성은 그들에게있어 내용상으로나 또는 형식상으로나 예술의 사실성에대한 요구인것이다.

예술적 사실주의는 벨린쓰끼 도브로류보브및 체르늬셉쓰끼의 견해에 의한다면 현대의 당면문제로부터의 온갖 회피 그것으로부터의 구름속으로의 도피 인민의 리익의 망각등을 적대시하는것이다 四○—六○년대의 위대한 로씨야의 비평가들이 그렇듯 심오하게 천명하고 기초지은바 예술의 인민성과 예술적 사실주의사이의 련관을 강조하는것은 오늘날에있어 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그 영향과 싸우고있는 현대 부르죠아의 예술에있어서 반사실주의는 그의 반인민적반민주주의적 성격의 표현이기때문이다.

사실주의와 인민성간의 이관계는 파리 꼼무나의 참가자인 불란서의 유명한 혁명적 미술가 쿠르베가 훌륭히 표현하였다 그는 「사실주의는 민주주의적 예술이다」라고 말하였다.

쏘베트 음악에 있어서의 형식주의적 경향을 규단한 전동맹공산당 (볼쉐위끼) 중앙위원회결정서는 형식주의를 예술에있어서의 반민주주의적 반인민적 방향이라고 규정하였다 결정서에는 형식주의자들이 학생청년들에게 「인민창작과 민주주의적 음악형식에대한 기호(嗜好)」를 교양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지적되여있다 전동맹 볼쉐위끼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서 전문(全文)은 쏘베트 음악을 심오한 인민적 사실주의적 예술 즉 그 가운데서 인민에게 중요한 사상적 내용이 완전한형식과 리해의 용이성과 민주성과 결합되는 예술의 방향으로 나가게 하려는 의향으로 가득 차있다 예술의 인민성에관한 문제를 연구함에있어 쏘베트 맑쓰주의 미학은 인민성이란 즉 력사적인 범주(範疇)라는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수없는것이다 쏘베트사회주의 예술에 있어서의 인민성은 낡은 예술— 그중의 가장 선진적인 예술까지라도 —의 인민성과는 다소 다른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시기이래 인민의 생활조건 인민자체가 다른것으로 되었으며 또한 「인민」이라는 개념이 새사회적 의의로써 가득채워졌기때문이다.

맑쓰주의적 미학은 예술의 인민성에 관한 문제

를 고구(考究)함에 있어 예술에 관한 레닌과 쓰딸린의 발언에 또는 이 문제에대한 매우 선명하고도 정확한 교시를 주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결정서에 의거한다。

클나라 쳇드낀과의 담화가운데서 말한 레닌의 주목할 말을 상기하자、

『예술은 인민에게 속한다 그는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자기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한다 이것은 이대중에게 리해되어야하며 또는 그들의 사랑을 받아야한다 그는 이대중의감정 사상 및 의지를 통일시키며 그들을 제고 시키어야한다 그는 거기에서 예술가들께 각성을주며 그것을 발전시키어야한다」

、이말가운데는 예술의 인민성에관한 문제에대한 맑쓰주의적 미학을위한 완전 두결한 강령이 포함되어있다。

쏘베트 예술의 인민성에 대한 개념은 명확한 사회적 내용을가지고있다 예술을 사회의 공산주의적 재건을 위한 인민의투쟁의 강력한 도구로 만드는 사회주의적 인민성에 관한 문제는 여기에있다。、이것은 즉 쏘베트 예술이 인민의 감정 사상 의저를 결합 시키며 인민을 사회주의 의식의수준에까지 제고시키며 사람의견해 또는 풍습속에 남아있는 각종 자본주의적 잔재와의 투쟁을 진행함을의미한다 이사회주의적 목적지향성에 쏘베트 예술의 거대한 우월성이 있는것이다。

쏘배트 예술의 인민성은 그것이 현대 진보적 인류의 선봉에서 나가고있는 쏘베트 인민의긍지(矜持)의 쏘베트애국주의의 심원하고도 고귀한 감정 사회주의 조국에대한 사랑등을 쏘베트사람들 가운데서 앙양시키교 발전시키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쏘베트작가가 무엇을 썼던간에 쏘베트미술가 작곡가가 자기의 작품에서 어떠한 테마를 구현시켰던간에 이 창작물의 의의는 이 작품이、쏘베트나라에서 조성되고있는 위대한 모든것을 인식하며 공산주의를 위한 인민의 전반적 투쟁에 자기의 기여를 제공하기에 준비된 쏘베트 애국자 즉 투사를、인간으로서 얼마큼 교양하는가에 의하여 파정되는것이다。

쏘베트예술의 인민성은 예술적 작품의 주인공의 변화를 역시 의미한다 려자무대에는 새로운 주인공 즉 사회주의적 현실을 적극적 자각적으로 창조하여있는 로동계급 근로농민 인민이 출현하였다

이전에는 근로인은 예술에있어서 삽화적(挿話的)인물이였었다 현재에는 그는 중심 등장인물로 되어있다 예술에 있어서의 변천은 현실 자체에서의 변천을 반영하는것이다 제一차 꼴호즈돌격대원대회에서 쓰딸린동지는 『묵묵히 공장 탄광 철도 꼴호즈 쏩호즈를건설하며 생활의 모든 복리를 창조하며 세계를먹이며 입히는 로동자와 농민—새생활의 참다운 주인공이며 창조자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였다 형식의 령역에있어서 사회주의적 인민성이라함은 단순성과 명료성 및 대중을 위한 평이성과 결합되는 예술적 표현 고도의 완벽성을 의미한다 레닌은 예술은 대중에게 리해되어야된다고 말하였다 즉 이러한 견지에서 전동맹볼쉐위끼공산당중앙위원회의 결정서는 예술에 있어서의 형식주의적 의곡을 비판하는것이다。

이미 一九二五년도에 문학에 관하여 채택된 우리당중앙위원회의 결정서에서 쏘베트예술이 나갈 명백한 진로가 지적되었었다。

즉『당은 진정한 대중적 독자인 로동자 농민을 위한 예술적 문학을 건설해야할 필요를 강조하여야하며 문학에있어서의 특권적 편견과 용감히 또는 결정적으로 결별하여야하며 낡은 예술가능의 모든 기술적성과를 리용하여 수백만인이 리해할만한 적당한 형식을 작성하여야한다』

이 원칙은 가극『위대한 친선』에 대한 전동맹볼쉐위끼공산당중앙위원회의 결정에서 전개 되고있다 거기에는 약간의 쏘베트작곡가들이『인민을 위하여 쓸것을 망각하고있다』는것과 또는 쏘베트음악의 방향은『음악에 있어서 고도의 내용성과 음악형식의 예술적 완벽성과의 배합 음악의 진실성과 사실성 인민 또는 인민의음악 및 가요창작과의 그의 깊은 유기적련관 음악작품의 단순성과 리해의 용이성을 동반한 고도의 전문적 숙련등』이라는것이 지적되어있다。

과거의 선진적 고전예술의 인민성은 인민적창작 전설 민요 노래 이야기 풍부한 인민의 언어등의 광범한 리용에 의거한 것이었다 여기에대하여 고리끼는 많이 언급하였는데 그는 쏘베트 예술가들에게 그들이 인민적창작의 보고(寶庫)를 최대한도로 용감하게 리용 할것을 요구 하였다 쏘베트예술에있어 형식주의적 경향의 반인민성은 이러한 창작으로부터의 의식적 퇴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음악에대

한 전동맹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서는 지적 하였으며 극작가들의 인민의 언어에대한 불충분한 지식에 관하여서는 극장레퍼토리에관한 중앙위원회의 결정서에서 지적되어있다 쏘베트 미학은 예술일군들에게 쏘베트 — 예술의 인민성에 관한 문제와 같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대한 심오한 리해력을 주어야한다。

× × ×

약간의 비평가와 예술학자들중에는 예술에 있어서 민족주의적인것과 국제주의적 인것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옳지않은 또는 본질에 있어 반맑스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 견해의 본질은 국제주의는 인민들의 민족적 특성을 무시하는것으로 해석하는것이다 이 비평가들의 견지에 의하면 세계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며 풍부케하는것은 인민의 리익과 관련이 없는 초(超)민족적인 문제를 작품속에서 제기하며 또 해명함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견해들의 근저에는 부르조아적 원천에서 빌려온, 예술에 대한 반맑스주의적 취급방법이 가로 놓여있다 약간의 쏘베트 예술사가(藝術史家)들은 로씨아 문학과 음악의 발전법칙에 관하여 론함에있어 민족적 특징과 이과정의 독자성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여사한 취급방법을 과학적으로 가장 현명한것으로 보고있다 로씨야 예술의 발전과정의 본질전채를 그들은 다른나라 예술의 차용물(借用物)에 귀착시키고만다 그들은 예술이 철학과 과학및 기타의 사상형태와 같이 어떠한 국가에 있어서든지 무엇보다 먼저 사회생활의 내부적발전의 요구를 기초로하고 그 국가에서 진행되고있는 계급투쟁에서 자라나게된다는 그 국가의 사회적 관계와 력사발전에서는 그 민족의 발전이 가지고있는 특징을 고려함이 없이는 예술사를 리해할수없다는것을 알지도 못하며 또 알려고도 하지않는것이다 그 실례로는 「로씨야 음악 문화사에관한 개요와 자료」 라는 제목하에서 발간된 쏘베트 음악사가 트·리바노바의 저서를 들수있다 이 책의 저자는 로씨야 음악의 발전과정에있어서의 기본적인것은 서구라파와의 음악과의 류추(類推)의 발견과 로씨야음악에대한 외국음악의 영향의 확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서구라파예술과의 류추를 허용한 그 측면 그 현상들보다도 로씨야 음악문화의 독자성이 [illegible] 훨씬 커께이 지적되어왔다」

만일 트·리바노바가 로씨야 음악의 발전에 있어서의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아주 「독창적」 방법으로 특징짓는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씨야음악문화 발전의 상대적 특징은 독일어사용국가들의 음악발전행정과의 류추를 가장 손쉽게 발견할수있게해준다 一九세기에 이르기까지에·로씨야음악문화(창작이 아니다)의 력사는 불란서와 이태리의 음악문화의 력사보다 독일의 력사와 더 사사한 점이있다」 모든 문제는 상사와 류추를 확정하자는것에있다 리바노바의 연구방법론은 여기에 귀착된다 그러나 이것은 웨쎌롭쓰끼학파의 자유주의적 부르죠아적 방법론이다 리바노바 자신이 자기의 방법의 전거(典據)로써 웨쎌롭쓰끼를 인용하고있다 「비교력사파의방법과 태도는 로씨야문화사 과정을 독자적인것으로 보는 견해에 정반대되는 견지를 증명하는데에 그방향을 가졌던것이다」고 작자는 진술하고있다 다른일부의 연구자들과 예술사가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과업을 리해하고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계문화』의개념은 민족문화의 개념을 배제하며 민족문화는 잘해야 『특수성』의 령역이나 분담받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부르죠아적 교쓰모뽈리즘의 견지로의 이행인 것이다 그근저에는 사회의 력사발전의 진정한 법칙에대한 완전한 몰리해가 놓여있다 내용에있어 사회주의적이며 형식에있어 민족적인 쏘베트 문화의성격에 관한 레닌 및 쓰딸린의 제로작은 문화에있어서의 민족적인것과 국제적인것의 상호관계에관한 문제의 옳은 해결을 위한 근본사상을 쏘베트 미학에 주는것이다。

세계문화는 개별적인민의 민족문화의 밖에 또한 그 위에 서있는 어떠한 특별한 자립적 문화가 아니라는것을 레닌과 쓰딸린은 교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언제든지 없었으며 또는 있을수 없다。

세계문화는 제민족문화의 성과로부터 구성되며 또는 형성되는것이다 각인민은 자기문화를 민족고유의 특수성의 범위내에서 발전시키면서 선진적 세계문화의 공동보고에 자기의 기여를 이바지하는것이다。

쓰딸린동지가 제시한 민족에 관한 규정은 주지하는바다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민족은 「언어 지역 및 경제생활 심리상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발생된 력사적으로 형성된 견고한 사람의 공통성」

이다。

민족이 존재하고 있는한 민족문화도 존재한다는것은 여기로서부터 나오는것이다 민족 또는 개별적 민족문화의 구별을 모르게되는 공산주의사회의 미래의 세계문화는 사회주의의 기초위에서 여러민족문화가 완전히 발전된 결과로 될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문화의 민족적 특성을 무시하면서 공산주의적 국제주의적 문화운동은 민족적전통 언어 기타를 강압적으로 배제말살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야 된다고 생각한 자들게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였다。그들은 유일한 세계공산주의 문화에로의 진전의 길에관한 문제를 천재적으로 연구하고 이 길은 형식에있어서 민족적이며 내용에있어서 사회주의적인 문화의 최대한도의 발전을 걸쳐서 통하여져있다는것을 명시하였다。

쏘련에있어서의 문화발전의 경험은 민족적인것과 국제적인것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러한 리해의정당성에 관한 반박할수없는 증명으로 되는것이다 어떤 민족 어떤 인민이 다 각각 자기의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있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형태의 다민족국가인 쏘베트국가에있어서는 내용에있어 사회주의적인 예술의 발전은 민족적 예술형식에서 실현된다 쏘베트국가의 인민들은 각각 쏘베트사회주의 예술을 부흥시키며 전진시킨다 또 이 예술은 우리인민들에게 있어 쏘베트의 민족적 긍지감을 교양하며 각성시키며 또한제고시킨다 민족적인것과 국제적인것간의 상호관계에대한 맑쓰레닌주의의 근본사상은 쏘베트 미학에있어 아직 충분히 연구되어있지않다 이로말미암아 일부 쏘베트예술의 리론가 및 실천가의 머리에 유해한 혼돈을 일으키게되어 이들은 맑쓰주의적 국제주의개념을 부르죠아적 꼬쓰모뽈리찌즘으로 바꾸어놓고있다。

여사한 견해의 반 맑쓰적 성격을 폭로시키면서 즈다노브동무는 쏘베트 음악의 활동가들의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쏘베트 동맹의 구성에 가입한 쏘베트인민들의 음악과 또는 그와 동일한 로시야 음악같은 민족적 음악의 번영은 예술에 있어서의 국제주의의 어떠한 폄하(貶下)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예술에 있어 국제주의는 민족적예술의 폄하와 빈곤화(貧困化)를 기초로하여 발생하는것이아니다 그와 정

반대로 국제주의는 민족적예술이 번영되는 그곳에서 산출되는것이다 이 진리를 망각하는것은—지도적 로선과 자기 특색을 상실하고 정체 모를 꼬쓰모뽈리스트로되는것을 의미한다」부르죠아 꼬쓰모뽈리찌즘은 현재 조건하에서 자기의 반동적 본질을 가장선명하게 표시한다 미국 영국 제국주의는 유로빠의 제국가의『련합』그들에게대한『원조』와 기타등에대한 기치하에서 인민들의 민족적 또는 국가적 자주독립을 파괴하고 이들을 예속시키려고 시도하고있다 현대 부르죠아의『꼬쓰모뽈리쓰트』들은 전민족적 문화들을 딸라 일색으로 물들이려고 활동하고있다。

쏘베트미학의 과업은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에대한 문제를 예술에 적용하여 강구하는것이다 쏘베트미학은 자기의 리론적 무기고안에 예술창작의 맑쓰주의적 분석의 유일한 옳은 방법을 지시하는르·톨쓰토이에관한 레닌의 론문과같은 예술가의 창작의 구체적 분석의 천재적 모범을 가지고있다 레닌이 이위대한 로씨아작가의 창작이가지고있는 세계적 의의와 그것이 세계적 예술에있어 취한 전진을 본것은 그가 인민을 격동시키는 제문제로부터 도피한 점에있어서가아니다 그와 반대로 레닌은 이위대한 작가가 전인류의 예술발전에있어 진일보한것은 즉 그의 천재적 작품가운데서, 로시야에 있어서의 「혁명의 준비시대」가 표현을얻었기때문이었다고 생각하였다 작가는 지주와 자본가들의 착취를 반대하는 수천만의 로시야 농민들의 항의를 힘차게표현하였다。

톨쓰토이는 극히 민족적이다 즉 이것은 그의 세계적 의의를 저하시키는 것이아니라 그와 반대로 그의 창조력을 설명하는것이다。

예술발전의 법칙에 대한 설명에있어 거대한 리론적 고처(高處)에 올라설수있은 벨린쓰끼와 체르늬쉡쓰끼는 로시야의 민족예술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여기에서 그의 세계적 의의가 장성할담보를 발견하였다、그들은 자기인민들의 운명을 랭정하게 보는 그런 작자들과 인민을 위한 사활적문제에 자기 주의를 돌리지않는 작가들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사실주의에대한 자기의 개념속에 민족적 모멘트를 포함시켰다 그들의 견지에의하면 그것이 없는 생활을 반영하는 진실한 예술로 되지못하며 자기의 현실적 본질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쏘베트 예술은 자기의 민족적 색채를 풍부히가지고있다 여기에 쏘베트 미학에 있어서의 문제에대한 특성적 중요성이 있으며 그의 전면적 연구를 위한 활동적실제적 근거가 있는것이다。

(「볼쉐위끼」지 一九四八년 一二三호에서)

과학은 우연의 적이다

아·막씨모브

과학은 사람들이 자연과 투쟁함에있어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에의해서 발생한것이다 과학은 물질적자연의 객관성과 그발전의 엄격한 합법칙성(合法則性)의 특성을 인지(認知)하는것을 자기의 토대로 하고있다 관념론적 철학은 비과학적(非科學的)이며 반동적이기때문에 이러한 과학의 기본(基本)자체를 훼손(毁損)하며 이러한 론제(論題)를 거부한다。

력사의 전기간을 통해서 과학적지식의 장성은 물질적세계의 새로운 합법칙성을 발견하는데 있는것이다 초기(初期)의 과학적업적의 하나는 천문학이다 천문학이 발생하기전에는 례컨대 일식(日蝕)이나 월식(月蝕)같은 현상은 전연 우연한것이고 천체(天体)의 운행법칙과는 아무러한 관련도없는것으로 알고있었다 종교(宗敎)는 이러한 현상을「신의 표상(神의表象)」으로 취급했고 이것을 대중을 협박(脅迫)하고 모든 미신(迷信)을 번창시키는데 리용하였다 천문학은 처음으로 일식、월식의 기원(起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였고 천문학자들은 장차있을 일식、월식을 미리 계산(計算)해낼수있었던것이다 과학의 력량과 해방적역할은 이점에 표현되였다。

천체의 운행법칙을 설정하고 천문학은 이전에는 별세계(星世界)를 지배하고있는 엄격한 질서에서 완전히 리탈(離脫)된것처럼 생각되던 현상을 해명하였다 천문학과 기계제작자들의 이러한 성과는 과학적 세계관을 형성하는데있어서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 성과는 종교적 반동과와의 장구한 투쟁에서 이루어진것이였다 이투쟁은 많은 영웅과 수난자(受難者)를 낳았던것이다。

신시대(新時代)초기에 물리학、화학이 발전되었고 좀 늦어 생물학이 발전되었다 그리고 과학적성과는 우연(偶然)이 지배하고 신(神)의 뜻대로된다는 학설에 대립하여 자연에있어서 합법칙성이 지배한다는 학설의 성과로되었다。

과학과 실험의 재료를 일반화하면서 변증법적유물론은 우리를 둘러싸고있는 세계는 운동하며 법칙에따라 발전되고있는 물질의 세계이라는것을 교시한다。

맑스주의는 자연이나 사회생활에있어서 우연과 봉착(逢着)한다는것、우연은 사건의 행로에있어서 어느정도의 영향을 줄수도있다는것을 거부하지는않는다 一八七一년 四월十七일 꾸겔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맑스는「만일「우연」이라는것이 어떠한 역할이라도 논다면 력사는 극히 신비로운성격을 가졌을 것이다」고 썼다 그러나 자연이나 인류력사가 우연의 집적(集積)은 아니며 오히려 합법칙적인 과정을 표시하고있는것이다。

현실에는 상술한바와같이 맹목적인 우연이 지배하는 그러한 부면은 없으며 있을수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적자연이 발전되는 합법칙성을 로현(露顯)시키고 방식화(方式化)하는 과학이 동찰(洞察)할수없는 그러한 현실의 부면은 없으며 있을수없는것이다。

사회적현상을 연구하는 부면에있어서 맑쓰의 위대한 발견은 그가 유물론을 사회의 인식에 확장하고 사회생활에있어서 지배적인 필연성(必然性)을 표시했고 사회의 발달이 유래(由來)하는바 제법칙을 해명(解明)한점에있다 맑쓰이전에는 사회학은 과학이아니였다 맑쓰이전에 사회현상을 인식하는 부면에서 활약하던 학자나 철학자의 의견에의하면 우연이 사회적생활을 지배한다는것이다 맑쓰는 사회에대한 이러한 관념론적 비과학적 견해에 종말을 지었다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법칙을 설정하고 사회의 발전은 모든 물질적세계를 지배하고있는 필연성이 역시 지배하고있는 자연적—력사적 과정이라는것을 제시(提示)함으로써 맑쓰는 사회학을 과학의 수준으로 제고시키였다。

맑쓰의 이 위대한 과학적 공적의 본질을 규정하면서 레닌은「따윈이 동물과 식물의 형태를 아무러한 련관성이없고 우연적이고「신이 창조하였고」또한 불변(不變)이라고 보는 견해에 종말을 짓

고 제형태의 변화성과 그 형태간의 련계(聯繫)성을 설정하여 생물학을 처음으로 완전한 과학적 지반에 세운것과같이— 맑쓰도 사회를 지배자의 의사에따라(또는, 다 같은것이지만, 사회나 정부의 의사에따라) 모든 변화를 허용하는 개인(個人)의 기계적인 집합체(集合体)로보는 견해에 종말을 짓고 소여(所與)의 생산관계(生産關係)의 결합체로서의 사회적—경제적 기구의 개념(概念)을 설정하고 그러한 사회기구의 발전은 자연적—력사적 과정이라는것을 규정함으로써 사회학을 처음으로 과학적 지반위에 세웠다』고 기록하였다 (레닌전집 一권 一二四—一二五폐지)

쓰딸린동지는 자기의 저서『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에 대하여』에서 형이상학과는 반대로『변증법은 자연을 호상분리된 호상고립된 호상관련되지않은 사물(事物)과 현상(現象)의 우연적 집적(偶然的集積)으로 보는것이아니라, 사물과 현상을 유기적(有機的)으로 호상련락되며 호상관련되며 호상제약(互相制約)된 그러한 호상련관적 통일적전체로 본다』고 지적하였다 맑쓰주의적 철학적 유물론의 첫째특징을 말하면서 쓰딸린은『맑쓰의 철학적 유물론은 세계는 그 본질상 물질적이며 세계내의 천태만상(千態萬象)은 운동하는 물질의 제종(諸種)의 형태이며 변증법적방법을 통해서 확정되는 현상의 상호관련과 상호제약은 운동하는 물질의 발전의 합법칙성을 표시하며 세계는 물질의 운동의 법칙에의해서 발전하는것이고 어떠한「세계정신」도 필요치않다는것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기록하였다。

쓰딸린동지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원칙이 사회에관한 과학과 프로레타리아트당의 실지활동에대해서 어떠한 의의를 가졌는가를 제시하였다『만일 자연현상의 상호관련과 그 상호제약이 자연발전의 합법칙성을 구현(具現)하는것이라면 사회생활현상의 상호관련과 상호제약도 또한 우연적인것이아니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구현하게 되는것이다。

어것은 사회생활과 사회사(社會史)가 우연성의 집적이 아니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왜 그러나하면 사회사는 사회의 합법칙적인 발전이되며 사회사의 연구는 과학으로 변하는때문이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당의 실지활동은「특출한 위인(偉人)」의 선량한 원망(願望)이나「리성(理

性)」의, 요구나「보편적(普遍的) 도덕」등등의 요구에 근거할것이아니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그 합법칙성의 연구에 근거해야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라고 쓰딸린은 서술하였다。

(쏘련공산당략사 로동당출판사판 一九八폐지)

× × ×

변증법적유물론이 물질적현실의 엄격한 합법칙성적 특성을 확식하고, 그것으로써 물질적세계의 합법칙성을 포착하는 과학앞에 무한한 전도를 개척한데 반하여 관념론은 객관적 물질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의 엄격한 합법칙성적 특성에관한 과학적 결론을 파괴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있다 부르죠아 철학의 이 시도는 프로레타리아트 사회주의혁명의 준엄한 현실이 대두한 제국주의시기에 특히 증강되었다 자본(資本)에 복무하는 어용철학가(御用哲學家)들은 자연적 사회적력사에서 지배하는 필연성을『전도(顚倒)』시키려고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고있다「그들은 맑쓰주의적 사회주의를 반대해서, 자본주의의 파멸의 불가피성과 그것에대한 사회주의의 교체(交替)에관한 맑쓰주의적 리론의 엄격한과학적 확신을 반대해서 자기들의 이 궤변(詭辯)을 사용한다。

이 활동무대에서 연습된 부르죠아 철학자—관념론자들이 사용하는 자주볼수있는 태도의 하나는 우연성의 과장(誇張), 현실의 거대한 부분에는 합법칙성과 필연성이 전혀없고 맹목적 우연성이 전적으로 지배한다는데관한 허위적 반동적 요설(饒舌)이다。

관념론자들은 원자내(原子內)적 현상을 동찰하는 물리학의 발견에 관련해서 학자들앞에 발생하는 곤난성을 이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열심으로 려용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또한 시도하고있다 과학에 기생(寄生)하면서 직업적으로 두뇌를 우매(愚昧)화하는 이사람들은 미생물세계(微生物世界)는 합법칙성에「관련이없는 비결정론(非決定論)적 부문이며 미생물부분은 그 운동과 변화가 현상의 필연적 관련성에서 리탈되며 그 운동과 변화는 우연적인것으로써만 결정되어야하며 전자(電子)는「자유로운 의사」를 소유하고있다」는 몽둥에 관련된 론의(論議)를 끝없이 계속하고있다。

영국 물리학—관념론자 뜨·진스는 자기의「신비(神秘)로운 세계」라는 저서에서「원자와 전자가

관련하고있는 사건에는 결정론(決定論)이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념론적 신념에서 진스는 다음과같은 결론을 내리었다 즉『미래는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이되든지간에 신(神)에게 의존하기는하나 불변(不變)하고 결정적으로 과거와같을수는없다』진스의 이『결론』은 결정론을 반대하는 부르죠아학자들의 투쟁의 반동적 사회적—정치적 사상이며 이것은 물질세계에있어서 필연성이 지배하는데관한 학설을 반대하는것이며 자본주의의 파멸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가져올 미래에 대한 그들의 공포를 표시하는것이다。

우연성에대한 가지각색의 과장은 인간의 인식의 근본적 제한성(制限性) 세계를 인식하려는 노력에있어서 과학의 무력(無力)함을 확인하는 부르죠아적 과학과 철학의 많은 복무자들의『연구』에 련합되고있다 영국『학자』젬피엘은 그가 최근 출판한『과학사(科學史)』라는 서적에서 현대과학은『정확한 지식의 결정적 불가능과 우리가 해결할수없는 근본적인 부정(不定)성을』증명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다만 종교의 도움을 얻어서라야만 리해할수있는듯이 진술하였다 부르죠아 관념론적학자들은 칸트의 뒤를따라 신의실재(神의實在)를 창설하는 수단으로써 빈번히 불가지론(不可知論)을 리용한다 아메리카 생물화학자(生物化學者) 알렉싼드르는『생명、그 본성(本性)과 기원』이라는 자기의 최근의 서적을 어 목적에 바치였다 알렉싼드르는 기록하기를『우리들의 지식전선(知識戰線)을 확장함에따라 우리는 우리들의 무지의 전선(無知의戰線)을 확장하게된다 그리하여서 불명(不明)한 인식할수없는 로베르트 인게르솔이 신(神)이라고 부른것과 더욱더욱 접촉하게된다』고 하였다 무학(無學)과 미신을 찬미하고 과학을 악화(惡化)하는『학자들』—부르죠아 문화의 쇠약(衰弱)을 명백히말해주는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의 과학확동가들의 반발(反撥)적 풍모(風貌)는 이와 같은것이다。

우연성을 찬미하고 불가지론(不可知論)을 끌고 다니는것이 모든 부르죠아 생물학의 특징이된다 이것은 따윈학설의 과학적、유물론적기본을 반대하는 반동적 웨이스만주의에 특히 뚜렷이 표현되었다。

생물이 자기의 거주조건(居住條件)에대해서 개선(改善)되며 적응(適應)하는 요인(要因)으로

서보는 자연도태(自然淘汰)에 관한 따윈의학설은 생물의 변화성을 인식하는것에 의거(依據)하는것이다 따윈은 이 변화성의 존재를 강조하였고 그 변화성은 자연도태를위해서 물질에게 주어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변화성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의 합법칙성을 해명하는데 관해서는 따윈은 이것을 자기의 과업으로하지않았다 그는 그 당시의 과학이 아직 그것을 해결할수없으며 이문제의해결은—장래 더욱 발전된 생물학적과학의 과업이라고 생각하였다。

웨이스만주의와 그를 계승한 모르간주의—멘델주의는—따윈이 설정한 문제— 생물 유기체의 변화성의 원인과 특성에 과한문제—를 해결할것을 진술하였다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가 제출한 문제의『해결』은 따윈사상의 과학적본질을 란폭하게 곡해(曲解)하였고 그의 유물론적 본질을 반동적 형이상학적—관념론적 몽상(夢想)으로 교체(交替)한것이었다。

웨이스만—모르간의 리론에 의하면 유전성(遺傳性)의 보지자(保持者)는 특별한 물질—즉 근본에있어서 유기체와 다른 배아(胚芽)의 원형질(原形質)이라고한다 유전성의 기능(機能)은 생물의 기관 기능과 건널수없는 심연(深淵)으로 경계(境界)되어있다 유기체가 그 개체의 생활에있어서 기능을 발휘하고 발전하는것이다 식물이나 동물로 실험된 상호작용은 웨이스만—모르간 및 그들의 추종자의 견해에 의하면 유전적특성을 형성하는데있어서 아무러한 의의도없는것이다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기체가 갖게되는 특징、성질、변화는『유전성 소재(素材)』에대해서 아무러한 영향을 주지않으며 그러므로 유전되지 않는다는것이다。

유전으로 전해가는 모든 변화는 염색체(染色体)속에 있는듯이 보이는『유전성소재』의 변화에서 생기는것이다 염색체는 유기체가 살고있는 환경의 모든 영향을 받지않고 그 한부분이 배아(胚芽)세포인 유기체의 영향도 받지않고 수의(隨意)로 변화한다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는 유전적 변화의 일정한 방향을 거부한다 모르간주의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유전성 소재』의 모든변화는 극히 우연적인 특성을 가지고있다고한다 이 점에서 모르간주의자들은 생물유기체의 변화성은『사멸(死滅)해가는』로선으로 가고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소멸(消滅)하는 진화사상(進化思想)』을 설교한다。

『유전성 소재』에있어서의 변화는 염색체에 끌히쎈 독(毒)이나 엑쓰광선(光線)이나 방사능(放射能)의 방사등의 힘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인공적으로 발생시킬수있다고 모르간주의자―멘델주의자들은 진술하고있다(그러나 웨이스만―모르간주의자는 진술하기를―역자)그때에 생기는 변화도 역시 우연적인특성을 갖는것이다 이 변화에、개연성(蓋然性)리론을 적용하면 실험하는 학자에게 필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개연성의 률(率)은 추첨에서 한장의표를 마치는데서 리득(利得)을 얻는 개연성의 률을 계산할수있을만한 정도의 퍼쎈테지를 얻을수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에게 필요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유전성소재』에 작용을 줄능력은 절대로 조금도 없는것이다 변화성은 일정치않은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례컨대 어떠한 식물의 종자에대한 도태(淘汰)에있어서 상술한 어떠한 변화수단으로 이 종자에 가공함으로써 자기가 요구하는 형태의것을 얻을수는 없는것이다 유전적변화는 원칙적으로 예언(豫言)할수없는 것이다。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의 이 모든 비과학적 조작은 특히 형이상학적 및 관념론적 특성을 가진 것이다。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의 형이상학은 우선 그들의 대표자들이 유기체를 유기체가 자라고 생활하고있는 환경으로부터 그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적응(適應)하여가는 환경으로부터 분리하는데 있다。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의 형이상학은 생물유기체가 웨이스만주의자들의 학설에있어서는 완전히 호상간 관련성이없는 두개의 부분으로 즉 그들이 생각해낸 신비스러운『유전성소재』와 물체자체와를 분리한점에있다 이러한 특별히 형이상학적인 결정에서 출발하여 웨이스만주의자―모르간주의자들은 유기체가 가지고있는 성질의 유전에관한 과학적 유물론적 생물학의 주장을 반대하는 광포한 투쟁을 하고있다 변증법적유물론은 자연현상은 호상간 련락되며 호상 관련되며 호상제약된다는것 어떠한 현상이든지 다른 현상과의 관련성을 떠나서는 리해할수없다는것을 교시한다 웨이스만주의자―모르간주의자들의 반동적조작은 그렇기때문에 비과학적 형이상학적 방법을 위해서 과학적 변증법적 방법을 간교(奸巧)하게 거부하는것이다。

자연에있어서 현상의 련관성은 물질적세계가 발전하는 합법칙성인것이다 그를 둘러싸고있는 다른 현상과 관련된 견지에서 어떠한현상에 접근함으로써만 연구되는 그현상의 발전을 결정할수있는 합법칙성을 해명할 가능성을 주는것이다。

반대로 현상을 그것을 둘러싸고있는 조건과의 관련성을 제외하고 파악한다면 그현상은 다만 우연적인것으로밖에는 보이지않을것은 당연한일이다 형이상학적 사유방법(思惟方法)이 인도하는 파멸적결과는 이러하다 형이상학적방법의 이러한 결함있는 특정을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는 명백히 나타내고있다 대체로 유기체에서와 그것이 살고있는 환경에서 분리된 특별한『유전성소재』를 궁리해내고 유기체의 유전적변화를 그 환경과의 련관성을 떠나서 연구하면서 웨이스만주의자―모르간주의자들은 이 변화가 순전히 우연한것이라고 말하는것이다 변증법적유물론은 자연에있어서 필연성이 지배하는것은 일반적인특정을 가진것이고 웨이스만주의자―모르간주의자들은 자연의 중요한 부면―생물의 유전되는 변화성의 범위―를 필연성이없는 합법칙성이 없는 맹목적인 우연이 지배하는 부면으로 진술(陳述)하고있다는것을 교시한다。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의 형이상학은 또한 유기적세계에있어서의 발전을 사실상 거부하고있는것이다 웨이스만주의자―모르간주의자들은 겐(유전학상의 원소(元素))을 유전성의 보지자(保持者)라고 말하면서 생물의 모든 유전되는 변화는 겐의 재결합(再結合)의 결과이고 그와같이하여서 발전과정에서는 새로운것의 발생이없고 다만 처음부터 소유하고있던 더우기 소멸해가는 길을 걷고있는 특정과 성질이 로현(露顯)될뿐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소멸해가는』『저하(低下)되여가는』진화에 관한 반동적 부르죠아적 사상에 대립해서、발전을 전진적(前進的)운동、향상해가는 운동으로보는 변증법적 유물론학설을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는 이상과같은 리론으로서 반대해 나서는것이다。

× × ×

선진적학자 과학적 유물론적 생물학의 대표자들은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의 반동적사상에 반대해서 견결투쟁을 하였다 ㅍ・아・찌미라제브、이・브・미추린 및 오늘날에있어서 선진적 생물학을 성과있게 추진시키고있는 뜨・드・뤼쎈꼬는 식물과

동물발전에관한 학설에있어서 우연앞에 굴복하는것을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를 올렸으며 식물과 동묶의 자연계를 희망하는 방향으로 개조하는 가능성을 인간에게주는 과정을 정복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식물과 동물의 처태의 변화성을 연구하는 과업은 끄・아・찌미랴제브에의하면 생리학의 대상이고 사실 찌미랴제브가 실험형태학(實驗形態學)이라고 부른 그것의 한부문인것이다 그는 생리학이 이미 외부조건의 영향의 결과로써 많은 형태와 종류의 특징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도달하였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생리학은 정상화(整狀花)를대생화(對生花)나 량순화(兩唇花)로 개조하는데있어서 중력(重力)의 영향을 해명하였다(끄・아・찌미랴제브전집 五권 一三二페지) 그들은 꼬여(捲)지는 줄기를 형성함에있어서 거진 모든 식물의 상부(上部)에 고유한 회전운동(廻轉運動)의 역활을 해명하였다 이때에도 이 현상에있어서 중력이

또한 거대한 역활을 논다는것이 표시되였다 적당한 실험설비를 적용하면서 생리학은 대생화나 량순화를 정상화로 꼬인줄기를 바로선 줄기로 변화키시는것을 연구해냈다 또한 잎(葉)의 분기(分岐)의 특성이나 줄기의 마디의 크기가 증발(蒸發)에 관련성을 가진것도 연구되었다 잎을 덮어싸는 세모(細毛)가 출현하는 원인、나무줄기에서 고르구(쁘로브끼)가 분리되는 원인 등등도 연구되었다。

유전현상을 연구하고 찌미랴제브는 유전의 특징에관한 웨이스만주의자―모르간주의자들의 형이상학적견해가 정당치않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특징 례를들면 꽃의 색채(色彩)같은것은 생리학적요소(산화(酸化))또는 세포액즙(細胞液汁)의 아르카리성등)의 영향을 줌으로써 변화할수있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찌미랴제브가 도달한 결론은 인간이 『유기적형태를 제작하는』것을 습득한다는 점에있다 예전사람은 인위도태(人爲淘汰)를 적용해서 식물과 동물의 형태를 희망하는 방면으로 직접 변화시킬수없었다 현재 과학은 이점에대한 길을 개척하고있다 수만、수십만년을 작용하고 그러한 장구한 기간에서 비로소 식물이나 동물의 새로운 형태가 조성되는 자연도태의 자연적과정대신에 인간은 인간

이 의식적으로 창조한 식물이나 동물의 형태를 만드는 인위도태를 설정한다。

생물유기체의『형태를 제작』함에있어서 찌미랴제브는 외부조건의 영향과 분포잡종(分胞雜種)에 거대한의의를 주었다 이점에대해서 그는 식물은 그 발전의 이른(早)단계에있어서 자기의 유전적본성을 변화하는 능력이 더욱많다는것이 중요한점이라는것을 지시하였다 식물과 동물의 형태변화에대한 그러한 선진적 견해에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멘델유전설』은 대립하였다 찌미랴제브는 이 반동적 학설을 각방면으로 비판하였다。

그는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는 일반적 발전에 관한 학설인 따윈주의에 적대되는것이라는것、두개의 원형질―배아(胚芽)원형질과 신체원형질(몸)을 허요하는것은―형이상학적이라는것『멘델법칙』은 다만 외부적으로 변화와 유전의 현상에 접근하였고 다만 유전과 변화의 현상의 통계학적 기록에 종사한것뿐이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까지 심화(深化)되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하였다 찌미랴제브는 결국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는 과학에있어서『새로운말(言語)』이 아니고 전정설(前定說)및 그와 류사한 학설에 뒤로 돌아가는것인것을 표시하였다 찌미랴제브는 부르죠아학자중에서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가 전파되는 원인을 밝히었다 찌미랴제브는 관념론방면에서의 운동에서 이 원인을 정당히 식별(識別)하였다。

이・브・미추린과 끄・아・찌미랴제브는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의 결정적인 반대자이다 그는 멘델의『완두(豌豆)법칙』과 웨이스만주의자―모르간주의자들이 유전과 변화의 모든 각종현상을 관찰하는것을 멘델『법칙』이라고 부르는 협소한 관점에 고착(固着)시키려고하는 시도를 조소(嘲笑)하였다 순전히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으로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가 생물유기체를 관찰하는것을 미추린은 환경조건에 의존해서 연구되는 식물의 특성과 필요성이 형성되는 과정을가르켜주는 력사적관찰로 대체(代替)하였다。

이・브・미추린은 여러가지례(例)로써 과실(果實)식물과 장과(漿果)식물의 야생(野生)형태가 견고한 변하기어려운 유전적성질을 가지고있는것을 증명하였다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도 재배되는것은 어린것이면 더욱 붕변한 유전적성질을 적게가진다 동

시에 그는 과실식물의 야생형태에있어서도 어린때에는 아직 견고한 유전적성질을 가지지않은것을 증명하였다。

이·브·미추린은 식물이 성장하는데있어서 토양(土壤)、기후조건 및 기타 많은 요소의 역활을 또한 해명하였다. 이·브·미추린의 특별한 공훈은 접지(接枝)하는 대목(台木)과 접자의 호상작용하는 관계의 발견과 멘또—르(栽育木—감독자) 즉 식물의 양육자라고 불리우는 방법을 궁리해낸점에있는것이다。

미추린은 발전의 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段階)로 제고시키고 식물의 유전적변화법칙을 인식하는 방면에서 많은 중대한 발견을하였다 미추린은 실험으로써 식물의 진화를 지배할수있고 그 유전적본성을 변화할수있다는것을 증명하였다 종족발달(種族發達)을 고려하고 개별적식물의 유전적특성을 축적하고 강화하면서 미추린은 개별적식물의 유전적특성을 변화시키었고 그것을 종(種)으로 인도하였다 즉 개체발달사(個体發達史)에서 종족발달로 또다시 돌아갔으나 그러나 그것은 이미 회망하는 방향으로 변화된것이다。 식물의 본성을 변화하는것、이러한 변화를 외부조건을 배양(培養)함으로써 멘또—르의 작용으로써 잡종(雜種) 및 기타의 방법으로써 지배하는것—미추린의 중요한 발견은 이러한것이다 미추린은 식물을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과 수단을 발견하였다 미추린학설의 기본적 표어가 여기서 나오는것이다「우리는 자연에서 은총을 기다릴수는없다 은총을 자연에서 가져오는것—이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미추린은 자기의 연구「잡종묘목배양(雜種苗木培養)시에 재육목(栽育木—감독자)의 적용과 각종 외부적 요소의 영향하에 과수(果樹)의 품종(品種)을 예민하게 변화하는 실례」에 다음과같이 썼다「간단히말하면 이 방법의 세부(細部)를 완전히 만들고 그것을 과수의 신품종을 끌어내는데 적용할때 우리는 마침내 성공으로가는 거보(巨步)를 내놓게되며 사업과정에있어서 일찌부터 희망하던 지배력(支配力)을 얻게된다 그것이없이는 우리의 로력의 결과의 과반수(過半數)가 각종 외부적요소의 우연한 영향에 의존하게되며 그요소의 작용을 약화하든가 제외하는것이 전연 불가능하며 그로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우연히주어진 그러한 신품종의 품질에 만족할수밖에없게될것이다」(전집一권五〇一페지)

미추린은 과학의 혁신자(革新者)이요 용감한 활동가(活動家)이었으며 우연성앞에 굴복하는것을 반대하는 투사이었으며 웨이스만주의자—모르간주의자들의 특징이되는 식물에 형식적으로 일면적으로 스코라철학전인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는것의 적대자(敵對者)이었다 미추린은 생물발전에관한 학설에있어서 따윈학설을 높은 수준으로 제고함과더부러 본질적인 기여(寄與)를하였다 개별적 식물장성에대한 그의 탐구는 유기적세계에있어서 형태와 품종(品種)의 력사에대해서도 명백한 광명을 주었다。

뜨·드·리쎈꼬는 미추린의 학설을 계승하여 식물성장계단(階段)에관한 학설을 창설하였다 그는 식물이 개별적성장에있어서 질적으로 많은 각종 계단을 경과한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외부환경의 일정한조건을 요구하는 한개의 계단의 통과를 완성하면 식물은 다음 계단으로 넘어갈수있다 그러한 질적으로 상이(相異)한 계단에는 야로위자찌아(催芽過程)계단、광(光)의 계단등이 속한다 례컨대 야로위자찌아의 계단은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온도(溫度)와 습기(濕氣)를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식물에게 주어지지않으면 그 식물은 다음계단으로 넘어갈수없으며 줄기를 형성하고 열매를 맺을수없는것이다。

뤼쎈꼬는 추파소맥(秋播小麥)은 일정한 습기를 가지고 일정한기간 낮은 온도를 받지않으면 이삭이 나오게되지않는다는것을 증명하였다 그경우에는 뿌러에서 가지(枝)가 솟기는 하지만 줄기와 이삭은 형성되지않는다 동시에 뜨·드·리쎈꼬는 약간 발아(發芽)한 소맥의 종자가 땅에 파종되지않고도 만일 그것을 온도와 습기의 일정한 조건하에 일정한기간을 둔다면 인공적인 춘절조건(春節條件)에서 야로위자찌아계단에 이를수있다는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추파작물을 봄에 파종하고 그렇게함으로써 가을에 파종되어 발(田)에서 야로위자찌아계단을 경과한 종자에서 얻을수있는 그만한 수확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것도 증명되었다。

미추린학설을 연구하면서 뜨·드·리쎈꼬는 추파(秋播)또는 춘파(春播)같은 유전적특징은 불변

(不變) 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였다 뜨•드•리쎈꼬와 그의 협력자들은 적당한 외부조건을 조성해서 식물의 유전적본성을 희망하는방면으로 변화시키면서 추파작물을 춘파작물로 또한 그반대로 변화시킬수있었다。

계단론을 적용하여 뜨•드•리쎈꼬는 남방에서 감자가 퇴화하는 과정의 본질을 석명하였다 그는 쏘련의 남방에있어서는 괴경(塊莖)이 형성되고 장성하기에 필요되는 모든 조건이없는것과 그결점은 빛(光)으로 감자의 야로위자찌아를 적용하고 그 재배를 여름에 실험하여 능히 피할수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방책(方策)에의해서 북방지역으로부터 재배된재료를 남방으로 운반하지않아도좋게하였고 남방지역의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앞에는 감자의 높은 수확을 얻을 가능성이 개척되었다。

뜨•드•리쎈꼬는 자가수분(自家受粉) 식물을 향상시키기위해서 종족내(種族內)이종교배(異種交配)의 중요성을 증명하였고 도태사업(淘汰事業)의 토대를 창설하였고 인위도태(人爲淘汰)의 학설을 발전시키었다。

뜨•드•리쎈꼬는 분포적(分胞的) 잡종에대한 미추린의 사업을 계속발전시키었고 분포적방법으로써 교배(交配)방법으로 얻을수있는 식물의 모든 유전적변화를 얻을 가능성이있다는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였다 그와함께 유전적성질의 보지자(保持者)는 성적(性的) 및 체(体) 세포 즉 전(全)식물체이라는것, 식물이 그의 개별적성장에서 획득된특징은 유전에의해서 전해진다는것도 결정적으로 증명되었다。

끄•아•찌미랴제브, 이•브•미추린, 뜨•드•리쎈꼬의 사업으로 따윈주의는 더욱 발전되었고 많은 새로운 재료로써 풍부히되었고 다만 생물자연(生物自然)의 발전과정을 기록하고 설명하는데 그치던 학설을 식물과 동물을 개조(改造)하고 그들의 유전적본성을 변경시키는 창조적학설로 변화시키었다 쏘련에있어서 따윈주의는 새롭고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제고되었고 사회주의건설의 무기로되는 쏘베트적 따윈주의가되었다。

이•브•미추린과 뜨•드•리쎈꼬의 사업은 식물의 외부적생활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희망하는 방향으로 식물의본성을 지배하는데대한 열쇠를 준다 이 사업은 생물형태의 유전적변화의 합법칙성을해명하고 이 가장 중요한 부면에서 우연성을 극복할수있는 가능성을 준다。

『식물의 본성개조(本性改造)』(一九三七)라는 저술에서 뜨•드•리쎈꼬는『이사업에있어서 중요한것은 미추린적으로 식물의 성장을 제고하고 식물형태의 진화에있어서 외부조건의 역할과 지위를 제고하여 자연에서 우연적으로 되어졌고 또한 되고있는것을 의식적으로 만들수있다는점이다。

자연에있어서는 변화와 자연도태의방법으로 동물과 식물의 가장 훌륭한형태가 조성되었으며 조성되고있다 인간은 그 방법을 정통한후 첫째로 그와같은 훌륭한형태를 무한히 짧은기간에 창조할수있으며 둘째로 자연계에 수백만년동안이나 있은일이없고 나타날수도없었던 그러한 형태를 창조할수있는것이다』(전집四五—四六페지)라고 섰다。

뜨•드•리쎈꼬의 특별히 거대한 공훈은 반동적인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를 비판하고 폭로한점에있다 브•이•레닌의 이름을가진 농학(農學)아까데미야회의에서 진술한 자기의 연설에서 뜨•드•리쎈꼬는 이경향(傾向)의 비과학성을 론증하였다 뜨•드•리쎈꼬는 말하기를『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는 생물자연의 참된 합법칙성을 해명하지않을뿐만아니라 관념론적학설을 통해서 자연의 합법칙성에관한 전혀 그릇된 관념을 조작한다。

그래서 유기체의 유전적특성이 주위환경의 제조건과 관련이없다고하는 웨이스만적 관념은 학자들을 유전적성질(즉 유기체의 본성의 가공(加工)은 다만 우연에만 의하는것이라고 확신하는데로 인도하였다. 멘델주의—모르간주의라고 불리우는 모든 법칙을 전혀 우연성의 사상위에 건설된것이다』라고하였다。

뜨•드•리쎈꼬의 확증(確證)에는 많은 실례가 인용되었다 뜨•드•리쎈꼬는 지적하였다 멘델주의—모르간주의에 준하면「겐(遺傳學上의元素)」의 돌연변이(突然變異)나 동시에 염색체(染色体)의돌연변이는 우연히 발생한다 이 결과 돌연변이과정의 방향은 우연적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안출(案出)된 우연성에서 출발하여 모르간주의자들은 유기체에 작용하는 돌연변이된 물질의 우연적도태위에서 자기들의 실험을한다 그들은 이러한 실험으로 그들이 안출해낸「유전적소재(素材)」에 작용하여 그렇게함으로써 그들에게 필요되는 변화를 우연히 얻기를 희망한다 모르간주의에 준하면 단순화된 구분을할때 소위 모계(母系)염색체와 부계(父系)염색채의 분기(分岐)는 역시 순전히 우연적인것이다 모르간주의자들의 확신하는바에의하면 열매를 맺히는것은 선택에의하여 되는것이아니라 성세포(性細胞)의 우연한 상접(相接)을 토대로해서 되는것이라고한다 여기서 잡종후대(雜種後代)에 특징이 분리되는데대한 우연적성질이있다는 등등,

「모르간주의자들은 대체로 생물자연을 필연적련관성이나 합법칙성이없는 우연적이고 상호분리된 현상의 혼돈(混沌)으로 생각한다 우연성이 전적으로 지배한다。

모르간주의자들은 생물자연의 합법칙성을 밝힐수없으며 개연성(蓋然性)의 리론에 원조를 구할밖에 도리가없으며 생물학적과정을 리해하지않고 생물학을 순전한 통계학으로 화하게하고있다」라고 뜨·드·리쎈꼬는 말했다。

멘델주의—모르간주의는—뜨·드·리쎈꼬는 강조한다—다만 우연위에 건설된것이다 모르간주의적「과학」은 실천을 결실(結實)없는 기대(期待)에 운명지으면서 생물자연에있어서의 필연적 련관성을 우연성으로써 거부한다 그러한 과학은 실체성(實際性)을 상실한다 그와같은 과학을 토대로하고서는 계획적사업목적을가진 실천이 불가능하며 과학적 전진이 불가능하다 분명한 전망(展望)、방향측정력(方向測定力)실천적목적을 달성하는 확신을 주지않는 그러한 과학은 과학이라고 부를 가치가없다 물리학과 화학같은 과학은 우연성에서 해방된후 비로소 진정한 과학이되는것이다 생물자연은 가장 엄격하고 본질적인 합법칙성을 토대로하고 발전되었으며 발전되고있다。

뜨·드·리쎈꼬는 자기의보고에서 생물자연에있어서 완전히 우연이 지배한다는데관한 생물체의 유전적변화의 불안정적성질에관한 모르간주의자—멘델주의자의 고찰(考察)이 반동적이며 불가지론(不可知論)적인 사상인것을 제시하였다。

「멘델주의—모르간주의는 가정(假定)된 신비로운「유전적」소재(素材)에 변화의 일정치않은 특성을 부여(賦與)한다 돌연변이 즉「유전적소재」의 변화는 일정한 방향을 갖지않은듯이 보인다 이것이 멘델주의—모르간주의의 기본적 토대—유전적소재는 생물체와 그의 생활조건과 관련성이없다고하는 론제와 론리적으로 련결된 모르간주의자들의 확신이다。

「돌연변이」라고 불리우는 유전적변화의「부정성(不定性)」을 말하면서 모르간주의자—멘델주의자들은 유전적변화를 원칙적으로 예언(豫言)할수없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인식불가능(認識不可能)의 독특한 개념이다—그이름은—생물학에있어서의 관념론이다。

변화의「부정성(不定性)」에관한 확신은 과학적 전진의 길을 엄폐(掩蔽)하며 그것은 농업적 실천을 파괴한다」고 뜨·드·리쎈꼬는 말했다。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의 형이상학과 관념론에 대해서 뜨·드·리쎈꼬는 미추린적 생물학에있어서의 유전변화에관한 문제의 엄격히 과학적이고 유물론적인 해결을 대치하였다 미추린적 생물학은 현실에 엄격히 준해서 유전성을 모든 생물체의 특징으로본다 유전성은 염색체만에있는것이아니라 생물체의 어떠한 부분에든지있는것이다 미추린적생물학은 생물체자체를 그의 생활조건과 함께 파악한다 생물체와 그의 생활조건은 분리될수없다 유기체가 그의생활조건을 상실하면—생물체도 사멸(死滅)하는것이다。

생물체를 그의 생활조건과의 련관성을가지고 연구하는것은 생물유기체의 유전성의 변화법칙을 인식하는 열쇠를 준다 유전성의 변화는 보통 어떠한 유기체의 형태가 어느정도 자연의 요구와 불합치할때 외부환경의 조건하에 유기체가 발전하는결과이다 변화된 조건하에서 발전하는 유기체에있어서는 동화작용(同化作用)과 분화작용(分化作用)의 형태가 변화되며 신진대사(新陳代謝)의 정상적형태가 변화되고 달라진다 생물체가 변함을따라 그의 유전성도 변화된다 이와같이하여서 생활조건의변화는 유기체의 발전형태의 변화도 반드시 동반한다 변종(變種)된 발전형태는 유전성의 변화로 인도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유기체가 소유하는 성질을 유전하는것이 가능하고 필연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생물자연의 유물론적 발전리론은—뜨·드·리쎈꼬는 보고에서 이렇게 진술한다—유기체가 그의 일정한 개별적 특수적 생활조건하에 획득한 유전성의 필연성을 인식함이없이는 생각 할수없는것이며 획득된 성질의 유전을 인식함이없이는 생각할수없는것이다。」

미추린적 생물학은 생물유기체의 유전성의 변화원인을 설정하고 이 변화의 합법칙적 특징을 표시하고 이 중대한 자연현상부면으로부터 우연성을 방축해버리였다 생물유기체의 변화의 필연적 합법칙적 특징을 설정한것은 이 합법칙성을 정통(精通)할수있는 가능성을 창조한다 미추린적 생물학은 농업생산의 요구에따라 생물유기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길을 지시한다『외부환경의 조건과 생물유기체의 생활조건을 지배하면서 일정한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필요되는 유전성을가진 품종(品種)을 창조할수있다』고 뜨·드·리쎈꼬는 말한다。

미추린학설은 생물학과 농업적 실천에서 과학적 전진(前進)의 가능성을 개척한다 그 반면에 웨이스만주의―모르간주의는 과학과 실천의 활동가들을 맹목적우연에 완전히 종속할 운명을 지어준다 그리므로 뜨·드·리쎈꼬는 반동적 웨이스만적 경향의 영향을 근절하고 생물학에서 우연성을 방축하고 새로운 생물형태를 이끌어내는 사업을우연성에서 해방하는것을 쏘베트생물학의 기본적과업의 하나로 세웠다。

『우리가 확고히 기억할것은 과학은 우연의 적이라는것이다』라고 뜨·드·리쎈꼬는 말했다。

× × ×

끄·아·찌미랴제브 이·브·미추린 뜨·드·리쎈꼬의 업적(業績)은 생물학발전에있어서 새로운 단계를 이루었다 이는 변증법적유물론철학에 의거하는 창조적 쏘베트적 따윈주의이다 찌미랴제브―미추린―리쎈꼬의 학설은 변증법적유물론을 생물자연에관한 과학에 적용하는점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 학설은 생물학을 생물자연 개조의 무기(武器)로 변화시키었다 쏘련에있어서 생물학의 업적은 쏘딸린적 정신으로 고무되는 선진적 과학이 장성하고 견고화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볼쉐위끼』지 一九四八년 제十八호에서)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연구자료 〔九〕

맑쓰주의당의 정치적준비

레닌의저서 『민주주의 혁명에있어서 사회민주주의자의 두가지전술』에대하여

김 철 우

제一차 로씨야 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의 시초는 뻬쩨르부르그에서 로동자들을 총살한 一九〇五년一월九일 류혈주일로부터 시작하였다 류혈주일저녁에 로동자들은 무장하였으며 바리까드를 구축하였으며 무기를 잡으라는 뻬쩨르부르그 볼쉐위끼의 호소에응하여 몇만명 뻬쩨르부르그의 로동자들이 궐기하였다。

一월九일후 로동자들의 투쟁은 첨예한 정치적성질을가지었다 一九〇五년 一월한달에만 四十四만명이 폭동에참가하였으며 이것은 혁명전 一년간 평균 四만三천명의 파업자에비하면 거대한 숫자인것이다。

로동자들의 정치적파업은 무장적 충돌로변하였다 이와같은 무장적 충돌은 다른 도시들에서도 봉가되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파업과 시위운동과 무장적출현에 뒤이어 농민들이 지주를 반대하여 궐기하였으며 군대와 함대에서도 혁명운동이 봉기되었다。

이리하여 로씨야에서 혁명이 성숙되었으며 사회의 전계급을 이운동에 휩쓸어넣었다 각계급 각정당은 자기의 전술 행동방침 다른 계급과 정부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기에 노력하였다。

맑쓰주의당도 자본주의를 타도하며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자기의 혁명적전술을 작성하지않으면 안되었다。

혁명적전술의 작성은 즉 구체적환경에서 조성된 투쟁에대한 취급 방법 수단 및 형식의작성은 시작된 첫 로씨야부르죠아민주주의 혁명에 거대한 의의가있다。

그러나 一九〇五년 부르죠아민주주의 혁명의 초기에 로씨야프로레타리아트의 유일한 맑쓰주의당이 없었다 당은 두개의 분파로분렬되었다 즉 혁명적 맑쓰주의자들인 볼쉐위끼와 기회주의자들인 멘쉐위끼들이다 통일당이없는것은 통일된당의 전술이없게하는데로 이르게하였다。

볼쉐위끼와 멘쉐위끼사이에는 혁명견야에 벌써 조직문제와 전술상문제에있어서 의견차이가 생기였다。

一九〇五년 四월 론돈에서 소집되었던 볼쉐위끼들의 제三차대회와 五월제네바에서 소집되었던 멘쉐위끼들의 제一차 꼰페렌치야는 혁명에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당의 과업을 관정함에있어서 볼쉐위끼와 멘쉐위끼간의 원칙적인 의견차이를 폭로하였다。

레닌은「민주주의혁명에있어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두가지 전술」이란 자기의 저서에서 一九〇五년혁명에서 볼쉐위끼전술을 영재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멘쉐위끼의 부르죠아적 전술을 여지없이 비판하였다。

레닌은 이저서에서 맑쓰주의당의 전술적기초를 작성하였다。

一、로씨야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의 성질과 특성에대하여

볼쉐위끼들은 환경과 계급적력량의 관계와 력사적발전의 행정에서 로씨야에 제기된 과업들을 맑쓰주의적으로 해부하는 기초위에서 혁명을 평가하였다。

당시 로씨야에 성숙된 사회 경제 및 정치적개혁은 반드시 자본주의의 생산력 성장발전을위한 토대를 닦지않으면 안되었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의 제一계단에있어서 그의 당면과업은 자본주의적개인소유를 숙청하는것이아니라 다만 농노적 지주적소유를 숙청하고 짜리전제제도를 타도하며 민주주의공화국의 승리를 보장하며 정치적 자유를 전취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자체의 사회—경제적 본질로보아서 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이 성숙된것이다。

그 계단에서 자본주의 기초를 파괴만 하지않을뿐만아니라 반대로 그의 발전을 용이하게하는 부르

죠아 민주주의개혁이 로씨야에서 당면순서로 나서게되었다。

그렇기때문에 一九〇五년、로씨야혁명의 당면과업은 사회민주로동당의 최저강령을 실천하는것이다 즉 공화국과 정치적자유를 전취하는것이며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는것이다。

一九〇五년 로씨야의 혁명은 객관적본질로보아서 지나간 구라파의 부르죠아혁명의 일반적특징을 가지었다 그러나、로씨야혁명에있어서 력사적조건과 환경 및 계급적 력량은 서구라파의 혁명들보다 전혀다르다。

서구라파에서 지난 혁명들은 례하면 불란서의 부르죠아혁명은 자본주의가 상승하며 부르죠아들이 진보적역활을 수행하며 봉건세력을 철폐하는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二〇세기로씨야에서의 부르죠아혁명은 벌써 전혀 다른조건에서 진행되었나니 즉 자본주의는 상승하는것이아니라 몰락되며 자본주의는 진보성으로부터 퇴보성을가지었으며 모든모순이 첨예화하였으며 자본주의는 죽어가며 썩어저가는 조건하에서 진행되었다。

一九〇五년 로씨야혁명은 부르죠아의 패권을 혁명적으로 전복하기위한 물질적 전제조건이 조성된 제국주의시기에 진행되었다。

레닌과 쓰딸린은 一九〇五년 로씨야혁명이 서구라파의 모든 부르죠아 혁명보다 차이되는 새 특점들을 유제하였다 로씨야의 혁명은 제국주의시기의 첫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이다。

레닌은 로씨야혁명발전의 구체적 력사적조건과 특점들을 보이고 서구라파의 혁명에비하여 새 세기의 로씨야혁명이 가진 거대한 우월성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

첫째—인민들의 무한한 분노와 혁명성

둘째—전제제도의 폭정

셋째—프로레타리아트의 운동 발전 수준이 비교적 높은것

넷째—농민들의 혁명투쟁

다섯째—一七八九년과 一八四八년에비하여 사회주의 문헌과 조직들이 고상한것

이 레닌의 사상을 쓰딸린이 발전시키였다。

「불란서에서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각성이 약하였으며 비조직적력량으로되었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의 혜게모니야는 부르죠아에게있게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는 비교적 자각적이었으며 조직적력량으로되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벌써 부르죠아의 뒷꽁무니를 따라다니는 역활을 불만히 생각하고 혁명적계급으로서 옳은 운동의 선두에 립각하는것이다』

산업자본주의 시기에 진행된 서구라파 부르죠아혁명들이 동일하지않았다。

전제주의를 완전히 타도하였으며 봉건잔재를 결정적으로 숙청하고 공화국을 수립한 그러한 혁명도 있었으니 례하면 一八세기 불란서의 대부르죠아 혁명인것이다 이 혁명은 봉건사회의 두반렬(班列) 즉 귀족과 승려를 반대하는 투쟁에 제三반렬 즉 전인민을 호소한 혁명적계급으로 당시 부르죠아가 선두에 선 부르죠아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불란서 혁명은 제三반렬의 리해를 고수하면서 봉건주의를반대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이 궐기하여 승리한 인민혁명이고 변호사들의 혁명은 아니다』

력사에서 다른 부르죠아상층의 혁명 즉 비인민적혁명도 불수있다 이러한 혁명의 례로써는 낡은 제도를 파괴하고 공화국을 수립하지아니하였으며 독일부르죠아들이 지주적귀족들과의 타협으로써 끝마친 一八四八년 독일의 중도반단의 혁명을 볼수있다 이것을가리켜 자본주의 발진의 『뿌로샤적길』이라고 칭하는데 이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아주불리한 자본주의 발전의 고통스러운길이다。

왜 자본주의발전의 이러한길은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불리한가하는데대하여 레닌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로동계급에 있어서는 부르죠아민주주의적방향으로 나가는 필요한 제개혁은 개량의방법으로서가아니라 혁명적방법에 의해서 행해지는것이 더 유리하다 왜그러냐하면 개량의길은 너무나 더디고 지리한길이며 국민유기체내(國民有機体內)의 부패된 부분이 고통하면서 서서히 소멸되어가는길인 때문이다 그들이 썩어가는 도중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한 고통을 맛보는것은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이다』(당사 조선문 一一七폐지)

그리고 레닌은 포도아와 토이기혁명과 로씨야혁명에관하여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만일 二〇세기의 혁명을 례로말하면 포도아혁명이나 토이기혁명이냐 어느것이나 막론하고 다 부

르죠아 혁명이다 그러나 두 혁명이 모두 인민혁명은 아니다 왜그러냐하면 무 혁명에서 인민대중이 모두 자기의 경제및 정치적 요구를 들고 자립적으로 현저하게 출현하지않았기때문이다 이와반대로 一九〇五년—一九〇七년 로씨야부르죠아혁명은 물론 의심할것없이 진정한 인민혁명이다 왜그러냐하면 인민대중의 다수 즉 압박과 착취에 시달린 사회의 가장 하층이 자립적으로 궐기하여 혁명의 전행정을 통하여 자기의 요구를 내걸었으며 낡은것이 파괴된자리에 자기의 의향대로 새사회건설을 시도하였기때문이다』

이와같이 레닌과 쓰딸린은, 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과 부르죠아상층혁명간의 차이를 명백하게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부르죠아상층 혁명은 부르죠아들이 지주와 타협하며 인민대중의 리해에 만족을 주지못하나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은 인민혁명이며 이 혁명은 낡은제도를 완전히 타도하고 공화국을 수립한다。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에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그들은 전혁명행정을 통하여 자체의 경제적 및 정치적요구로써 출현한다。

一九〇五년 로씨야의 혁명은 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이며 인민혁명이다 이혁명은 그의 대중성으로서나 그에 인민의 참가로보아서 지나간 서구라파의혁명 심지어 가장 민주주의적이었던 혁명보다도 차이가 있는것이다 一九〇五년 로씨야 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은 전로씨야주민의 九〇%의 리해 즉 로동계급 一억만의 농민계급 도시의 소부르죠아 짜리즘에 압박받는 제민족과 인종들의 리해에관계를 가지었던것이다。

一九〇五년 로씨야부르죠아혁명은 자기의 민족적 특성을 가지었다 중세기적잔재 특별히 농업에서 나타나는 그잔재는 국가의 일체경제 및 정치생활에 파멸적 영향을주었다 광범한 몇백만의 농민대중은 토지를 위하여 지주와 짜리와 투쟁하면서 혁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레닌은 여러경우에 있어서 一九〇五년 로씨야의 혁명은 부르죠아 농민혁명이라고 칭하였다。

레닌은 다음과같이 말씀하였다『전사회경제의 자본주의적 성질에서 중세기적 성질을 반대하는 어떠한 농민혁명이든지 부르죠아 혁명이다 그러나 어떠한 부르죠아혁명이든지 모두 농민혁명은아니다……

일반적으로 맑쓰주의적 인식에의하면 부르죠아혁명은 자본주의가 발전되는 국가에서 모든 농민혁명에 반드시 적응되는 일정한법규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식이고 아직 이나라에서 부르죠아 혁명이(개관적필연성의 의미에서) 완전한 승리를얻기위하여 반드시 농민혁명으로 되어야되는가 그렇지않으면 되지말아야되는가에대하여서는 아직 말하지아니하였다」

레닌은 一九〇五년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의 또하나의 특성을 지적하였다 그특성이라는것은 一九〇五년로씨야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적 투쟁방법과 수단을 적용한것이다 즉 파업 총파업 무장적출현과 폭동이 곧 그것이다 로동계급은 프로레타리아적 투쟁방법으로써 전제제도를 타도하기위한 합동적투쟁에서 자기의 동맹자를 교양하였으며 원조하여주었다。

이와같이 레닌과 쓰딸린은 一九〇五년로씨야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을 맑쓰주의적으로 해부하였다。

멘쉐위끼들은 一九〇五년 로씨야부르죠아 혁명을 형이상학적 립장에서 판정하였다 그들은 서구라파 부르죠아 혁명의 경험을 력사적조건이 전혀 다르며 계급적 력량배치가 전혀 다르게된 二〇세기초 로씨야에 기계적으로 전가시켰다。

二、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야에대하여

一九〇五년 로씨야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력량배치는 어떻게되었으며 어떠한것이 원동력이었는가?

레닌이 「민주주의혁명에있어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두가지전술」이란 자기의 저서에서 기성한 기본적 전술원칙은 로동계급이 로씨야혁명에서 헤게모니야를 가져야하며 원동력이 되어야한다는것이다。

레닌은 혁명에서 두가지의 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였다 즉 짜리제의 타도와 민주주의공화국의 수립이든지 그렇지않으면 부르죠아가 짜리와 타협하여가지고 립헌군주제를 제정하든지하는것이다。

레닌은 다음과같이 문제를 세웠다 「로동계급이 부르죠아 사환의 역할 즉 다시말하면 전제제도에대한 돌격력은 강대하나 정치적으로 무력한 그러한 사환의 역할을 놀겠느냐 그렇지않으면 인민혁명의 지도자의 역할을놀겠느냐?」

로동계급이 인민대중의 혁명을 령도하는 조건에서만이 전제제도를 타승할것이며 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할것이다。

어째서 로동계급이 혁명에서 령도자가 반드시되어야하는가? 어째서 로동계급이 령도자가 되어야하는가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은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은 부르죠아에게보다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더유익하다 왜그러냐하면 로씨야에서 로동계급은 자본주의에만 고통을 받는것이 아니라 반농노적잔재와 짜리전제제도에 더 심한 고통을 받기때문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중세기적 모든 잔재를 숙청하는데 절대적 관심을가지었지만 부르죠아는 로동계급과의 투쟁에있어서 중세기적유물을 옹호하는것이 더유리하였다 즉 군주제나 상비군(常備軍)에 의거하는것이 더유리하였다。

로동계급은 짜리즘타도에 직접관심을 가지는것이다 왜그러냐하면 주로 부르죠아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계급투쟁의 자유발전과 프로레타리아트의 운동이 사회주의 혁명에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에로 발전하여나가기위한 근본적조건으로 되는까닭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본질로써 사회주의의 계급적본질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거부할것이아니라 혁명의 장래발전과 사회주의적개혁을위한 투쟁에 민주주의를 최고로 리용하여야 된다는것을 항상지적하였다 로동계급은 반드시 민주주의와 그를위한 철두철미한 투사의 정신으로 교양되어야한다。

부르죠아혁명과 사회주의혁명사이에 아무리 짧은 단계라할찌라도 사회주의혁명에로 나아가는길은 국내의 부르죠아 민주주의개혁을 거치는길외에는 아무 결도없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수의로 나가는 가장 훌륭한 "길로" 또 다리(橋)로써 민주주의공화국을 달성하려는것이다。

로동계급은 그 자신의 처지로보아 민주주의를위한 가장 철저한 투사이다 왜그러냐하면 로동계급은 자본주의적 개인 소유에 유혹되지않기때문이다 이것으로써 로동계급이、전제제도를 타도하기위하여 국내의 모든 중세기적 오물(汚物)들을 숙청함에 관심을둔다는것을 설명할수있다 이렇게되면 로동계급에게는 사회주의혁명을위하여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앞으로 전개하게 더 용이하게될것이다。

로동계급이 혁명에서 지도적역활을 수행하자면 로동계급의선두에는 맑쓰주의당이 서야되는것이다 당은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야의 무기라고 레닌이 말하였다 다만 맑쓰주의적당만이 로동계급을 민주주의를위한 선봉투사로 혁명의령도자로 교양한다。

벌써 로씨야혁명의 초기에 로동계급은 혁명의 기본적원동력이며 그의 령도자라는 레닌의 원칙이 확증되었다。

一九〇五년一・四반기에 八十一만의 로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으며 여러지방들에서 파업은 무장적충돌로 변하면서 첨예한 성질을 가지었다。

一九〇五년 파업자의 총수는 二백八十만명에 달하였다 이와같이 로동계급은 사회의 다른층보다도 더욱 헌신적이며 철저하였기때문에 짜리즘과의 승리적 투쟁을 진행할수있는 능력을 보이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야가 가능성으로부터 실재성으로 전환되며 그것을 혁명행정에서 실천하기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로동계급의 령도를 받는 동맹자가있어야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이러한 동맹자로는 농민이었다。

황제로씨야때의 농민의 처지는 대단히 비참하였다 一천만농민들은 두제싸찐 혹은 그이하의 토지를가지었다・몇백만농민들에게는 축력이없었다 그러나 매지주에게는 평균二천三백제싸찐의토지가있었으며 七백명의대지주들에게는 三만제싸찐의 토지가있었으며 니꼴라이 로마노브 황제에게는 백만제싸찐의 토지가있었다。

농노적기반에 억압된 농민들은 여러세기동안 토지와 자유를위하여 투쟁하였지만 그러나 이 투쟁은 농민에게 진실한 령도자가없었기때문에 성과를 보지못하였다 二十세기초에 이르러 짜리즘을 반대하는 자기의 철저한 투쟁으로서 농민들을 짜리즘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으로 고무시키며 인도하는 수령은 로동계급이었다 레닌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농민은 필연적으로 혁명과 공화국제의 지지자가될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완전히 승리한 혁명만이 토지개혁의 령역에있어서의 모든것을 농민에게 정말필요하며 그들이 원하여 꿈꾸고있는 모든것을 줄수있기때문이다」

혁명발전의행정에서 로동운동의 영향으로 농민운동이 성장되나니 벌써 一九〇五년봄에 八九군에서

농민운동이 전개되었다 一九〇五년에 전로씨야에서 지주를・반대하는 농민들의 봉기가 三천二백二十八건에 달하였다。

농민들은 소부르죠아적 요소를 가졌기때문에 불공고하며 동요하였으며 다수로 부르죠아에게 끌리었다 그러나 레닌이 말한바와같이 농민의 불공고성은 부르죠아의 불공고성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있다 왜그러냐하면 농민은 현재에있어서 사유재산제도의 절대적 보호보다도 이 재산의 주요 형태의하나인 지주토지의 탈취에 보다더・ 관심을 가지는때문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지주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혁명적운동의 발전을 지지하여야하며 혁명투쟁에 전농민들을 동원시킬수있는 그러한 구체적이며 전술적인 구호를 제창하여야된다고 레닌이 지시하였다 이러한 구호로서는 혁명적농민위원회를 조직하는것이다。

그런데 까우쯔끼는 농민과 지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정책을 취하라고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충고하였다 레닌은 이 까우쯔끼의 충고를 절대 반대하였다。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이 요구된다고 레닌이 한두번만 지적한것이 아니다 혁명적 맑쓰주의자들은 농촌의 부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위하여 농촌프로레타리아트와 반프로레타리아트들이 자주적 단체들을 조직할것을 망각하지말면서 짜리와 지주를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동맹자로 전체농민의 투쟁을 조직하여야된다。

농민들은 스스로 로동계급을 따라오지않는다 그렇기때문에 그를 혁명의편으로 전취하여야한다 그런데 농민들을 다만、변절적 자유부르죠아들과의 투쟁에서만이 전취할수있다 왜 그러냐하면 변절적 자유부르죠아들은、농민들을 짜리즘과・타협의 길로 끌기때문이다。

혁명에서、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야와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하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은 다만 자유주의적 부르죠아들을 고립시키는 조건에서만이 가능하다。

一九〇五년 혁명에서 로씨야자유주의 부르죠아들의 역활은 무엇이었던가?

一九〇五년 혁명에서 로씨야부르죠아들은 자기의 처지에의하여 반혁명적력량으로되었다 이것은 다음과같은 원인으로서 설명할수있다。

로씨야의 부르죠아들은 정치적투쟁의 무대에 늦게 출현하였다 로씨야부르죠아들은 벌써 자기의 맑쓰주의당을가진 프로레타리아트가 자립적계급으로 형성될때에 출현하였다 벌써 엥겔쓰가 서구라파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경험으로써 저적한바와같이 로동계급이 자립적력량으로써 정치적무대에 출현하는때부터 부르죠아들은 이미 가지었던 혁명성을 상실하게된다。

그렇기때문에 쓰딸린은「제국주의국가들에서 자유주의적 부르죠아들이 반혁명적으로 되지않을수없다」라고 지적하였다。

一九○五년 로씨야 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에서 부르죠아들은 짜리즘과만이 결정적 투쟁을하는것이 아니라 동시에 부르죠아와의 계급투쟁을 진행하는 벌써 형성된 로동계급을 만났다。

로씨야부르죠아들은 로동계급이 농민과의 동맹으로써 짜리즘을타도하고 민주주의적 공화국을수립하고 로씨야에서 민주주의적 제과업을 실현한다음에는 그자리에 머물어있을것이아니라 레닌이 말한바와같이「총을 이쪽 어깨에서 저쪽어깨에로 바꾸어 메고」투쟁을 계속할것을 잘알았다 그렇기때문에 로씨야부르죠아들이 벌써 혁명전야에서와 더욱 혁명의 행정에서 인민운동을 겁내하였으며 짜리에게 굴종하였던것이다。

로씨야부르죠아들은 거대한 국가적주문을받았다 뿐만아니라 부르죠아들은 황제정부로부터 많은 면제와 방조를 받았으며 외국과의 경쟁에서 절대의 지지를받았다 이모든것은 로씨야부르죠아가 짜리즘파의 경제적련계가있다는것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로씨야부르죠아는 로동계급파의 투쟁에있어서 짜리정부무력의 끝없는 방조를 받았다 그러므로 자연히 로씨야부르죠아들은 프로레타리아트와의 투쟁에 있어서 짜리정권과같은 그러한 지주(支柱)를 잃어버릴까 겁내할것만 사실이었다。

그리고 서구라파의 부르죠아들은 서구라파의 혁명운동에 직접영향을주는 로씨야혁명의 승리를 겁내하면서 로씨야부르죠아들을 짜리즘파의 투쟁으로가아니고 그와의 동맹과 타협에로 충고하였던것이다。

이와같이 로씨야부르죠아는 一九○五년 혁명때에 혁명적력량으로 출현한것이아니라 반혁명적력량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부르죠아들이 혁명의

초시부터 자기의 반혁명성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혁명의 초시에있어서 부르죠아들은 자기들이 마치 짜리즘과의 투쟁에 능력있는 력량으로 보이려고 하면서 인민을 첫차례로 농민을 기만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로동계급이 짜리즘과의 더욱、강경하게 투쟁할수록 부르죠아들은 자기의 반혁명적본질을 더욱 나타내게되였다。

로씨야의 자유주의적 부르죠아들은 자유주의적 군주 부르죠아들이다 그들은 짜리즘과의 투쟁에있어서는 힘으로 되지못하고 그들과 타협한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의 승리와 로동계급의 주위에 농민들을 단결시키기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자유주의적 군주부르죠아들을 폭로하며 고립시키어야되는것이다 자유주의적 군주부르죠아들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것은 혁명의 승리의 조건으로된다。

로동계급이 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에서 령도자가 되려면 다음과같은 조건이있어야한다。

(一)、로동계급에게 맑쓰주의적 당이 있어야하며

(二)、로동계급이 민주주의를 위한 선봉투사가 되어야하며

(三)、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 농민들을 궐기시키고 지도하여야하며

四、자유주의적 군주부르죠아를 폭로하고 고립시키어야한다

다만 이러한 조건만이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야를 보장할수있다。

맑쓰와 엥겔쓰는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야에대한 기본적 사상만 기초하였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야에 관한리론 농민에대한 프로레타리아트 지도에관한 리론을 발전시키었으며 완성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헤게모니야에대한 레닌의 리론은 맑쓰주의의 창조적발전이다。

이에대하여「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는 다음과 같이썼다。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에서 전술문제에관한 맑쓰주의당의 신방침이있는바 그것은 맑쓰주의 무기고안에 존재하였던 전술방침파는 근본적으로 다른방침

이었다 이때까지는 부르죠아혁명에있어서 가령 그
일례로써 서구라파에서는 부르죠아혁명의 지도적역
활은 부르죠아지에게 있었으며 프로레타리아트는
좋든 궂든 그 보조자의 역활을하였으며 농민은 부
르죠아의 후비대로되어있는상태였다……지금 새로운
력사적정세하에서 사태는 레닌이 생각한바와같이
전변되었으니 즉 프로레타리아트는 혁명의 지도세력
이되며 부르죠아지가 혁명의 지도에서 밀려나가
며 농민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후비대로 전화되었
다』(당사 조선문 一二〇—一二一폐지)

三、혁명의 승리를 위한 주요한 전술적 수단으로써의 무장폭동

무장폭동과 착취계급의 정권을 강압적으로 정복
하는데 관한 리론은 혁명적맑쓰주의에있어서 주요
점이다 다만 전인민적폭동으로써만이 혁명에서 프
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야에대한 리론을 실천할수
있으며 짜리즘을 끝까지 타도할수있다。

혁명적 맑쓰주의자들은 개량주의자들보다 다만
무장적 폭동의 필연성을 시인하는것으로써만이 구
별되는것이아니라 폭동을 조직하며 진행하는것을
예술과같이 인정하는것에서도 구별되는것이다 혁명적
맑쓰주의자들은 무장폭동에 관한 문제에있어서 항
상두계단으로본다。

(一)、정치적준비와 폭동에대한 선전
(二)、직접군사기술조직과 그의 실천

대중을 무장폭동에로 인도할수없다 레닌은 벌써
혁명이일어나기전 오래전에 무장폭동의 필연성에대
하여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때의 객관적조건에의하
여 아직 무장폭동진행에 관한 문제를 일정에 내
세우지아니하였다 一八九七년 레닌은『민주주의자들
의 과업』이란 자기의 저서에서 미래의 무장폭동
의 필연성과 무장폭동의 사상을 선전할 필연성에대
하여 지적하였다 그리고『무엇을할까?』의 저서에
서 레닌은 우선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맑쓰주
의당을 창건하는 방법으로써 무장적폭동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一九〇五년후 정세는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그때
에는 벌써 무장폭동에대한 사상을 선전하는것만으
로 만족하지못하였다 군사기술조직과 그의 실천에

관한 문제를 세울때가 당면되었다 왜그러냐하면
그것은 운동의 긴급한 요구가 되었기때문이다 그
렇기때문에 一九〇五년 四월에 열리었던 제三차당
대회에서는 폭동에 관한 선동선전의 필연성만 지
적한것이아니라 폭동의 실천적조직문제에 관한 과
업을 제기하였다。

레닌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정치적 구호에만 집중하는것은 부족하다 무장
폭동에대한 관계에서도 반드시 집중하여야된다 누
구든지 이것을 반대하거나 이에 준비하지않는 자
들은 혁명지지자들의 대렬에서 혁명의적에게로나
변절자들에게로나 그렇지않으면 비겁한자들에게로
몰아던지었다」

무장폭동의 조직과 진행에관한 실천적문제를 세우
면서 볼쉐위끼들은 대중적정치파업에 거대한 의의
를 부여하였다 파업은 대중을 진동시키며 조직적
진출에대한 것으로 로동자들에게 보이어주며 미래
의 투쟁을위하여 즉 폭동에 이르기까지에 그들을
단결시키는 수단이다。

제二국제당의 수령들은 총파업의 방법을 반대하였다
볼쉐위끼들은 총파업을 로동계급을 혁명적으로 동
원하며 짜리즘을 와해시키는 위력한무기로 인정하였
으며 무장폭동에로 넘어가는 가장 주요한 계단으로
보았다。

레닌은 다음과같이 썼다。

「로씨야혁명은 세계력사에서 대중적정치파업이
아주 거대한 역활을 수행한 첫혁명이며 위대한
혁명이라는것을 의심할바없다 로씨야혁명의 사태와
그의 정치적 형태의 변경을 만일에 이사태와 그
형태변경의 기본인 파업에대한 통계적재료를 연구
하지않으면 리해하지못한다。

봄과 여름에 진행된 로동자들의 파업은 一九〇
五년十월에 진행된 전로씨야의 총파업의 준비로되
었다 모쓰크바의 로동자들이 총파업을 시작하였다
이파업에는 백만명 산업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이파
업은 전국에전파되었다 파업자들에게 소수의 사무원
들과 인테리들이 가담하였다。

대중의 창발성은 특별히 총파업과 관련하여 로동
자대표쏘베트를 창조하였다 이로동자대표쏘베트들을
로동자들이 지도하였는데 그는 무장폭동의 기관으
로되였으며 새 혁명정권의 맹아로되었다 총파업행
정에서 八시간로동제와 로동계급의 당면요구들을

혁명적방법으로써 실현하려는 것이 대중적창발성을 발휘시킴에있어서 거대한 역활을 놀았다。

그러나 총파업은 아직투쟁의 위력한 무기는아니었다 파업은 반드시 대중을 운동의 최고형태로 즉 무장폭동에로 인도하여야된다。

적인민적무장폭동계획의 구성 부문으로는 농촌의 혁명적농민위원회와 군대에혁명적핵심을 조성하는것이다 혁명적병사들을 혁명의편에 인입시킴이없이는 승리적폭동이 있을수없다 그렇기때문에 볼쉐위끼들은 이런사업을 군대내에서 진행하였다 중앙위원회내에와 거대한당조직들에 군사국을 조직하였다 볼쉐위끼들은 무장폭동준비와 관련하여 빨찌산투쟁확대에 거대한 의의를부여하였다 혁명적향상과 폭동준비의 조건에서 빨찌산행동은 운동의필연적형태라고 레닌이 지적하였다 레닌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혁명의 긴급한 과업은 세가지라는것을 백번 천번 중복하여야 되겠다 즉 무장폭동, 혁명적군대, 림시혁명정부다」 이렇게볼쉐위끼들은 군사기술조직과 그의진행에 관한 문제를세웠다。

이것은 로동계급이 반드시무장하여야하며 무장부대를 조직하여야하며 자기동맹자를 무장시키어야하며 전제주의와의 투쟁에 농민과 병사들을 고무시키어야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다만 맑쓰주의당의 지도하에서 로동계급이 지도하는 무장폭동만이 짜리전제 제도를 타도하고 공화국을 전취할수있다。

멘쉐위끼들은 이투쟁에 가장 주요한 전술적방법인 무장폭동에대하여 다르게 관찰하였다。

폭동에관한 문제에있어서 멘쉐위끼들의 기회주의적 특점은무엇인가? 그들은 폭동을 짜리즘을 정복하는 필연적방법으로 인정하지아니하였다 폭동이 실천적 요구로 되었을때에는 멘쉐위끼들은 평화적으로 정권이 부르죠아에게 넘어간다고 설교하면서 군중으로하여금 폭동에주의를 돌리지못하도록 갖은 수단을 다하였다。

다만 볼쉐위끼들만이 짜리즘에대한 승리를위하여 투쟁하면서 전인민적무장폭동에대하여 말하였다 볼쉐위끼들이 류혈주일로부터 十一개월간 헌신적인투쟁의 결과 모쓰크바 프로레타리아트들이 十二월무장폭동을 수행하였다。

十二일간 모쓰크바 로동자들이 바리까드에서 영

웅적으로 투쟁하였다 폭동은 승리하지못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전제주의에대한 새 조직적 돌격을 준비하기위하여 모쓰크바무장폭동의 결점들을 철저하게 지적하였다 승리를 전취하기위하여서는 로동자들의 무장폭동과함께 농민폭동도 군대에서도 폭동이 동시에 봉기되어야된다 그리고 폭동을 지도하기에 능력이 있으며 공격전술을 진행할수있는 강경한 당중앙이있어야한다 그러나 一九〇五년 모쓰크바 十二월폭동에는 이것이없었다。

멘쉐위끼들은 모쓰크바 프로레타리아트의 영웅적출현을 비방하면서「무기를 잡지말아야 할것이었다」라고하였다。

레닌은 이 증오스러운 멘쉐위끼들의 요언에대하여 다음과같이 대답하였다。

「모쓰크바 로동자들이 반드시 무장을 잡아야한다 왜그러냐하면 강경한 류혈적 투쟁이 없이는 폭동이 없이는 새 자유스러운 민주주의적 로씨야를 전취할수없다 그러므로 무장 폭동을 더욱 결정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진행하여야된다」 十二월무장폭동에 대하여 쓰딸린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동무들! 프로레타리아트가 전패한것이 아니라 림시로 퇴각하였다 지금에는 그가 새 영광스러운 전투를준비한다 로씨야프로레타리아트는 피에 젖은 기빨을 숙이지아니할것이며 그는 로씨야혁명에 유일하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으며 될것이다」

四、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혁명적 민주주의 독재와 림시혁명정부에대하여

볼쉐위끼들은 승리적무장폭동의 결과에 새 정권기관 즉 림시혁명정부가 반드시 발생될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전인민적폭동에서 생긴 이 혁명적정권은 반드시 혁명의 전취를 확고시키며 반혁명의 반항을 진압하여야하며 사회민주로동당의 최저강령을 실천하여야된다。

레닌은 림시혁명정부의 구체적 과업을 다음과같이 제기하였다。

一、인민의무장 二、전인민적 립헌대회의소집 三、정치적자유를 보장하며 그에반대되는 모든 법령의 철폐 四、전체피압박 인민과 무권리한 인민들에게 경제정치문화의 자유발전보장 五、八시간로동제 六、

제민주주의개혁을 실시하며 지지하기위하여 농민위원회를 조직하며 지주의토지를 몰수하는데까지이르는 토지문제를 해결할것이다。

이 제방침실현은 국가제도의 완전한 민주주의화 즉 민주주의공화국의 승리를 의미하는것이다。

림시혁명정부는 질서만 유지하는 기관이될것이아니라 혁명을 강화시키며 발전시키기위한 금후의 전투를 조직하는 력량으로되어야한다 림시 혁명정부는 무장폭동에참가한 계급과 당의 대표들로써 구성되어야한다 그런데 무장폭동에는 로동계급과 농민들이 참가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이 림시혁명정부는 반드시 로동자와 전농민의、혁명정부가 되어야한다 이정부는 계급적본질로보아서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독재이다 왜그러냐하면 정부는 무장한 대중과 전인민폭동에 의거하기때문이다。

레닌은 다음과같이 말씀하였다。

『이것은 다만 독재로만 될수있다 왜그러냐하면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에게있어서 즉시로 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개혁의 실현은 지주 대자본가 짜리제의 결사적반항을 인기(引起)시킬것이기때문이다 독재가없이는 이 반항을 타파하며 반혁명적기도를 격퇴하지못할것이다』

림시혁명정부에 혁명적사회민주당의 대표들의 참가 여부에대하여 레닌은 당의 대표들이 림시혁명정부에 원칙적으로 참가할수있다고 인정하였다。

파리콤뮨이후 오랫동안 새 사회적제도를수립하기위한 직접혁명투쟁에대한 과업이 제기되지않았으며 투쟁이 다만 방어적성질만 가지었다 이때에도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다만 아래로부터서만 활동할 필연성에대하여서만 즉 존재하여있는 정부를 외부로써 압도하며 비판할 필연성에대하여서만 말하였다 위로부터의 활동은 즉 부르죠아정부에의참가는 비난하였다 당시에 이것이 정당하였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적로동운동과 투쟁한 불란서부르죠아 정부에의 밀레란의 참가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비난하였던것이다。

혁명적시기 즉 인민무장폭동행정에서 형성된 혁명정부는 이상에 말한 불란서정부와의 전혀 다른 성질을가지었다 이런 조건에서는『아래로부터』와『위로부터』활동할수있다 로동계급과 그의당은 혁명의 행정에서 즉 전인민적투쟁의 행정에서 발생된 민주주의정부에 영향을주어야한다 그리하여『위로부터』그의 활동 즉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전취를 공고히하며 혁명의 금후발전을 보장하기위하여 혁명정부에 사회민주로동당의 대표를 보낼 필요성이 생기는것이다 그러나 이와동시에『아래로부터』의 활동을 계속하여야한다 즉 이것은 무장한 대중이 이정부에 들어간 로동자대표들을 검열하며 그 정부를 지지하여야 된다는것을 의미한다『위로부터』와『아래로부터』의 활동은 혁명의 승리를 보장한다。

멘쉐위끼들은 다만 전인민적무장폭동에서만 생길수있는 림시 혁명정부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멘쉐위끼들은 불란서부르죠아정부에 밀레란이 들어간것을 론죄한 암쓰뜨레담 대회의 결정을 볼쉐위끼들이 위반한다고 비난하였다。

이에대하여 쓰딸린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암쓰뜨레담 대회는 림시혁명정부에대하여 말한것이아니라 고정적인 불란서부르죠아 정부에대하여말하였다 불란서정부는 반동 및 보수적정부이며 그는 새것을 반대하고 낡은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이 정부에 진실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들어가지않을것만 사실이다 그러나 림시정부는 혁명적 및 진보적정부이다 그는 낡은것을 반대하고 새길을 닦으며 혁명의 리해에 봉사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혁명을 완성하기위하여 림시혁명정부에 참가한다 보는바와같이 이것은 두개의 차이되는 현상이다。』

다만『아래로부터』만이 활동하여야된다는 멘쉐위끼들의 제의는 무정부주의로 나간다고 쓰딸린이 지적하였다 멘쉐위끼들은 로동자와 농민의 의지의 통일을 달성할수 없다는 구실로써 무장폭동에서 생긴 로동자와 농민의 혁명정부를 반대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멘쉐위끼들을 이경우에있어서는 전형적 형이상학자라고 칭하였다 력량관계를 구체적 환경에서 연구하여야된다 짜리와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의지가 통일된다 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하는데있어서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의지가 통일될수없다 그때에는 새 력량관계가 형성된다 즉 프로레타리아트와 농촌빈농민과의 동맹이다。

멘쉐위끼들은 림시혁명정부에 당의 참가를 거부하면서 부분적도시들에는 혁명적콤무나를 조직할수

있다고 말하였다「혁명적꼼무나」란말은 一八七一년 파리꼼무나로부터 나온말이다 파리꼼무나는 로동정부의 맹아로써 저명하였다 그러나 一九〇五년 로씨야에는 사회주의혁명이 시작된것이아니라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이 시작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적꼼무나란말은 자체 로씨야혁명의 성질에 어떠한 관계든지 가지지아니하였다。

이와동시에 멘쉐위끼들은 마치「폭동의서막」으로 되는「혁명적지방자치기관」에 대하여 선언하였다

이것은 역시 부르죠아 기회주의적 내용을가진 빈말공부뿐이다 왜그러냐하면 전제주의를 타도하고 중앙에 새 혁명적정권을 창건함이없이는 지방에「혁명적자치기관」이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혁명적자치기관」은 폭동의 서막인것이 아니라 폭동의 종막이다 먼저 혁명을 성공하고 중앙에 혁명정부를 조직한후 그정부는 자기의 지주(支柱)로써 각지방에 혁명적 자치기관을 조직하는것이다 만일에 중앙에 반동적 짜리 정권이 존재한다면 비록 지방자치 기관이 조직된다할찌라도 그는 혁명적역활을 수행하지못할것이다 물론 짜리정부는 그를 용허하지도 않을것이다。

전인민립헌대회소집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레닌은 지적하기를 다만 폭동에서생긴 림시혁명정부만어 그를 소집할수 있다고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적부르죠아들은 폭동이없이 또는, 림시혁명정부가없이 짜리의 배하에서 창립대회는 대표적기관으로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적부르죠아의 진지로 멘쉐위끼들이 넘어갔다 멘쉐위끼들은 짜리가 소집한 대표기관 즉 국회와같은것이 평화적방법으로써 립헌대회로 변할수있다고 주장하였다

로동자와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 독재에관한 볼쉐위끼들의 구호는 새제도를 창설할수있으며 반혁명을 무자비하게 진압할수있는 계급으로 로동자 농민을 규정한것이다。

이 문제에대하여 레닌은 다음과같이말하였다「지금에 누구든지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에 관한 이 구호와 혁명적군대와 혁명적정부와 농민위원회에 관한 구호를 인정하지않는사람은 혁명의 과업을 리해하지못하며 현계단에서 제기되는 새롭고 고상한 과업을 규정할줄 모르며 그렇지않으면 인민들을 기만하면서 혁명을 변절하며 혁명적표어에대하여 적의를 가지는자이다」

멘쉐위끼들은 로동자들을 기만하였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혁명과 립헌대회에 대하여말하였다 로동자와 농민의 무장적 폭동의 결과에서 생기는 립시혁명정부와 립헌대회의 소집을 위한투쟁을 거부하였다。

멘쉐위끼들은 로씨야자유주의 부르죠아들과 마찬가지로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독재의 승리를 겁내하였다。

五、부르죠아 민주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성장발전에 관하여

레닌은「부르죠아민주주의 혁명에있어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두가지전술」이란 자기의 저서에서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성장발전에 관한 리론을 완성하였다 이에대한 사상은 레닌이 이미 자기의로작「인민의벗」에서 기성하였던것이다 레닌은「두가지전술」에서 로씨야에는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성장발전에관한 제객관적조건이 성숙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객관적조건이란 무엇인가?

첫째—제국주의시기가 닥치어온것이다 이시기에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을 위한 세계자본주의 체계가 성숙되었다 즉 각나라와 각민족의 경제는 세계의 제국주의적 경제체계의 통일된 련쇄의 고리로변하였다。

이에대하여 쓰딸린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이전에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의 전제조건을 분석하는데대하여 보통각나라의 경제적상태의 견지로부터 착수하였다 지금에는 이 취급방법이 벌써 불충분한것으로 되었다 지금에는 모든 혹은 다수국가들의 경제상태의 견지로부터 즉 세계적 경제상태의 견지로부터 문제에 착수하여야된다……지금에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을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 제국주의적 경제체계에있어서의 여러가지 모순이발전된 결과라고보며 이런 혹은 저런나라에있어서의 세계제국주의 전선의 련쇄가 파괴된 결과라고 보아야된다」

로씨야에서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성장발전될수있는 둘째의 객관적조건은 두개의 사회적전쟁인것이다 첫째는 짜리와 지주를 반대하는 전체인민과 전농민의 전쟁인것이며 둘째의 것은 도시에서 자본가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

와 농촌에서 토호를 반대하는 농촌빈농민들의 전쟁인것이다。

이 두 사회전쟁은 부르조아민주혁명의 당면과업실천만 보자하여주는것이 아니라 사회혁명을 위한 미래의 계급력량의 재 편성을 보장하여준다。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성장발전에관한 계획실천은 무엇에 달리었는가?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이 성공된후에 농촌 빈농민들과함께 혁명을 사회주의적으로 발전시키기위하여 또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독재를 결쳐서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을 사회주의혁명으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와 그의당이 농촌 빈농들을따로 련합시킬수있는 힘과 능력에달리었다。

레닌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즉시 이행을 시작할것이다 우리의 력량 즉 자각적이며 조직적인 프로레타리아트의 력량에 상응해서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가기를 시작할것이다 우리는 계속혁명의 주장자이다 우리는 중도에서 주저앉지는않을것이다」

레닌은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성장발전에관한 리론을 작성하면서 一八五〇년에 「공산주의자동맹」에보낸격문가운데 제시된 계속혁명에 관한 맑쓰의 저명한 원칙을 풍부하게하였다。

이것은 一八四八년 혁명실패후의 사실이다 맑쓰는 그때에 새정치적 위기를 기대하면서 만일 위기의 결과에 공화당과 소부르죠아당이 정권을 장악하게되면 그들은 자기의 정권을 공고히하려고 시도하면서 혁명을 신속히 끝마칠것이다 라고 로동계급에게 주의시키었다 그리고 맑쓰는 로동계급의 당이 조직적력량으로 출현하며 혁명의 여러 단계에서 각기 다른 동맹자들과함께 진출할것을 제의하였다 부르조아와 소부르조아 계급과 당이 자기의 리해문제의 해결을 달성하고 혁명을 끝마치려고 할때에 로동계급의 과업은 혁명을 심지어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에까지 전진시키어야 된다는것을 가르치었다。

레닌은 계속혁명에대한 맑쓰의 원칙을 회복시키었으며 기회주의자와의 투쟁에서 그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레닌은 계속혁명론에대한 맑쓰의 원칙을 악변하려는 멘쉐위끼들의 시도를 부분적으로 어떠한환경에서라도 혁명적정부에 프로레타리아트의 참가를 맑쓰가 마치 거부한것처럼 증명하려는 쁠레

하노브의 시도를 폭로하였다 이 쁠레하노브의 시도는 맑쓰의 진실한 견해를 악변시킨것이다。

一九〇五년 혁명시에 레닌은 사회주의혁명의 새리론을 창조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을 농민전쟁과 결합시키라는 맑쓰의 위대한 사상을 리용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동맹에대한 자기의 리론을 제기하였다。

이에대하여 「쏘련공산당(볼쉐위끼)략사」는 다음과같이 썼다。

「이 리론은 전체 부르조아지를 반대하는 고립된 프로레타리아트가 실현하는것이 아니라 주민중에 반프로레타리아트의 요소 즉 기백만명의 「근로자 및 피착취적대중」을 동맹자로 가지고있는 령도자로써의 프로레타리아트가 실현하는 사회주의혁명의 새 리론이다。

이 리론에의하면 부르조아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동맹에의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야는 사회주의혁명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와 기타 근로자 피착취대중과의 동맹에의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야로 발전되어야하며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민주주의적 독재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적 독재의 지반을 준비해야된다」

레닌이 그의 저서 「민주주의혁명에있어서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두가지 전술」에서 발전시킨 기본적 전술상 원칙은 이러하다。

당사업경험에서

(一)

흥남시당단체의 증산경쟁운동조직경험

정 가 원

흥남지구 로동자 사무원들은 우리조국의 통일적 자주독립과 민주화의 물질적기초로 되는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후 계속하여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또한 승리로 완수하고 새로운 二개년계획의 승리를 위하여 분투매진하고있다。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의 승리를위한 투쟁에 있어서 흥남공장에 부과된 경제계획숫자완수를 위한 협조사업에 흥남시당단체는 적지않은 업적을 쟁취하였다。

오늘 조선산업부흥에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노는 흥남지구인민공장—비료공장、본궁공장、제련공장、화약공장 룡성기계제작소의 五대공장—二만여명 전체 종업원들은「오직 나아갈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의길은 건설의 길이며 경제토대를 튼튼히하는 길입니다」(흥남에서 一九四八년二월二一일 김일성장군의 연설)라는 김일성동지의 훈시를 받들어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초과달성을 위하여 더욱 용감한 투쟁에로 돌진하였다。

흥남지구인민공장 전체종업원들은 이미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는 투쟁에서 기술적으로、장성되었으며 애국적인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의고안과 생산에 우수한 간부들이 많이 양성된 조건하에서 승리를 얻었던것이다。

이것을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할수있는 담보로삼고「이미 완수한 승리의 업적과 현재 달성한 성과와 또는 원료 자재 후비력과 자체의

능력 및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타산한결과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예정숫자를 그 계획예정기간보다 一개월 단축하여 十一월말일전으로 초과수행할것」(三월二○일 호소문에서)을 조국과 김일성장군앞에 결의 맹세하면서 전체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호소하였던것이다。

이렇듯 흥남지구인민공장 전체종업원들의 고귀한 애국적열정에서 솟아나온 고도로되는 생산의욕을 제때에 포착하여 이를 승리의길로 조직인도함으로써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예정숫자의 초과완수를 협조보자하는 투쟁에있어 흥남시당단체는 커다란 역활을하였다。

우리당중앙위원회의 올바른 지도밑에 흥남시당단체가 주동적으로 조직한 증산경쟁운동의 성과는 흥남지구인민공장이 자기맡은 년간계획을 一개월 단축하여 완수한 혁혁한 승리를 쟁취하는데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되었다。

흥남시당단체는 자기사업을 조직하는데있어서 승리에대한 확신성의 기초를 항상 로동자들의 각성된 애국적열성에 두었으며 당과 전체종업원군중과의 튼튼한 련결에 두었으며 一九四六년도 인민경제복구사업과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계획초과완수를 위한 투쟁에서 얻은 경험교훈 및 쏘련군대의 우의적 방조밑에서 이루어진 기술적장성에 두었던것이다。

승리에대한 확신성을 얻은 흥남시당단체는 년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과정에서 우선 증산경쟁운동을 반드시 정치적투쟁과 결부시켜 당세포 및 당원들의 선봉적이며 모범적인 활동으로서 전체군중을 이운동에 동원 인입하는 방향으로 조직전개하는 한편 당원 및 비당원군중의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는 사업과 항상 병행 시켰다。

이와같이 우리당원들을 선두로한 전체종업원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은수준에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조직한 증산경쟁운동은 승리적성과를 가져오지 않을수없었다 즉 우리당 제二차전당대회 경축증산경쟁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三·一절 五·一절 六·二四 八·一五 八·二五 중앙정부수립등을 계기로 조직한 증산경쟁운동은 정치적캄파니야와 결부되면서 로동자들의 투쟁의욕을 더욱 발양하여 생산질적을 제고하였다 뿐만아니라 로동자들을 정치적으로 단련하며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데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같은 투쟁은 또한 당내부의 조직강화와 사상적통일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도하였으며 매개당원들로 하여금 근로인민의 선봉적투사로서 자기의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당의위신을 가일층 발휘시켰던것이다。

一九四八년도 증산운동의 첫봉화는 비료공장 질소계분세포에서 호소하였으며 이는 우리당단체와 당원들이 증산운동의 선두에 섰다는 것을 보이어 주었던것이다 즉 一월二일 비료공장 질소계분세포총회에서 질소분리기를 시급히 수리하기위하여 증산운동을 호소할것을 결의하였으며 이 경쟁운동은 三류산계분세포당원들의 호응을 비롯하여 전체비료공장당단체 및 당원과 전체종업원을 증산경쟁운동에로 인입하였던것이다 또한 三·一절증산경쟁운동에 있어서는 비료공장 린산계세포의 호소로써 전체종업원들을 이 운동에 궐기시켰던것이다。

당단체의 이러한 선봉적역활은 전체 종업원들이 우리당의 구호를 절대 따르게하는 계기로되었다。

한편 당단체는 당세포위원들의 역활을 높이며 당원들로 하여금 당적위임에대한 실천성과 당적위임의 분공화를위한 개별적지도 방법을 수립하였다 그의 례로써는 룡성공장 기공계세포 위원회사업을 들수있다 세포위원회는 경쟁기간중 당의 중심적고리를 개별적기준량능가에 목적을두고 세포위원장 김태종동무는 세포위원중 모범적인 동무를 중심으로 그 동무의 사업을 방조하는 분공사업을 조직하고 다른 동무들이 그 뒤를 따르게하였다。

이와같이 당세포 및 당원들의 솔선적궐기와 모범적투쟁으로서 전체군중을 증산투쟁에로 인입하다 전위적역활을 다함으로써 당과 군중과의 련계를 더욱 튼튼히하여 력사적전통을 가진 조선로동계급을 핵심으로하는 우리당에대한 신임을 군중속에서 더욱 두텁게하였으며 또한 당원들의 당성을 제고시킬수 있었던것이다。

증산경쟁운동에있어서 당은 그들의 정치적의욕과 계급적각성을 제고시키는 정치교양사업을 어느때보다도 가강히 전개하였으며 그들이 조국과 인민앞에 맡겨진 책임감을 제고시키며 모범적로동자를 표창하며、락후한 경향을 제때에 폭로분쇄하는 각종 선전선동공작이 병행되었다。

이상과같이 흥남시당단체는 증산경쟁운동을 조직지도함에있어서 우선 로동자들의 앙양된 조국애와 정치적 계급적각성에 의거하기위하여 투쟁을 정치적캄파니야와 결부시키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활에서

출발하며 정치교양사업을 가일층 가강히하는 기초위에서 전개하였다。

이는 즉 우리의 투쟁이 언제나、정치적 계급투쟁속에서 전개되어야함을 말하는것이며 또한 이 투쟁은 조선 로동계급들로 하여금 민주조국창건을위한 투쟁의 선두에 설수있다는것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흥남시당단체는 증산경쟁운동을 조직할때마다 그 중점을 생산과정에서 중요한부문 또는 생산상 애로가 맺혀져있는 고리에두고 이 부문에 우수한 간부들을 배치하였던것이다。

즉 一九四八년도를 맞이하는 一월二일에 질소계분세포를 집중적으로지도한것、三월一일 경쟁운동에서 린산계분세포에、중점을 둠으로써 전기로(電氣爐) 보수공사를 二三일이나 기한을 단축하여 완수하는 동시에 린산(燐酸)을 一六〇톤이나 더 증산케하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준 사실들을 들수있다 이렇게 기본고리를 추켜들어 중점적협조를하는 한편 증산운동에 있어서 특히 당적주의를 돌린것은 기능자 기술자를 양성하며 모범적로동자를 양성하는 사업이였다。

전체 증산운동기간을 통하여 三、〇一五명의 기능자를 새로 양성하고 五四七명의 기능자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것이 투쟁목표의 하나로 제시되었던것이다 이 사업을 조직함에 있어서는 개인과 개인 기대와 기대 반과 반을 중심으로하는 경쟁을 조직하고「기능자는 기술자로」「로동자는 기능자로」라는 구호밑에 전체군중을 발동시키는한편 매개기능자는 각직장의 특수성에 따라 三—四명의 로동자를 기능자로 양성할것을 책임지우고 그 책임자간에도 누가 기능자를 많이 양성하는가하는 경쟁을 조직하였다 경쟁기간내에 책임자는 책임맡은 로동자로 하여금 자기의 수준에까지 기능을 향상시키기위하여 기능전습반 또는 개별적 교수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같은 개별적인 기술지도의 성과는 비료공장만하더라도 三·四분기에 이르려 계획 四五〇명에 대하여 八八八명되는 기능자를 양성하여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 계획완수에 거대한 성과를 얻게하였다。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부단히 증장시키는 사업조직에있어서 벽보 만화 확성기를 통한 군중선동

사업을 가강히 전개하였다。

군중선동사업은 증산을 고드하는 역활만한것이 아니라 일부 옳지못한 비방으로서 생산의욕의 침체를 기도하는 자들의 투쟁에 있어서도 큰 역활을하였다。

이 선전 선동사업은 일방적으로 옳지못한경향을 폭로분쇄하는데만 그친것이아니라 로동자들의 호상협조정신에 대한 교양사업과 결부되었다 즉 로동자들이 튼튼히단결되고 충심으로 동지들간의 호상협조를 도모함으로써 우리의 생산량은 계획이상 초과할수있는 조건으로된다는 모범을 군중들앞에 널리 해석하고 깊이 침투시켰다。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기위한 사업의 또 한가지로써 로동자들이 오늘의 피로를 즐거운가운데서 깨끗이 풀어버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래일의 생산에 착수할수있는 조건과 환경을 지어주는것이 증산경쟁운동을 조직하는데있어서 적지않은 효과를 가져오는것이다。

이에 착목(着目)한 당 단체들은 우선 민주선전실과 구락부사업을 강화하여 직장내 각종 문화써클을 활발히 발동하여 로동자사무원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능률제고를 기하였다 동시에 직장내 미화사업에 주력한결과는 전체 종업원들에게 안착감(安着感)과 직장에 애착심을 환기하였으며 그는 로동력의 부동성(浮動性)방지와 출근률제고를 보장하는데 많은 도움을주었다。

·한편 로동자들의 가정에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돌려 로동자들이 가정에대한 근심이 없이 자기사업에 열중할수 있도록하였다。

즉 주택지구 녀성동맹은 주택지구청소 주택지역 소채농원의 과종 및 위생사업등을 초급단체와 초급단체간의 집체적경쟁을 체결하여 다투어서 이를 실천하여가는 한편 특히 인민군대 가족후원사업과 병행하여 주택지구내 로동자들 가정간의 호상방조사업을 조직한결과 이 경쟁이 전면적 사회적운동으로 호응전개되었다。

·동시에 보건강연회를 조직하는등 직장에 안전시설과 로동조건을 보장하는 사업의 성과는 로동자들의 생산능률을 제고시킬수있었다。

이리하여 본궁카바이드 B조만보더라도 출근률 九五%로부터 九九·五%로、 제고되었으며 생산은 一七五%로 향상되었다。

이들 카바이드과 전체로동자들의 생산은 三、四월에비하여 **五월에는** 一三四%로 제고되었으며 출근률은 三%가 제고되었다。

이상과같이 흥남시당단체는 자기맡은 과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교훈을 얻게되었다。

흥남시당단체가 증산경쟁운동조직을 통하여 얻은 성과의 하나로써 당단체는 매계단의 증산경쟁운동에서 특별한 중심임무를 완성함으로써 이를 총화하고 이를 경험으로 삼아 다음 계단으로 새로운 과업을 실천하기위한 투쟁에 순서있게 진행한데있다 다시말하면 천편일률식이아니라 당단체는 중요한 고리에대하여 집중적력량을 경주하였으며 매돌격주간에 걸쳐 다만 생산에만 치중한것이 아니라 매계단마다 그 중심적투쟁과업을 제시하여 그의 실천을위한 투쟁에있어서 거대한 성과를 얻었다。

三·一절증산운동에 있어서는 직장과직장 계와계간의 경쟁을 조직하고 당은 이 운동에있어서 기계정비보수、물자절약、원가저하에 협조의 중심을두고 중심적직장으로 비료공장에서는 린산계에 두었던것이다 그리하여 린산계작업을 모범으로 삼아 전체 종업원들을 추동시켰던것이다。

린산계분세포에서는 전기로 보수공사공정을 결정하고 다른 방면으로 폐재(廢材)리용운동을 조직한결과 원가저하면에서는 一五〇만원되는 국가적리익을 보게하였다。

당은 이와같이 얻은 우수한 경험을 경쟁운동에 참가한 전체 종업원들에게 해석선전한결과 비료공장하나의 례만 보더라도 三四五톤의 고칠회수에 성공하였던것이다。

五·一절 증산투쟁에 있어서는 그의 중심과업을 로동규률강화 출근률제고 로력조직을 재검토함으로써 생산능률을 제고시키는데 두었던것이다。

다른 방면으로는 생산협의회를 각 과계별로 정상적으로 진행할데 당적주목을 돌리었던것이다。

이 사업조직에 있어서는 모범로동자를 그의 선두에 세웠던것이다 즉 본궁 카바이드공장 모범로동자 한도겸동무를 위시하여 열성당원 一六명은 직장총회에서 출근률제고와 四八〇분 로동시간엄수 및 로력재정비를 위한 경쟁운동을 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 흥남시당단체가 자기사업경험에 비추어 고식적사업작풍을 청산하고 로동자들의 창의고안을 제때에 받아들인 결과 얻은 성과의 실례를

한가지들수있다。

즉 흥남비료공장의 류안비료(硫安肥料)생산에 결정적열쇠로되는 질소분리기(窒素分離器)가 거의 로쇠와 외부기온의 상승으로 생산의 질과 량을 보장하지못하던 때였다 즉 질소분리기 一대가 평균생산량에 비하여 그 절반의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다 로동자들은 침식을 잊고 기계에서 떨어질줄을 모르고 분투하였다 그러나 생산은 날이갈쑤록 저하할뿐이였다 이에 로동자 동무들은 기계를 멈추고 총분해 작업을 함으로써 평균생산량 이상의 생산을 보장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어 하부로부터 있었다。

당은 정당하게 그들의 창안을 포착하여 질소분리기를 두대씩 운전중지하고 총분해작업을 하는한편 一四전의 보수공사를 급속히 완수하기에 로동자들을 고무시켰다。

결과로 질소계 모범로동자 서상인동무를 비롯한 一七명이 민청작업반을 조직하고 기계와 침식을 같이하면서 분투한결과 종전에는 一五일간을 요하던것을 단 五일간에 분리기 한대의 총분해작업을 완수하여 종전에 비하여 매시간 二、〇〇〇립방메터이상 돌파함으로써 류안비료생산계획을 단축 실행할수있는 기초를 닦아놓았다。

이상과같은 경험들이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예정숫자를 一개월간 단축할것을 호소한 흥남지구 인민공장 二만여명 로동자 사무원들의 높은 정치적각성을 증산에 조직고무하는 사업에서 흥남시당단체가 얻은 몇가지 구체적경험인바 이 성과로써 비료공장 류안비료생산은 단축기일보다 四일더 단축하여 一二월 二六일에 一〇〇%로 승리하였다。

이와같은 기초위에서 년간 계획一개월 단축에 성공하고 추가계획을 수립하여 새 二개년계획의 승리를위한 년말증산경쟁운동에 一七六대 七一〇반으로 개인대 개인 경쟁에 一三、九八四명이 참가하여 눈부신 증산경쟁운동을 전개하고있다。

(一九四八、一二、二〇)

독자동지들에게

「근로자」는 一九四九년一월부터 한달에 두번씩 발행합니다。

앞으로 리론문제와 아울러 당생활에대한 론문 경험을 더많이 게재할 작정입니다。

실지당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대한 원고、당사업기사 및 편지、그리고 잡지에 게재된 론문、자료、경험적기사에대한 감상、의견、질문등을 다음주소로 보내주심을 바랍니다。

「근로자」예약은 소관우편국에 하여주심을 바랍니다。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로동신문사내
「근로자」편집국
전화三八〇三(五九)

一九四九년一월一〇일 인쇄
一九四九년一월一五일 발행

「근로자」제一호
【정가 三〇원】

책임주필 기 석 복
편집인 김 성 용
인쇄인 최 만 엽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행소 로 동 신 문 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